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한·일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중심으로-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오기노신사쿠(荻野晋作)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한·일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구본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오기노신사쿠

오기노신사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_____ ㊞

부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국문 초록

연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창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다. 그러므로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연어 교육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 중 특히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적 거리가 가까운데도 연어를 이루는 단어의 공기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연어를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연어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 및 일본에서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적인 관점에서 연어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로 일본의 두 개의 대학교에서 네 번의 수업을 통하여 연어 교육의 현황을 교재, 학습자, 교사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여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의 연어 교육과 함께 연어 교육을 위한 충분한 연어 자료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급 수준의 학습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출현도, 사용도가 높은 연어를 추출하여 연어 대표 목록을 설정하여, 일본인 학습자의 사용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유형 분류하였다.

둘째, 연어 학습에 관한 설문지 및 연어 대표 목록에 수록된 연어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한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시험지를 구안하여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의 연어 사용의 경향과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는 연어 사용의 정확성 문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로 인하여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고급 학습자는 연어 사용의 다양성 문제, 즉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연어 사용과 연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 요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연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연어 사용과 명시적인 연어 학습 및 어휘 학습 방법의 하나인 사전 학습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명시적인 연어 학습과 실제 언어 현상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 연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은 전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 연어 사용의 두 가지 측면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연어 사용의 다양성을 연어의 양적 능력,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연어의 질적 능력이라고 다시 정의하여 두 가지 연어 사용 능력 신장을 한국어 연어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과 함께 언어 학습에서의 연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연어 의식 고양 세 가지를 한국어 연어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어휘 교육의 명시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Ⅱ장에서 마련한 연어 대표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를 활용하여 일본의 대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한국어 비전공 수업과 한국어 전공 수업을 위한 두 가지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마련하였다. 또한 검증을 통해 연어 교수·학습 모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그간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에 관한 논의를 보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일본인 학습자, 연어 교육, 한국어 연어, 어휘적 연어, 연어의 양적 능력, 연어의 질적 능력

학 번 : 2010-24156

차 례

국문초록 ····· i
차례 ····· iii
표 차례 ····· vi
그림 차례 ····· vii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2.1. 한국어 연어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 ····· 4
2.2. 한국어와 외국어 연어 대조에 관한 연구 ····· 7
2.3.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에 관한 연구 ····· 9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1

Ⅱ. 한국어 연어 교육의 이론적 기반 ····· 14
1. 연어의 개념 및 범주 ····· 14
1.1. 연어의 정의 ····· 14
1.2. 연어의 범위 ····· 18
2. 연어 교육의 중요성 ····· 20
2.1. 연어 교육의 이론 ····· 20
2.1.1. 개방 선택 원리와 관용 선택 원리 ····· 20
2.1.2. 어휘 중심 접근법의 원리 ····· 22
2.1.3. 연결주의와 어휘부 가설 ····· 24
2.2. 일본에서의 연어 교육의 현황 ····· 27
2.2.1. 교재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 ····· 28
2.2.2. 학습자의 학습 태도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 ····· 31
2.2.3. 교사의 교수 태도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 ····· 35
3. 한국어 연어 목록 선정 및 유형 분류 ····· 36

3.1. 대표 연어 목록 선정 ····· 37
3.1.1. 기존의 연어 목록 검토 ····· 37
3.1.2. 연어 목록 선정 방법 및 선정 절차 ····· 38
3.2. 연어 유형 분류 ····· 42
3.2.1. 기존의 연어 유형 분류 방법 검토 ····· 42
3.2.2. 연어 유형 분류 결과 및 연어 대표 목록 제시 ····· 49

Ⅲ. 한국어 연어 사용 양상 분석 ····· 51
1. 조사 방법 ····· 51
1.1. 조사 참여자 선정 ····· 51
1.2. 조사 도구 개발 ····· 54
1.3. 자료 분석 방법 ····· 57
1.4. 조사 절차 ····· 58
2. 조사 결과 및 분석 ····· 59
2.1. 연어 사용의 정확성의 문제점 ····· 59
2.2. 연어 사용의 다양성의 문제점 ····· 72
2.3. 연어 사용과 제 요인들과의 상관 분석 ····· 80
2.3.1. 연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 ····· 81
2.3.2.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관계 ····· 83
2.3.3.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의 상관관계 ····· 84
2.3.4. 연어 사용과 어휘 학습 방법의 상관관계 ····· 87
2.3.5.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의 상관관계 ····· 88

Ⅳ.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의 실제 ····· 90
1. 연어의 교수·학습 목표 ····· 90
1.1. 연어 교육의 목표와 어휘 교육의 목표 ····· 91
1.2. 연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 94
2. 연어 교수·학습 내용 ····· 97
2.1. 연어의 의식 고양 ····· 97

2.2.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 98
2.3.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 ····· 99
3. 연어 교수·학습 방법 ····· 102
3.1. 초급 학습자 ····· 104
3.2. 중·고급 학습자 ····· 107
4.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연어 교수·학습 모형 ····· 113
4.1. 연어 학습을 도입한 한국어 교수·학습 모형 ····· 114
4.2. 연어 교수·학습 모형 ····· 117
4.3. 연어 교수·학습 모형의 효과 검증 ····· 123
4.3.1. 실험 참여자 선정 및 실험 설계 ····· 124
4.3.2. 실험 절차 ····· 126
4.3.3. 실험 결과 ····· 127

Ⅴ. 결론 ····· 130

* 참고문헌 ····· 132
* 부록 ····· 137
* Abstract ····· 189

표 차례

[표1] (문금현, 2002:220)의 연어의 범위 ····· 19
[표2] (村木, 2007:13)의 연어의 범위 ····· 20
[표3] 조사 대상의 정보(도카이대학교) ····· 28
[표4] 조사 대상의 정보(시즈오카대학교) ····· 29
[표5] (임근석, 2010:139)의 어휘적 연어의 하위 유형 분류 ····· 44
[표6] (강현화, 1998:199-200)의 '체언+용언'형 연어를 분류 ····· 45
[표7] (유은성, 2009:328-333)의 한·일 연어 유형 분류 ····· 45
[표8] (김선효, 2010:32-33)의 한·일 연어 유형 분류 ····· 46
[표9] 한·일 연어 유형 분류 ····· 48
[표10] 한국어 연어대표 목록 예시 ····· 51
[표11] 학생 구분에 따른 조사 참여자 수 ····· 53
[표12] 한국어능력시험의 급수에 따른 조사 참여자 수 ····· 53
[표13]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 수 ····· 54
[표14]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 수 ····· 54
[표15]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 수 ····· 55
[표16] (황해익, 2003: 261)의 상관계수와 상관관계 정도 ····· 59
[표17] 연어 어휘 시험 전체 결과 ····· 60
[표18] 연어 맞추기 시험 전체 결과 ····· 73
[표19]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 ····· 82
[표20]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 ····· 82
[표21]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 ····· 83
[표22]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 ····· 83
[표23]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관계 ····· 84
[표24]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관계 ····· 84
[표25] 고급 집단의 체류 기간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 85
[표26]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의 상관관계 ····· 85
[표27]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의 상관관계 ····· 86

[표28] 고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어휘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 86
[표29] 고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 86
[표30] 중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어휘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 87
[표31] 중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 87
[표32]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사전 찾기의 상관관계 ····· 88
[표33] 고급 집단의 사전 찾기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 88
[표34] 고급 집단의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상관관계 ····· 89
[표35] 중급 집단의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상관관계 ····· 89
[표36] (I. S. P. Nation, 1990:31)의 단어에 관한 지식 ····· 93
[표37]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 96
[표38]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 교수·학습 내용 ····· 96
[표39] 실험 참여자의 정보 ····· 126
[표40] 사전 시험 결과 ····· 127
[표41] 사후 시험 전체 결과 ····· 128
[표42] 사후 시험 부분 결과(동일한 것) ····· 129
[표43] 사후 시험 부분 결과(동일하지 않은 것) ····· 129
[표44]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점수 간의 증가율(동일한 것) ····· 129

그림 차례

[그림1]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인식 및 사용 모형 ····· 3
[그림2] 종이 사전적 어휘부 ····· 25
[그림3] 연결주의 관점에서의 어휘부 ····· 26
[그림4] 한국어 하습에서 가장 어려운 것 ····· 32
[그림5]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 32
[그림6] 한국어 어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 33
[그림7] 한국어 학습 목적 ····· 33
[그림8] 한국어 목표 수준 ····· 34
[그림9] 한국어 어휘 학습 내용 ····· 34
[그림10] 한국어 어휘 학습 방법 ····· 35
[그림11] 연어로 학습하기 효과적인 것 ····· 36
[그림12] 대표 연어 목록 선정 방법 및 절차 ····· 39
[그림13] (H. Gyllstad, 2009:157)의 COLLEX 시험 문항 예시 ····· 56
[그림14] (H. Gyllstad, 2009:157)의 COLLOMATCH 시험 문항 예시 ····· 56
[그림15] 연어 어휘 시험 문항 예시 ····· 58
[그림16] 연어 맞추기 시험 문항 예시 ····· 58
[그림17] 연어 어휘 시험 전체 결과 ····· 61
[그림18]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 ····· 61
[그림19] 연어 어휘 시험 문항 2 ····· 62
[그림20] 연어 어휘 시험 문항 3 ····· 62
[그림21] 연어 어휘 시험 문항 4 ····· 63
[그림22] 연어 어휘 시험 문항 5 ····· 63
[그림23] 연어 어휘 시험 문항 6 ····· 64
[그림24] 연어 어휘 시험 문항 7 ····· 64
[그림25] 연어 어휘 시험 문항 8 ····· 65
[그림26] 연어 어휘 시험 문항 9 ····· 65
[그림27]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0 ····· 66

[그림28]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1 ····· 67
[그림29]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2 ····· 67
[그림30]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3 ····· 68
[그림31]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4 ····· 68
[그림32]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5 ····· 69
[그림33]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6 ····· 69
[그림34]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7 ····· 70
[그림35]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8 ····· 70
[그림36]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9 ····· 71
[그림37] 연어 어휘 시험 문항 20 ····· 71
[그림38] 연어 맞추기 시험 전체 결과 ····· 73
[그림39] 고급 집단의 연어 맞추기 시험 개별 문항 결과 ····· 74
[그림40] 중급 집단의 연어 맞추기 시험 개별 문항 결과 ····· 75
[그림41] (J. Hill, 2000:59-63)의 연어 교수 절차 ····· 98
[그림42] 연어의 양적 능력 모델 1 ····· 99
[그림43] 연어의 양적 능력 모델 2 ····· 100
[그림44] 연어의 질적 능력 모델 1 ····· 101
[그림45] 연어의 질적 능력 모델 2 ····· 101
[그림46] 일본인 초급 학습자의 연어 교수·학습 모형 ····· 119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외국어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한편 언어를 학습하는 입장인 학습자 쪽에서의 어휘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1] 이와 같은 어휘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 하에서 특히 단어와 단어의 공기관계에 관한 지식 즉, 연어에 초점을 두는 어휘 교육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폴리와 사이더(Pawley and Syder, 1983)는 유창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은 연어 지식에 기인한다고 하여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연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연어가 단어의 적절한 사용에 필요함을 넘어서 의사소통 능력과 직결되는 하나의 큰 요소임을 주장하였는데 외국인 학습자 특히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 연어를 학습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신자영(2005)에서는 계통적으로 매우 인접한 언어 사이에도 서로 다른 연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연어를 이루는 동사에 그 경향이 보다 강하게 보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인 학습자처럼 한국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 체계를 가지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도 연어 사용에서 특히 동사의 사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2] 다음은 고석주 외(2004), 한송화·강현화(2004), 이승연·최은지(2007), 유은성(2007)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적 오류 18개 중에서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1)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모르지만 불안이 되며… (→불안해지며)
(유은성, 2007:325)

(2) 그 여자도 갑자기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서 열심히

1) 조현용(2000)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절반 이상이 발음, 문법, 어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의사소통 시 어려움의 원인으로서 어휘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밝혔다.

2) 고석주 외(2004)에서도 연어 오류의 특성으로 명사에 따라 쓰이는 동사가 제약될 때 이 동사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다른 동사를 쓰게 된다고 주장하며 연어적 오류가 주로 동사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공부를 시작했다. (→생겨서)

(이승연·최은지, 2007:314)

(3) 비싸서 사지 못하면 친구와 같이 시간을 걸어서 나무로 별장을 짓고 싶습니다. (→들여서)

(고석주 외, 2004:212)

(1)은 일본어의 '不安になる'에 대응하는 '불안이 되다'를, (2)는 일본어의 '気持ちが表われる'에 대응하는 '마음이 나타나다'를, (3)은 일본어의 '時間がかかる'에 대응하는 '시간이 걸리다'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긴 것들이다. 앞에서 제시한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적 오류는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여 발생한다는 데에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어적 오류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어적 오류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본인 학습자가 빈번히 저지르는 연어적 오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 간에 어떤 유사점,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어 연구가 연어 사용의 정확성의 문제를 그 연구의 중심으로 두었던 반면, 이승연·최은지(2007)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연어 사용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연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밝혀 외국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의 다양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3] 즉, 한국어와 언어 체계가 매우 유사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인 학습자는 모국어의 연어에서 추측하여 한국어 연어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일본어 연어로부터 추측하기 어려운 연어나 한국어에서만 사용하는 연어를 추측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어	차가 멈추다	차가 서다
⇓	⇓	⇓
일본어로 존재 여부	존재함	존재하지 않음

3) 한송화·강현화(2004)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연어 사용의 다양성에 관하여 기존의 연어 영역보다 좀 더 확장된 연어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여 명사 '시험'을 예를 들어, '보다', '합격하다', '떨어지다', '붙다', '치다', '치르다' 뿐만 아니라 '있다', '(안)나오다', '망치다' 등도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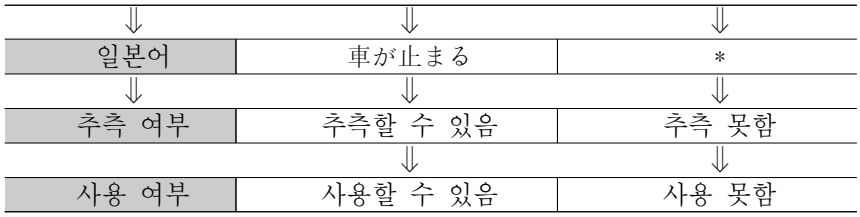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인식 및 사용 모형

위의 표와 같이 일본인 학습자는 일본어로 '車が止まる'를 연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차가 멈추다'를 추측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반면 일본어로는 '車が立つ'라는 연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차가 서다'를 연어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는 일본인 학습자에게는 원어민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언어 경험이 부족하여 수천 개 내지 수만 개를 넘는 방대한 양의 한국어 연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연어는 많지만 한국어에서만 사용되는 연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습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만 사용되는 연어 학습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존의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 간의 유사점, 차이점에 의거한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연어의 교수·학습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한국어 연어 연구가 연어 교육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어 왔지만 일본인 학습자인 경우 언어적 유사성 때문에 연어적 오류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 많으므로 연어적 오류를 막기 위해서도 초급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하다.[4] 또한 일본인 학습자의 그 대부분이 일본의 대학교에서 초급 수준으로 학습하는 대학생임을 고려하면 그 실정에 맞는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따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동사 용법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고석주 외(2004)에서는 언어권별 연어적 오류의 빈도를 보면 일본어권 학습자는 중국어권이나 러시아어권 학습자보다 연어적 오류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어 대조 분석에 의거한 한국어 연어 대표 목록을 설정한다.

연구문제 2.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하여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고안한다.

연구문제 3.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연어에 관한 연구를 크게 한국어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어 연어와 외국어 연어의 대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에 관한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국어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어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 목적에 따라 다시 국어학적 연구와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어학적 연구에서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희자(1994), 강현화(1998), 김진해(2000), 임홍빈(2002), 임근석(2002, 2006, 2010), 임유종(2005)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관용구와 일반구와 같은 연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것들과 연어를 분명히 구별하여 연어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희자(1994)에서는 현대 국어 관용구를 그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결합 관계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그들의 특성과 하위분류 등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용구를 내적구조의 특성,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상 관련성의 긴밀도, 어휘화의 정도에 따라 어휘화가 이루어진 정도가 가장 높고 긴밀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고 내적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 것을 '숙어'라고 하며 그 이외의 것을 '연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연어는 다시 연어가 생겨난 요인에 따라 '형태적

연어', '통사적 연어', '의미적 연어'로 나누었다.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관용구와 일반구와 대등 관계에 놓이는 연어를 관용구의 하위범주로 삼으려고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형태적 연어', '통사적 연어', '의미적 연어'의 설정 기준이나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강현화(1998)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연어 중에서도 '체언+용언'형 연어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해당 체언이나 용언의 의미적 전이성 여부 및 제약성 여부에 따라 연어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재분류하였다. 이 논문은 연어의 범위에 관한 초기의 논의이며 연어의 범위를 그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어보다 관용구적 특성을 지니는 숙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어의 하위 범주로 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진해(2000)에서는 기존의 연어 개념 및 범주 연구와 달리 연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다시 광의의 연어와 협의의 연어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어의 일반적 특성으로 '선택의 당일 방향성, 심리적 현저성, 특정 의미 관련성, 구조 변형의 의미 의존성, 경계의 모호성, 특정 언어집단 의존성'을 제시하고 연어의 유형을 어휘적 연어와 형태·통사적 연어로 구분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어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최초에 본격적인 연구로 이후의 한국어 연어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어 범주 선정의 타당성 문제, 연어 유형 분류에서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에 관한 문제, 연어의 일방향성 문제들이 남아 있다.

임홍빈(2002)에서는 연어의 개념을 연어의 통사적·의미적 성격으로부터 밝히려고 시도하여 대규모 말뭉치를 통계 처리하여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단순한 공기 관계를 이루는 연어를 연어로 보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간의 자유결합이라고 하여 모든 가능한 요소가 완전히 자유롭게 어떤 구성을 이룬다는 인식을 바꾸어, 자유결합을 통사적 결합으로, 연어를 어휘적 결합으로 보는 것으로 자유결합과 연어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임근석(2002)에서는 김진해(2000)에서 제기된 연어의 일반적 특성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연어의 개념 및 범주를 재고하여 연어의 개념 및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공기성, 분포의 제약, 의미의 투명성을 연어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기존의 연어 연구와 달리 구성요소를 연어로 규정하는 데에 통계적 수단을 활용하여 연어의 기준을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통계적 처리에 의하여 추출한 어휘적 연어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다.

임유종(2005)에서는 연어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다시 고찰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연어의 개념에는 어휘 차원의 제한된 결합을 중시하는 언어학적 개념 정의와 빈도나 공기 확률을 중시하는 통계 기반의 개념 정의 두 가지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선행 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연어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연어의 범주 한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분명한 경계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논의로는 문금현(2002), 한송화·강현화(2004), 이승연·최은지(2007)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연어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 국어학적 연구와 달리 국어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연어의 개념을 기본으로 삼아, 한국어 교육에서 자유결합을 연어의 개념으로 포함시킬지 판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문금현(2002)에서는 의미의 구조, 의미의 투명성, 비유성, 분석 가능성, 구성요소의 대치, 통사적 제약과 같은 국어학적 관점에서 연어의 범위를 설정하면서도 관용구, 일반구절, 그리고 상용구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연어의 개념 및 범위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용표현과 연어의 경우에는 생성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이 필요한 반면 연어와 일반구절의 경계에 관해서는 목록 선정에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연어의 개념 및 범위를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최초에 논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명확한 연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송화·강현화(2004)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의 연어 개념 및 범주에 속하는 연어뿐만 아니라 대규모 말뭉치를 통계 처리하여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단순한 공기 관계를 이루는 연어까지 폭 넓게 연어로 보고 있다. 이 논문은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 즉 연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 내거나 스스로 텍스트에서 유용한 연어라고 선택한 것들도 연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어학에서의 연어의 개념보다 다소 넓은 의미로 연어의 개념을 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연어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이승연·최은지(2007)에서는 기존의 국어학에서의 연어의 개념 및 범주를 고려하면서 한송화·강현화(2004)의 논의를 받아들여 연어의 개념 및 범위를 넓게 설정하

였다. 이 논문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내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업무, 학문 수행 등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알아야할 어휘적 결합 관계까지를 연어로 포함시켜 국어학에서의 연어의 개념보다 다소 넓은 의미로 연어의 개념을 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연어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2.2. 한국어 연어와 외국어 연어의 대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어 연어와 외국어 연어의 대조 분석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 연어와 일본어 연어를 대조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양경모(1995), 신자영(2005), 유은성(2007), 이치노미야 나오(2009), 한영균(2009), 김선효(2010), 야마시타 아이(2011), 심은경(2012) 등이 있다.

양경모(1995)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작성 명사와 기능 동사의 결합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은 동작성 명사와 기능 동사가 결합할 때, 한국어의 '하다'는 일본어의 'する'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의 '받다'와 일본어의 'うける'도 대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조분석 대상이 된 기능 동사가 '가다', '나다', '받다'의 세 가지에만 한정되어 있다.

신자영(2005)에서는 한국어와 여러 서양 언어들의 연어를 중심으로 다중 대조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은 의미가 반투명하거나 혹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연어 변인 동사가 언어마다 제도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계통적으로 근접한 언어 사이에서도 연어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외국어 학습에서의 연어 대조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조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대조분석에 사용된, 한국어 연어에 해당하는 외국어 연어를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마련하였는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대조 분석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한국어 연어를 기준으로 삼아 한국어 연어가 외국어의 관용구, 연어, 일반구, 하나의 어휘 요소 등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조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 한국어 연어와 외국어 연어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기술이 없다.

유은성(2007)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교육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명사+동사'형 연어 중에서도 기능 동사 결합에 속하는 연어를 중심으로 대조 분석하여 각 동사의 대응 관계, 대응 패턴에 의거하여 아홉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기능 동사 결합 관계에 있어 한국어에서 보다 생산적인 기능 동사, 일본어에서 보다 생산적인 기능 동사를 각각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로 동사를 기준으로 대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연어를 이루는 또 다른 한쪽인 명사에 관한 논의가 없다.

한영균(2009)에서는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하여 추출한 한·일 기본 어휘의 연어 구성을 형태·통사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어 대조 분석과 달리 코퍼스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어 학습 대상이 되는 연어 구성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수집하였고 일본어와 대규모로 대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일 연어 구성을 대조 분석하였다기보다는 한·일 연어 구성 대조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데에 비중을 많이 할애하였고, 한·일 연어 구성의 대조 분석을 전적으로 코퍼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대조 분석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이치노미야 나오(2009)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어를 대조 분석하여 그 대응 관계에 따라 대응하는 것, 한국어에서는 연어인데 일본어에서는 단일 동사인 것, 대응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처음으로 연어를 다룬 학위논문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어를 자세하게 유형화하지 못하였고 '나다', '내다', '나오다', '들다', '생기다'를 구성요소의 일부로 지닌 연어만 대조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선효(2010)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어를 어휘, 의미, 통사 구조에 근거하여 연어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인 학습자가 의역 구조인 연어를 학습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통사 구조가 다르거나 고유 의미를 지닌 연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으며, 초·중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조 분석에 의거한 한국어 연어의 일본어 대역이 일본어의 실제적인 언어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분류되었다.

야마시타 아이(2011)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국어 연어 목록을 참고로 하여 이들에 나오는 연어 중에서도 고급 학습자가 학습하기 적절한 연어만 선택하여 한국어

와 일본어의 연어를 대응 관계에 따라 일치, 일부 일치, 불일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은 이치노미야 나오(2009)보다 넓은 범앞에서 연어를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명사가 다른 것과 동사가 다른 것을 일부일치로 묶어 분류하여, 실제 의사소통 시에 사용되지 않는 연어를 대조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심은경(2012)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국어 연어 목록을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를 크게 직역 구조 연어와 의역 구조 연어로 나누어 대조 오류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인 학습자가 직역 구조 연어보다 의역 구조 연어에서 더욱 빈번하게 오류를 빈번히 범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연어를 이루는 명사보다 동사에 많이 나타남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의 대조 오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어의 수가 적어 많은 대조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2.3.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어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문금현(2002), 임병준(2003), 한송화·강현화(2004), 김원경(2010), 나카가와 아키오(2010), 야마시타 아이(2011) 등이 있다.

문금현(2002)에서는 초·중·고급 학습 단계별로 학습 내용의 지침이 되는 연어 목록을 선정하고 학습 방법을 마련하였다. 초급 단계에서는 그림 카드를 활용하는 등 연어의 의미 파악에 주력하는 활동, 중급 단계에서는 구성요소의 짝짓기 등의 연어 인식에 주력하는 활동, 고급 단계에서는 같은 연어장에 속하는 연어를 묶는 등 연어 지식의 확장에 주력하는 활동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연어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 및 고급 학습자를 위한 연어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어 학습 모형의 틀을 잘 보여준 반면 그 단계마다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임병준(2003)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거의 모든 교재에서 연어를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고, 행여 연어를 다루고 있는 교

재가 있어서 살펴보면 수록되어 있는 연어가 실제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주관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문제점을 밝혔다. 그리고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연어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여 연어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어 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송화·강현화(2004)에서는 연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연어 사전이나 공개된 말뭉치가 연어 교육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연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학습자가 스스로 연어를 찾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제시한 어휘가 어떠한 어휘들과 연어 관계를 이루는지 학습자 스스로 사전을 이용하여 찾아보게 하는 연어 사전을 이용한 연어 모으기 활동, 인터넷 검색, 읽기 텍스트 등을 이용하여 그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고 이의 연어 관계를 정리해 보게 하는 활동 등 주로 자율적인 연어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연어 교수·학습의 전반적인 논의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어 교육 방안에 학습자 수준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김원경(2010)에서는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말하거나 쓰기 영역의 주제가 되는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맥락을 강조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창하게 연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활동, 실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연어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연어를 확실하게 인지하여 연어를 익힐 수 있는 활동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맥락을 통한 연어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어 학습 활동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다.

나카가와 아키오(2010)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언+용언'형을 이루는 연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어를 단순히 대조하는 방법만을 취하지 않고 일본인 학습자가 원래 갖춘 한자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자로부터 한국어 연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 연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어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자어에 한해서 유용하다는 한계가 있다.

야마시타 아이(2011)에서는 크게 이해 단계와 정착 단계 두 가지로 나누어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해 단계에서는 한국어의 다의적인 동사를 이해시키고 이들과 결합 가능한 명사를 제시한 다음에 읽기 자료, 문장을 통하여 연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보여주는 연어 입력 활동을 제시하였고, 정착 단계에서는 연어를 사용하여 문장 또는 이야기 등을 만드는 연어 출력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 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학위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이해 측면에서는 충분한 교육 방안을 보여준 반면 표현 측면에서는 충분한 방안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연어 교육이라기보다 쓰기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연어에 관한 연구를 크게 한국어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어와 외국어 연어의 대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에 관한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어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어학에서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용구와 일반구 그리고 연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시도가 보였다. 반면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관용구와 연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일반구와 연어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구분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어와 외국어 연어의 대조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대조 분석 대상이 된 연어가 실제 의사소통 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많고, 상대적으로 그 절대 수가 적거나 유형 분류가 단순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연스러운 연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여 맥락을 통한 부수적인 연어 교육 방안이 많았다. 또한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반면 연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먼저 연구 대상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대체적으로 연어를 관용구, 일반구와 구분하지만 외국인 학습자가 연어로 학습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연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구자

마다 연구 대상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아직까지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서 관용구로 간주되는 것들을 제외한 연어 및 일반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모국어 화자에게는 당연한 결합인 것 같이 생각되는 일반구라도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 결합 방식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구도 일반적인 연어와 같이 명시적인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어는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어휘적 연어는 의사소통 시에 출현도, 사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연어로 외국어 교육 관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간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휘적 연어 중에서도 특히 '체언+용언'형 연어나 '명사+동사'형 연어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사+동사'형 연어 중에서도 출현도, 사용도가 보다 높은 '명사+이/가+동사' 형 연어와 '명사+을/를+동사' 형 연어 즉, 주술 연어와 목술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제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어를 별도로 선정한다. 기존 논의들에서 실제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어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그것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들이었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목표어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실제 연구 대상으로 연어를 선정할 때는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출현도, 사용도가 높은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생생활에서 출현도, 사용도가 높은 연어라는 것은 한국어 학습 사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명사 496개 및 동사 245개를 일차적으로 선정하여, 한국어 연어 사전을 통해 그것들이 이루는 연어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2,482개의 연어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법 및 시험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기준으로 하여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제외한 일본인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이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대학원생, 대학생, 교환학생 총 42명이다. 조사 도구로는 연어 학습 태도에 관한 설문지,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을 마련하였다. 연어 어휘 시험은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

한 개와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 두 개를 제시하여 이 세 개 중에서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을 선택하는 시험이고,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어 맞추기 시험은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과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을 섞어서 제시하여 그것이 연어 관계를 이루는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시험이고, 이는 연어 사용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어 어휘 시험 및 연어 맞추기 시험에서 문항으로 사용한 연어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어 중에서 추출한 것이며, 연어 어휘 시험은 20문항, 연어 맞추기 시험은 30문항을 마련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 상관 분석 그리고 t-검정이다. 빈도 분석은 실험 참여자 의 각 시험의 득점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상관 분석은 각 시험의 결과와 시험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 조사의 문항들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t-검정은 위의 상관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월 중순에 소규모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를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월말부터 3월 중순에 걸쳐 연구자가 각 조사 참여자를 직접 만나 설문지 및 시험지를 배포하여, 조사하는 동안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후 점검 인터뷰(Follow-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Ⅱ. 한국어 연어 교육의 이론적 기반

이 장에서는 연어 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연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에서 연어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연어와 관련된 제 이론을 고찰하고 실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연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 연어 목록을 설정하여 이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류한다.

1. 연어의 개념 및 범주

이 절에서는 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기존의 연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본어학 및 일본어 교육학에서의 연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논의도 참고로 하여, 언어학이 아닌 언어 교육 나아가 한국어 교육에서의 가장 적절한 연어의 개념 및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1.1. 연어의 정의

퍼스(J. R. Firth, 1957)에서 처음으로 연어라는 개념이 도입된 후에 많은 학자들이 연어의 정의를 논의하였다.[5] 국내에서도 김진해(2000)를 비롯하여 국어학에서 많은 학자가 연어를 정의하였고, 학자 및 연구 목적에 따라 연어의 정의는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단어와 단어의 긴밀한 결합, 긴밀한 공기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6]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에서도 이러한 국어학의 논의를 받아들여 한국어 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어의 개념은 동일하다. 문금

5) 슈미트(N. Schmitt, 2000)에서는 퍼스(J. R. Firth, 1957)가 처음으로 연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인정하면서 싱클레어(J. Sinclair, 1991)에서 본격적으로 연어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임근석(2010)에서는 연구 관점에 따라 연어의 정의를 의미적 정의, 어휘적 정의, 통계적 정의, 앞의 세 가지 정의를 합친 종합적 정의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현(2002)에서는 연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연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도가 높고 심리적 현저성이 높다.
>
> (문금현, 2002:220 밑줄 인용자)

그러나 한국어의 대규모 말뭉치 구축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어의 개념을 확장하여 한국어 학습에서 연어로 교육하는 것에 적절한 것을 모두 연어로 교육하고자 하는, 외국어 학습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나타났다. 한송화·강현화(2004)에서는 루이스(Michael Lewis)의 논의[7]를 받아들여 연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혹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많은 어휘들의 결합"으로서 말뭉치 상에서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 내거나 스스로 텍스트에서 유용한 연어라고 선택하는 것들도 그 대상이 된다.
>
> (한송화·강현화, 2004:299-300)

위의 연어 개념에서는 통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구성요소는 모두 연어라고 간주하며 또한 교사가 연어로 교육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 한 것을 모두 연어로 간주하고 있다. 이승연·최은지(2007)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한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내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업무, 학문의 수행 등에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어휘적 결합 관계를 연어로 포함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연어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

7) 루이스(Michael Lewis)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기술하고 분류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방법론자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교사들이 그들의 학생에게 어휘부 안에 어떤 질서와 구성을 보여주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범주를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한송화·강현화, 2004:299 재인용)

> 특정 맥락에서 하나의 어휘적 요소가 이어지는 어휘를 선택하는 관계이며, 두 어휘가 통사적 · 의미적 결합 관계이면서 어휘적 선택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연어라고 한다.
>
> (이승연·최은지, 2007:303 밑줄 인용자)

위의 연어 개념의 특징은 구성요소를 어휘적 요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어에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가 존재할 때 그 대상을 어휘적 연어에 한정한 것이다. 한송화·강현화(2004)와 비교하면, 기존의 국어학에서의 연어의 개념보다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연어의 개념을 넓혔다는 데에서는 맥을 같이 하나 의사소통에 보다 직결되는 요소인 어휘적 연어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하여 임홍빈(2002)에서는 대규모 말뭉치를 통계 처리하여 자동적으로 추출한, 단순한 공기 관계를 이루는 연어를 연어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어학에서는 순수한 언어학으로서의 엄격한 연어의 개념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응용언어학으로서의 느슨한 연어의 개념을 선택하고 있다.[8)]

다음으로 한국어와 언어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일본어학에서 연어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일본어 교육학에서의 연어의 개념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연어에 대한 최초에 언급을 “신영화활용대사전(新英和活用大事典)”(1958)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전에는 연어를 '단어가 다른 단어와 관습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표현 단위를 이루는 모습을 널리 채집하여 이를 문법적으로 배열한 것'[9)]이라고 규정하며 국어학의 연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관습적인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연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라키(村木, 2007)에 의하면 이 사전은 표현 사전으로서의 실용성에 그 특징이 있어 여기서 규정한 연어는 각각 단어의 결합 가능성을 문제로 삼는 어휘적 연어를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어 개념의 규정 배경에는 일본어 연어 연구에 강한 영향을 미

8) 신자영(2005)에서는 연어의 개념에 대해서 언어학적 관점과 자연언어 처리 관점의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언어학 관점에서는 어휘간의 어휘적 선택제약으로 제한된 관계에 의한 구성만을 연어로 보는 반면에 자연언어 처리 관점에서는 결합빈도를 중시하여 공기 확률이 높은 구성을 연어로 본다고 한다. 최근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후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연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9) 이는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語が他の語と慣習的に結合して一つの表現単位をなす姿を広く採集し、これを文法的に配列したもの”

친 러시아 언어학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19세기 초에 러시아 언어학자인 폴트나토프(Filipas Fortunatovas)가 연어를 '하나의 자립어가 다른 자립어와 결합하는 것으로 형성되는 의미적으로 덩어리가 된 전체'라고 규정하였는데, 일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자립적인 단어와 단어의 결합', 즉 어휘적 연어를 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국어학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따라 연어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10] 미요시(三好, 2007)에서는 연어에 의한 어휘 지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데에 이러한 일본어학의 논의를 받아들여 어휘적 연어를 연어의 개념으로 삼고 있다.

연어의 개념에 대하여 국어학과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연어의 개념을 '관습적인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라는 데에서는 동일하지만 '자립적인 단어와 단어의 결합' 즉 어휘적 연어를 주로 연어의 개념으로 보는지에 관하여 국어학과 일본어학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 관점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일본어 교육에서도 대체적으로 어휘적 연어를 연어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보였다. 이는 외국어 교육 관점에서 어휘적 연어가 의사소통 시에 출현도, 사용도가 높아 실용적이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법적 연어는 연어로 교육할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문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다.[11] 즉, 문법적 연어는 연어로 교육하거나 문법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문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연어의 개념을 넓게 잡아 외국인 학습자에게 반드시 연어로 교육해야 하는 어휘적 연어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연어의 개념을 '자립적인 단어와 단어의 관습적인 결합'으로 규정한다.

---

10) 노다(野田, 2007)에서는 어휘적 연어를 의미적 연어라고 표현하며 의미적 연어의 하위범주에 사회적 연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는 의미적 연어처럼 한 단어가 다른 단어 또는 성분의 의미적 범주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현실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경향'에 불과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탔다'와 '버스를 탔다'는 출현 빈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동차를 사다'와 '버스를 사다'는 출현 빈도에 큰 차이가 나며 이는 '버스를 사는 일은 적다'와 같은 현실을 반영했을 뿐인 연어라고 한다.

11) -ㄴ 바람에, -기 때문에 등이 문법적 연어에 해단한다.

1.2. 연어의 범위

연어의 범위를 논의할 때 많은 연구자가 관용구와 연어 그리고 일반구의 차이에서 연어의 범위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국어학에서는 문금현(2002)이 대표적인데 관용구, 일반구절, 그리고 상용구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의미의 구조, 의미의 투명성, 비유성, 분석 가능성, 구성요소의 대치, 통사적 제약과 같은 관점에서 다음 표와 같이 연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관용구절	상용구절	연어	일반구절
의미의 구조	A+B=C	Aa+B=AaB, A+Bb=ABb	A+B=AB	A+B=AB
의미의 투명성 (유추 가능성)	불투명	반투명	투명	투명
비유성 여부	유	유무	무	무
분석 가능성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구성 요소의 대치	제약	반제약	반제약	자유 대치
통사적 제약	강	약	무	무

표 1: (문금현, 2002:220)의 연어의 범위

위의 표와 같이 문금현(2002)에서는 관용구절, 사용구절, 일반구 그리고 연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덧붙여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관용구절, 상용구절, 일반구 그리고 연어의 개념을 굳이 정확하게 세분할 필요가 없고 관용표현과 연어의 경우에는 생성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연어와 일반구의 구별은 한국어 교육학 관점에서는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임을 의미한다.[12)]

한편 일본어학에서는 연어의 개념[13)]에 대해 국어학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견해를 보였지만 연어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어학에서보다 연어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무라키(村木, 2007)에서는 관용구, 연어, 일반구의 차이를 고정성, 관용구성

12) 문금현(2002)에서는 연어와 일반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는 사용 빈도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제한 여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13) 한국어로 된 일본어학에서의 연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논의는 임팔용(1985)이 있다.

의 관점에서 다음 표와 같이 연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고정성	관용구성	예[14]
A: 관용구	+	+	배짱이 맞다 시치미를 떼다
B: 연어(선택제약)	+	-	개가 짖다 입을 다물다
C: 연어	-	+	납득이 가다 이해가 가다
D: 자유로운 연어 (일반구)	-	-	꽃이 피다 빵을 먹다 공원에 가다

표 2: (村木, 2007:13)의 연어의 범위

무라키(村木, 2007)에서는 문금현(2002)과 달리 일반구도 연어의 일종이라고 보고 연어 중에서도 고정성과 관용구성을 모두 갖춘 것을 전형적 관용구, 고정성과 관용구성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것을 일반구가 아닌 자유로운 연어, 고정성과 관용구성을 반씩 갖춘 것을 관용구와 자유로운 연어의 중간적인 성질을 띠는, 즉 일반적인 연어로 설정하고 있다.[15]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보다 넓게 연어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일본어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일본어학의 영향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여, 한다(阪田, 1990)에서는 연어의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어 교육에서 연어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주장하였다.

또한 아키모토(秋元, 1993)에서는 일본어 교육에서의 연어 범위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연어라고 불리는 것들뿐만 아니라 모국어 화자에게는 당연한 결합인 것 같이 생각되는 자유 결합(여기서 말하는 일반구 혹은 자유로운 연어)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유 결합이라고 해서 그 결합 방식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

14) 제시된 예시는 연구자가 일본어 원문을 충실히 한국어로 번역하였지만 번역이 어려운 것은 편의상 유사한 것으로 바꾸었다.

15) 야마다(2007)에서는 관용구, 연어, 일반구를 모두 '연어'라고 하여 결합 강도와 의미의 관습화에 따라 이들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인을 위한 연어 사전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 사전에서는 연어의 정의를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생긴 말'이라고 하여 일반구를 제외하고 관용구까지를 연어의 범위에 넣고 있다.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 결합도 일반적인 연어와 같이 의식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자유결합은 그 결합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의미 이해에 어려움이 없어 학습자가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요시(三好, 2007)에서는 연어에 의한 어휘 지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데에 연어의 범위에 자유 결합까지도 포함시켰다.

국어학과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연어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국어학에 비하여 일본어학에서는 연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한국어 교육학과 일본어 교육학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며 특히 일본어 교육학에서 일반구까지 연어의 범위에 분명히 포함시키는 반면에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반구를 연어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어라고 불리는 것은 물론 여기서 연어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문제가 되는 일반구도 연어의 범위에 넣고 있다. 언어 교육의 주체가 학습자라면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연어와 함께 일반구까지 연어의 범위에 접어 넣는다.

2. 연어 교육의 중요성

연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러 활발해진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먼저 연어와 관련된 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에 일본에서의 연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연어 교육의 이론

2.1.1. 개방 선택 원리와 관용 표현 원리

슈미트(N. Schmitt, 2000)에 의하면 퍼스(J. R. Firth, 1957)에서 처음으로 연

어에 대한 언급을 하였지만 연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싱클레어(J. Sinclair, 1991)에서 본격적인 연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싱클레어는 언어의 존재 방식을 개방 선택 원리(the open choice principle)와 관용 표현 원리(the idiom principle)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연어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개방 선택 원리란 언어 텍스트를 단어가 들어가는 틀의 연속체라고 볼 때 그 틀에 들어가는 어휘에 제약을 주는 것은 오로지 문법뿐이며 그 틀은 폭 넓은 다양한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원리이다. 이는 언어 텍스트를 복잡하고 반복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관용 표현 원리란 언어 텍스트를 단어가 들어가는 틀의 연속체라고 볼 때 그 틀에는 아무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법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가 서로 공기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언어 텍스트를 한정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에 의하면 언어 사용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반쯤 만들어진 방대한 성구(成句)를 이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관용 표현 원리의 특성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a. 성구는 불확정한 범위를 가진다.
b. 성구는 어휘의 내부적 변화를 허용한다.
c. 성구는 어휘의 통사적 변화를 허용한다.
d. 성구는 다양한 어순을 허용한다.
e. 단어나 성구는 강한 공기관계에 의하여 다른 단어를 가까이 오게 한다.
f. 단어나 성구는 어떤 문법적 선택을 공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g. 단어나 성구는 어떤 의미론적 환경을 공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J. Sinclair, 1991:111-112)

a~d의 논의는 성구에 한하여 말할 수 있지만 e~g의 논의는 어휘적 규칙인 연어의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e의 논의는 연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어휘적 연어의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키(신장)라는 단어는 '높다, 많다, 비싸다, 길다'와 같은 단어가 아닌 '크다'만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f의 논의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법적

요소까지도 선택한다는 특징, 즉 문법적 연어를 기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때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앞의 오는 용언이 '-기'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g의 논의는 어떤 단어는 그 단어의 앞이나 뒤에 의미적으로 한정한 단어만을 선택함을 기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버티다'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딜 때만 주로 사용되므로 '버티다'를 사용하면 '참다'와 달리 앞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뜻하는 선행구절이 오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는 관용 표현 원리에 의거하여 존재하며 이에 따라 문법적 규칙뿐만 아니라 어휘적 규칙을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2. 어휘 중심 접근법의 원리

루이스(M. Lewis)는 어휘 중심 접근법의 제창자로, 그는 어휘 중심 접근법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리의 핵심은 어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즉, 어휘 중심 접근법(the principle of lexical approach)의 기본 원리는 언어 학습이나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것은 문법, 의사소통 기능, 개념 혹은 교수의 어떤 단위가 아니라 어휘, 즉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라는 것이다.(J. C. Richards & T. S. Rodgers, 2008:202 재인용) 루이스(M. Lewis, 1993)에서는 언어는 어휘화된 문법 아닌 문법화된 어휘로 구성된다고 하여 언어에서의 어휘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특히 많은 언어가 다중 단어인 '어휘 결합체'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 교수의 중심 요소는 학습자에게 '어휘 결합체'를 인식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힐(J. Hill, 2000)에서는 루이스와 같이 어휘 중심 접근법의 맥락에서 언어 학습에서의 연어의 중요성을 아홉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휘는 임의적이지 않다.
둘째, 유추(력)
셋째, 머릿속에 사전에 저장된 성구의 양
넷째, 기억의 역할
다섯째, 유창성
여섯째, 복잡한 개념은 자주 어휘적으로 표현된다.

일곱째, 연어는 사고를 쉽게 만든다.
여덟째, 발음은 일체적이다.
아홉째, 단어와 단어의 결합의 인식은 언어 습득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J. Hill, 2000:53-56)

첫째, 연어가 언어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가장 명백한 이유로서 어휘는 임의적이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16] 즉,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어휘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단어끼리 함께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첫째와 관련하여 유추(력)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어휘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단어끼리 함께 사용된다면 연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단어들의 정해진 결합 패턴을 유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머릿속에 사전에 저장된 성구의 양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말들의 70%정도는 이미 머릿속에서 고정표현으로 굳어진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즉, 머릿속에서는 대부분의 어휘들이 낱말이 아닌 구나 문장으로 저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억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규칙성이 없는 숫자의 배열이 아닌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의 하나하나의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의 모든 숫자를 하나로 인식하여 외우기 때문이라고 하며 어휘도 하나하나를 단순히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휘들을 묶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다섯째, 유창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어 화자가 그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보다 말이 술술 나오는 이유는 모어 화자 머릿속에는 압도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말, 즉 연어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어를 학습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빠르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섯째, 복잡한 개념은 어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그만큼 복잡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지만 연어를 학습하면 다소간 길어지더라도 그 개념을 간단한 단어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곱째, 이는 유창성과 관련이 있는데 연어는 사고를 쉽게 만든다고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이에 대하여 실제 말할 때 결코 그것이 새로운 사물이라고 해도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여덟째, 발음은 일체적이

16) 힐(J. Hill, 2000)에서는 싱클레어(J. Sinclair, 1991)의 관용 표현 원리와 동일한 견해를 명시하고 있다.

라고 제시라고 있다. 각각 단어의 발음이나 강세를 외워도 실제 말할 때에는 문장으로 말하기 때문에 발음이나 강세의 위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연어를 학습하면 문장 전체의 발음이나 강세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발음 교육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인식하는 것은 언어 습득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도 역시 유창성과 관련이 있는데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뇌에 적절한 입력을 줄 수 있지만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잘못된 입력을 주면 적절한 출력도 바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연어의 중요성은 연어가 언어의 존재 방식에 근거하여 중요함을 넘어 언어 교육의 다양한 장면에서 연어가 유용함을 확인시켜 준다.

2.1.3. 연결주의와 어휘부 가설

어휘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어휘부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어휘 교육의 하위 범주로 간주되는 연어 교육에서도 역시 어휘부와 관련을 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17] 이 연구에서는 어휘부를 어휘 형성부, 어휘 사전, 어휘 해석부로 나누어 불 때 습득된 어휘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휘 사전을 연결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와 연어의 관계를 통하여 연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결주의(connectionism)란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신경망의 구조를 밝히는 접근 방법의 하나이며 심리학계나 인지 과학계에서 1980년 후반부터 논의되어 왔다.[18] 연결주의의 신경망 모델의 일반적 체계 특성 중 하나가 신경망의 단위들 간에는 연결이 있고 이들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이정모, 1994:69) 즉, 이러한 관점을 머릿속의 사전인 어휘부에 적용시키면 어휘부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고 서로 연결된 단어들이 상호 영향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된다. 바이비(Bybee, 1985,

17) 어휘부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이론이 아닌 가설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현용(2000)에서는 어휘 교육에서 어휘부에 대하여 논의할 이유를 어휘부의 모습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어휘부의 모습 추정을 통하여 어휘 교육의 방법을 찾아보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신연결주의(neoconnectionism) 혹은 병행분산처리(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PDP)라고 불리기도 한다.(이정모, 1994:67)

1988)에서는 이 단어들의 상호 영향 관계를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단어의 사용 빈도에 따라 어휘의 연결 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나은미, 2009:41 재인용) 어휘부가 일반적인 종이 사전처럼 가나다라 순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라면 예를 들어, '결정'과 '내리다'라는 단어는 '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결정'이, '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리다'가 서로 다른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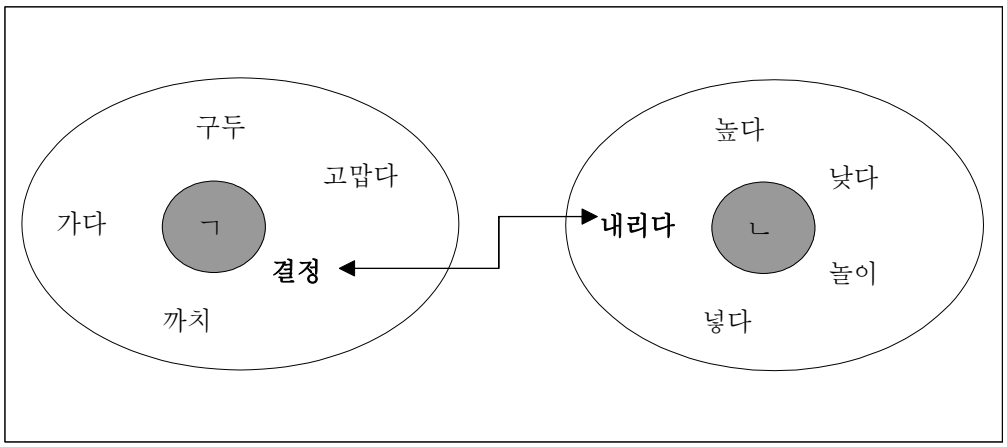


그림 2: 종이 사전적 어휘부

이 때 '결정'과 '내리다'는 서로 연결되지 않고 상호 영향 관계에 있지 않다. 즉, 머릿속에서 '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결정'과 '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리다'를 끌어낸 후에 '결정'과 '내리다'를 연결시켜야 한다.

한편 연결주의 관점에서의 어휘부는 각각 단어가 일반적인 종이 사전처럼 가나다라 순서로 다른 영역에 저장되지 않고 그 영역을 넘어 어떤 단어와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가 그 주변에 저장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주변에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결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내리다', '하다', '짓다', '보다'와 같은 단어들이 '결정'과 같은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내리다', '하다', '짓다', '보다'와 같은 단어들의 주변에는 그들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다. 연결주의 관점에서의 어휘부는 이러한 단어와 단어의 연결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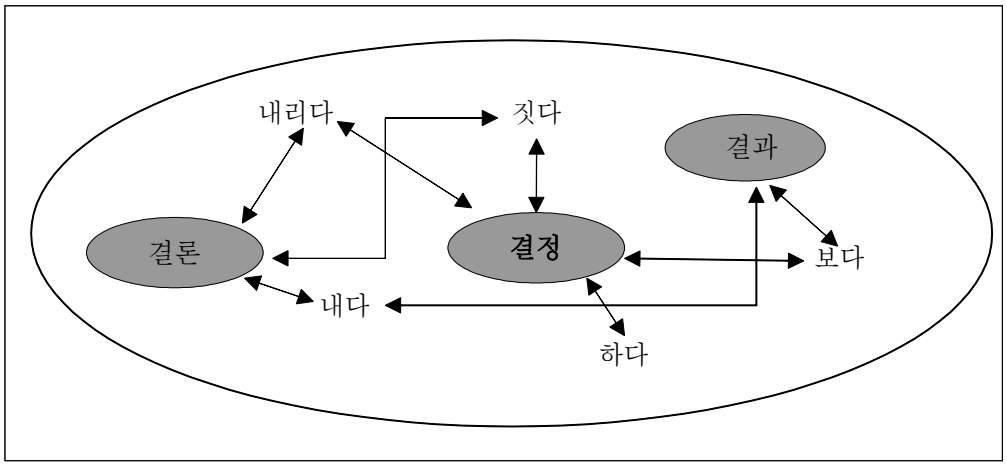


그림 3: 연결주의 관점에서의 어휘부

이 때 '결정'과 '내리다'는 서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즉, 머릿속에서 '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결정'과 '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리다'를 끌어낸 후에 '결정'과 '내리다'를 연결시킬 필요 없이 '결정'과 '내리다'를 한 번에 끌어낼 수 있다. 인간의 머릿속 사전인 어휘부가 위의 그림과 같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그 가능성은 충분함을 알 수 있다.[19]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국어로 영위하는 언어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단어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지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경우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습관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처럼 한국인 모어 화자와 같은 단어 연결망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올바른 연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어를 출력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명시적인 연어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어휘부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가지는 어휘부와 유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19) 애치슨(Aitchison, 1987)에서는 영어 모어 화자들은 호두를 까고 싶을 때 'Please hand me the tinopener.(나에게 깡통따개를 달라.)'와 같은 실수를 하는데 이는 '호두를 까는 도구(nutcracker)'와 '깡통따개(tinopener)'의 두 어휘가 무언가를 따는 '도구'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켄트와 로자노프(Kent and Rosanoff, 1910)에서는 10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험 결과 사람들은 제시어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응답어로 연상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Miller, 1991)(나은미, 2009:39 재인용)

2.2. 일본에서의 연어 교육 현황

일본에서의 연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큰 요소인 교재, 학생, 교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이 비교적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대학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두 개의 대학교에서 개설된 네 번의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중급 단계[20]에 속하는 일본인 학습자 51명, 그리고 한국어 교사 3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에서의 연어 교육의 현황의 개요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 기간은 2012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이며 설문 조사 방식으로 연구자가 직접 모든 강의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교사에게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대학교명	1. 도카이대학교 (東海大学)	
강의명	1. 코리아어 초급Ⅰ (コリア語　初級Ⅰ)	2. 코리아어 초급Ⅱ (コリア語　初級Ⅱ)
사용 교재	“문형으로 배우는 한국어 기초편”, NiDA커뮤니케이션 (『文型で学ぶ韓国語　基礎編』, NiDA コミュニケーション)	
교사	한국인	
교사경력	7년	
학생 수	14명	5명
학습 기간	0~6개월	6~9개월

표 3: 조사 대상의 정보(도카이대학교)

20)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 1,2급을 초급으로, 3,4급을 중급으로, 5,6급을 고급으로 삼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초·중급 단계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 즉,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학습기간에 따라 정해진 수준이다. 시즈오카대학교에서는 보통 중급으로 올라가려면 1년 이상 학습해야 한다.

대학교명	2. 시즈오카대학교 (静岡大学)	
강의명	3. 현대 한국어 초급Ⅱ (現代韓国語 初級Ⅱ)	4. 현대 한국어 중급Ⅰ (現代韓国語 中級Ⅰ)
사용 교재	“한국어를 배우자 초급 문법과 표현, 문형과 활용연습”, 아사히출판사 (『韓国語を学ぼう 初級 文法と表現、文型と活用練習』, 朝日出版社)	
교사	일본인	한국인
교사경력	20년	10년
학생 수	24명	8명
학습 기간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표 4: 조사 대상의 정보(시즈오카대학교)

2.2.1. 교재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

교재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카이대학교와 시즈오카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개의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공통적으로 교재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형을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문형이란 언어 요소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결합되는지를 형식화하고 규칙화하여 분류한 문장의 유형을 가리킨다. 즉, 연어가 관습적인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라고 할 때 문형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그 때문에 넓은 의미로 두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곳곳에서 연어를 찾을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도카이대학교의 교재에서 연어가 제시되고 있는 한 부분이다.

【表現】

① 우유를 마십니다.
② 일찍 일어나다.
③ 한국어를 배웁니다.
④ 아주 멉니다.
⑤ 밥을 먹습니까?
⑥ 언제 잡니까?
⑦ 뭐 합니까?
⑧ 학교는 가깝습니까?

(“문형으로 배우는 한국어 기초편”, NiDA커뮤니케이션, p. 20)

이는 '-ㅂ니다/-습니다' 형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표현의 예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①,③,⑤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명사+동사'형 연어이며 ②,④는 '부사+동사'형 연어이다. 이렇게 한 단원의 도입 부분에서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초급 학습자용 교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어를 제시하는 방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를 다른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연어와 비교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練習】

1) 가족이 있다.	_____	家族がいます。
2) 제가 알다.	_____	私が分かります。
3) 학교가 가깝다.	_____	学校が近いです。
4) 교실이 넓다.	_____	教室が広いです。
5) 수업이 끝나다.	_____	授業が終わります。
6) 친구를 만나다.	_____	友達に会います。
7) 이름을 모르다.	_____	名前を知りません。
8) 도서관에 가다.	_____	図書館に行きます。
9) 내일은 일찍 자다.	_____	明日は早く寝ます。
10) 방에 들어가다.	_____	部屋へ入ります。

("문형으로 배우는 한국어 기초편", NiDA커뮤니케이션, p. 29)

이는 '-아요/어요/해요'형을 학습하는 단원의 연습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연어이다. 두 개의 연어 제시 방법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실용적이지 않은 연어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다'가 사용되는 연어를 제시한다면 '제가 알다.'와 같은 연어보다 '이름을 알다.'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로 사용할 연어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반의적, 유의적 연어가 다른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입 단계에서 '일찍 일어나다.'를 제시한다면 연습 단계에서 '일찍 자다.'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한자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가 많다는 점이다. 일본인 학습자가 한자어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물', '꽃', '비', '바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은 거의 고유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고유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에도 비중을 두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시즈오카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도카이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문제점을 몇 가지 해결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보기】 전화, 하다

→ 무엇을 합니까? - 전화를 합니다.

1) 책, 읽다 → 本、読む

2) 밥, 먹 → ご飯、食べる

3) 커피, 마시다 → コーヒー、飲む

4) 영화, 보다 → 映画、見る

5) 한국어, 배우다 → 韓国語、学ぶ

("한국어를 배우자 초급 문법과 표현, 문형과 활용연습", 아사히출판사, p. 79)

이는 '-ㅂ니까/-ㅂ니다' 형을 학습하는 단원의 연습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연어인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가 골고루 제시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기】 빵, 먹다, 밥

→ 무엇을 합니까? - 전화를 합니다. 電話、する

(4) 치마, 입다, 바지 → スカート、履く、ズボン

("한국어를 배우자 초급 문법과 표현, 문형과 활용연습", 아사히출판사, p. 80)

이는 '-ㅂ니까/-ㅂ니다' 형을 학습하는 단원의 연습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연어인데 결정적인 문제점은 '치마를 입다', '바지를 입다' 와 같은 연어만을 제시하며 '입다'의 일본어 해석으로 '履く'로 제시되고 있는 데에 있다. 일본어에선 상반신에 입는 옷을 한국어의 '입다'에 해당하는 '着る'를 사용하고 하반신에 입는 옷은 한국어는 '입다'에 해당하지만 일본어는 '履く'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에

서는 상반신과 바지까지만 '입다'를 사용하고 '양말', '구두'에는 일본어의 '履く'에 해당하는 '신다'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기술이 없이 연어를 제시하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학습자의 학습 태도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

일본인 학습자의 학습 태도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태도를 살펴본 후에 연어 교육에 대한 학습 태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주로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무엇이 어려운지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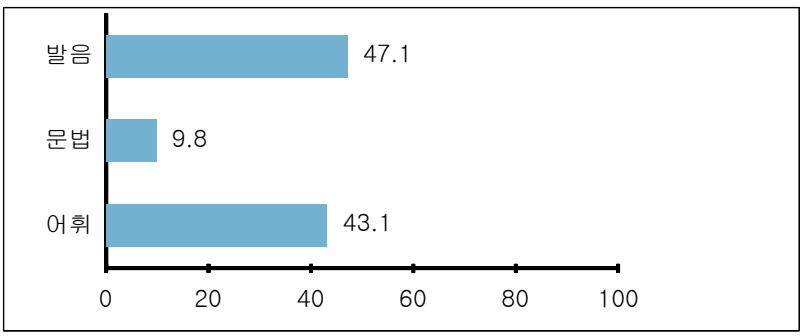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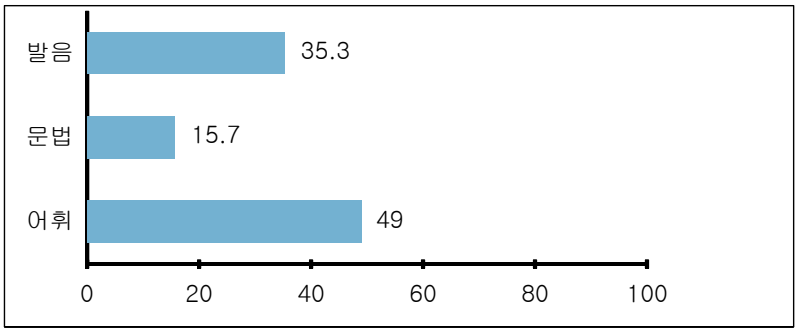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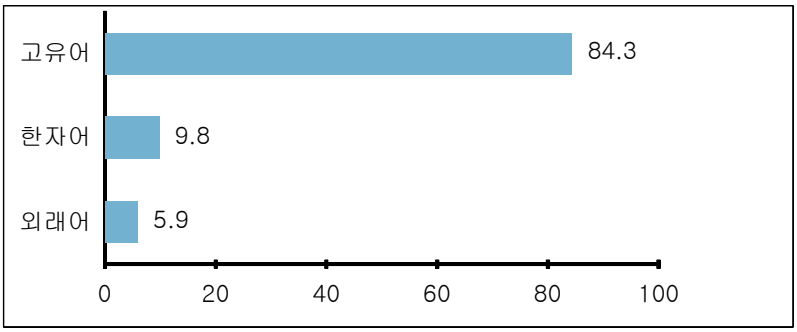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어 어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일본인 초급 학습자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43.1%의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서 발음 다음에 어휘가 어렵다고 답하였고, 49%의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서 발음, 문법, 어휘의 세 가지 중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21] 또한 어휘 중에서는 84.3%의 학습자가 고유어가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에서 어휘 중에서도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학습 목적 및 목표 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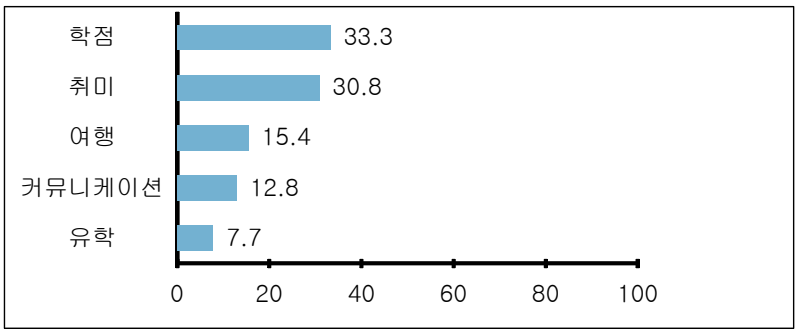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어 학습 목적

21) 김미옥(2003)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의 어휘 오류율은 전체 오류 중 차지하는 비율이 30%정도이며 이는 오류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어권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휘라고 하였다. 특히, 일본어권 학습자 중에서도 2급에서 어휘 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로부터 한국어 학습 초기에서의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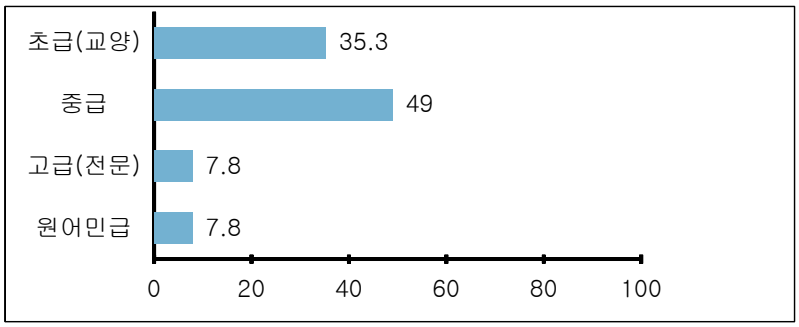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어 목표 수준

지속적인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어 취미나 여행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많은 한편 한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은 전체의 12.8%, 한국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은 전체의 7.7%로 나타나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절반 이상인 64.6%가 중급 수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결과에서 초급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중심이면서, 학습자가 중·고급 학습 단계로 나아갈 것을 내다보고 수업에 도입할 학습 내용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학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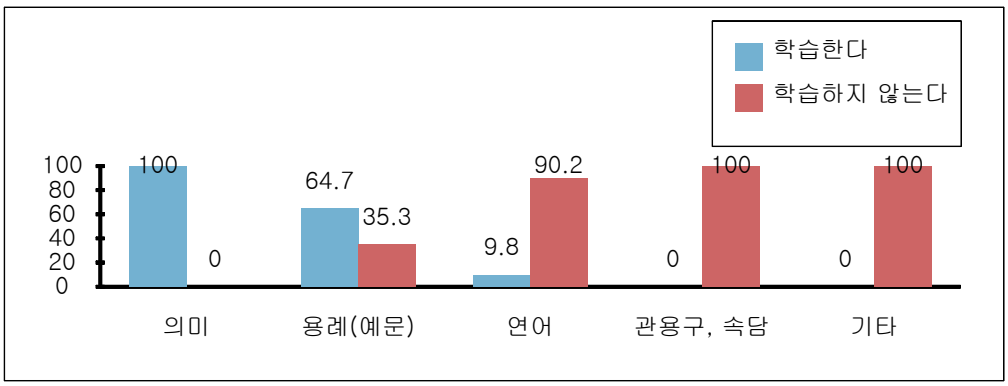


그림 9: 한국어 어휘 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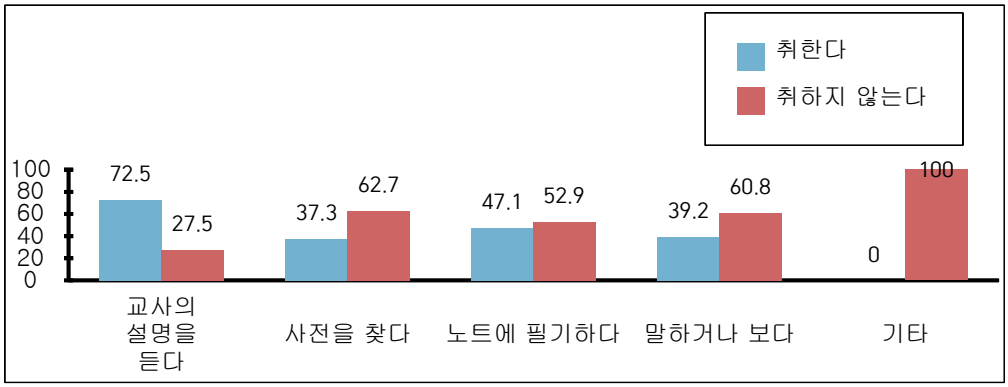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어 어휘 학습 방법

한국어 어휘를 학습하는 데 그 단어의 '의미'만 학습하는 학습자가 35.3%였으며, 64.7%의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할 때 그 어휘의 '의미'와 '용례'까지를 학습하였다. 어휘를 학습할 때 어떤 명사와 같이 어울리는 동사를 학습하다 등 '연어' 까지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9.8%에 불과하였다. 즉, 이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연어를 모르거나 연어 학습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서 연어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의식적인 연어 학습을 위한 내용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어 어휘를 학습하는 데 '사전을 찾다', '노트에 필기하다', '말하거나 보다'와 같은 능동적인 학습 방법을 취하는 학습자는 50%를 넘지 않았고, '교사의 설명을 듣다'와 같은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 전적으로 기대는 학습자가 72.5%였다. '교사의 설명을 듣다'를 유일한 한국어 어휘 학습 방법으로 취하는 학습자에게는 교사가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귀중한 정보가 된다. 즉,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은 교사의 실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결과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주는 입력이 중요함을 확인한 한편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만 기대지 않도록 능동적인 학습 방법을 도입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일본인 학습자가 연어 학습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연어를 학습한다고 가정하여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일본어의 '명사+동사'형 연어의 다섯 가지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연어로 학습하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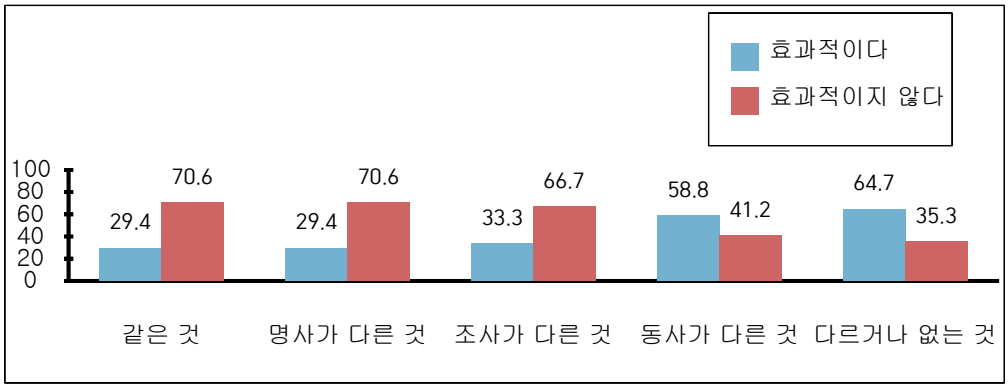


그림 11: 연어로 학습하기 효과적인 것

1) 일본어와 같은 것, 2) 일본어와 명사가 다른 것, 3) 일본어와 조사가 다른 것에 있어서는 겨우 30%정도였지만 이에 비하여 4) 일본어와 동사가 다른 것, 5) 일본어와 아예 다르거나 일본어에 없는 것은 50% 이상으로, 일본인 학습자들은 연어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명사나 조사보다 동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서 연어 학습을 도입할 경우,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2.2.3. 교사의 교수 태도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

교사의 교수 태도에 나타난 연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에게도 일본인 학습자에게 실시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였다. 먼저 마찬가지로 한국어 어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사의 3명 중 2명이 일본인 학습자에게는 어휘가 아닌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3명 모두가 어휘 중에서는 한자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체적으로 문법이 한국어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모국어인 일본어를 통해 한자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일본인 학습자에게는 한자어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유리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앞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에서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고유어를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 한국어 교육의 방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교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사 3명 모두가 어휘를 교수할 때 주로 교재에 나오는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어휘의 의미와 용례만을 제시하고, 따로 교재 이외의 어휘나 연어에 대한 교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어로 학습하기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사 3명이 모두 연어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3) 일본어와 조사가 다른 것이며 5) 일본어와 아예 다르거나 없는 것은 2명, 4) 일본어와 동사가 다른 것은 1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명사나 조사보다 동사를 어려워하는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한국어 교육의 방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교재, 학습자, 교사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재에는 대체적으로 연어에 관한 기술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교재에 그런 기술이 없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에 관한 학습 내용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학습자는 고유어에 어려움을 겪는데 교사는 한자어 위주로 교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어 학습은 한자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고유어에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자는 의사소통에서 연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고양하는 교수·학습 내용을 연어 학습의 일부분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데 지침이 될 것이다.

3. 연어 대표 목록 선정 및 연어 유형 분류

이 절에서는 출현도, 사용도가 높고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에 있는 연어를 추출하고 초급 학습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본인 학습자가 연어 학습의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연어 대표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대표 연어 목록을 제시하는 방법을 연어 유형 분류를 통해 모색한다.

3.1. 대표 연어 목록 선정

3.1.1. 기존의 연어 목록 검토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개를 이루는 한국어 연어 중에서도 출현도, 사용도가 높으면서도 실용적인 것들을 교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몇 차례 연어 목록을 선정하려는 시도가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금현(2002)인데 후속 연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22] 이 목록은 한국어 교재에 실린 연어 목록, 문어 텍스트, 구어 텍스트에 자주 출현하는 목록을 조사한 다음 이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목록을 연어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한국어 연어 대표 목록을 선정하였다.[23] 이에 김선효(2010)에서는 문금현(2002)의 연어 목록 중에는 '밤을 새다'의 잘못된 표현인 '잠을 새우다'가 목록에 들어가 있거나 '모를 내다', '메주를 쑤다' 등과 같은 표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금현(2002)의 연어 목록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연어 목록을 선정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여러 대학교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연어의 빈도에 따라 나열한 목록이 그 대부분이다.[24] 그러나 여러 대학교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만을 가지고 연어 목록을 설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교재라는 점에서 연어를 제시하는 수에 한계가 있고 학문 목적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는 연어가 제시되고 있기도 한다. 최근 들어, 기본 어휘로 편찬된 한국어 학습 사전(2006), 국어 말뭉치에 바탕을 둔 한국어 연어 사전(2007) 등의 발간되어, 실용적인 자료에 근거한 연어 목록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어 목록 보다 기본적이면서 실용적인 연어 목록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

22) 김선효(2010), 심은경(2012) 등이 있다.

23) 연어 목록 선정 자료에는 한국어 1-4권(서울대학교), 출발! 한국어 중급 · 고급 교재(선문대학교), 한국어 1-6권(연세대학교)을 중심으로 추가로 드라마 대본, 토크쇼, 일상 대화와 같은 구어 자료를 활용하였다.

24) 김지은(2010), 허영임(2010) 등이 있다.

3.1.2. 연어 목록 선정 방법 및 절차

연어 대표 목록 선정 방법 및 선정 절차의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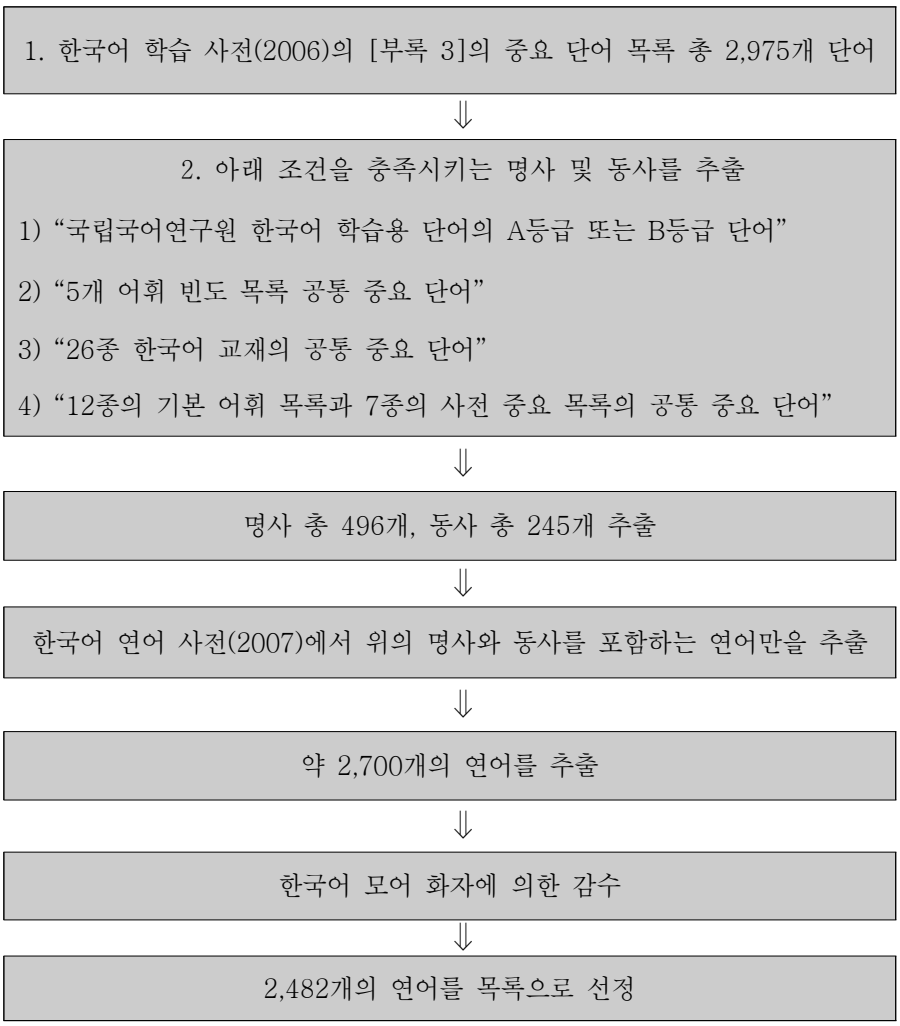


그림 12: 대표 연어 목록 선정 방법 및 절차

먼저 한국어 학습 사전(2006)의 [부록 3]의 중요 단어 목록 총 2,975개 단어 중에서 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학습용 단어의 A등급 또는 B등급 단어’, 2. ‘5개 어휘 빈도 목록 공통 중요 단어’, 3. ‘26종 한국어 교재의 공통 중요 단어’, 4. ‘12종의 기본 어휘 목록과 7종의 사전 중요 목록의 공통 중요 단어’를 모두 충족시키

는 명사와 동사를 각각 추출하였다. 그 결과 이 조건에 맞는 명사가 총 496개, 동사가 총 245개 추출되었다. 추출된 명사와 동사는 다음과 같다.

【명사】 총 496개

가게, 가구(家具), 가슴, 가운데, 가을, 가정(家庭), 가족, 감정, 값, 강(江), 강아지, 개, 개인, 거리, 걱정, 건강, 건물, 겁, 겨울, 결과, 결정, 결혼, 경기, 경우, 경제, 경찰, 경치, 계절, 계획, 고개, 고기, 고등학교, 고생, 고양이, 고장(故障), 고향, 곰, 공(球), 공기(空氣), 공부, 공원, 공장, 공책, 과거, 과일, 과자, 과학, 관계, 관심, 광고, 교과서, 교수, 교실, 교육, 교통, 구경, 구두, 구름, 국, 국가(國家), 국민, 국제, 군대, 귀, 규칙, 그릇, 그림, 극장, 근처, 글, 글씨, 글자, 금(金), 기계, 기름, 기본, 기분, 기사(記事), 기술, 기온, 기차, 기회, 길, 길이, 김치, 까닭, 꽃, 꿈, 끝, 나라, 나머지, 나무, 나이, 나중, 날, 날씨, 날짜, 남자, 남편, 내용, 내일, 냄새, 노래, 노력(努力), 노인, 놀이, 누나, 눈(目), 눈(雪), 눈물, 뉴스, 능력, 다리(足), 다리(橋),다음, 단어, 단체, 달, 닭, 담배, 대답, 대부분, 대신, 대통령, 대표, 대학, 대학생, 대화, 댁, 도둑, 도서관, 도시, 독서, 돈, 돌, 동네, 동물, 동생, 동안, 돼지, 뒤, 등(背), 딸, 땀, 땅, 때, 떡, 뜻, 라디오, 마을, 마음, 마지막, 마찬가지, 말(言), 말씀, 맛, 맥주, 머리, 멋, 며칠, 명절, 모습, 모양, 모자, 목, 목소리, 목적, 몸, 무릎, 무역, 문(門), 문장, 문제, 물, 물건, 물론, 미국, 민족, 밑, 바다, 바닷가, 바람, 바지, 밖, 반(班), 반(半), 반대, 발, 발음, 발전, 밤(夜), 밥, 방, 방법, 방송, 방학, 방향, 밭, 배(腹), 배(船), 배(梨), 버릇, 버스, 번호, 법, 변화, 별, 병(病), 병원, 보통, 봄, 부모, 부분, 부엌, 부인(夫人), 부자, 부탁, 불, 비, 비밀, 비용, 비행기, 빛, 빨래, 빵, 사과(謝過), 사과(沙果), 사람, 사랑, 사실, 사업, 사이, 사장, 사전(事典), 사진, 사회, 산, 삼촌, 상(賞), 새, 새벽, 색, 색깔, 생각, 생일, 생활, 서류, 서양, 선물, 선배, 선생, 선수(選手), 설명, 성격, 성적, 세계, 세상, 소(牛), 소금, 소녀, 소년, 소리, 소설, 소식, 속, 손, 손님, 수업, 숙제, 순간, 술, 숨, 숲, 시(市), 시계, 시골, 시내, 시장(市場), 시험, 식구, 식당, 식사, 신(靴), 신문, 신발, 신부(新婦), 싸움, 쌀, 쓰레기, 아가씨, 아기, 아내, 아들, 아래, 아버지, 아빠, 아이, 아저씨, 아주머니, 아침, 아파트, 안, 안경, 앞, 애(子), 야구, 약, 약속, 양(量), 어깨, 어른, 어린이, 어머니, 어제, 언니, 얼굴, 엄마, 여름, 여성, 여자, 여행, 역, 역사, 연구, 연기(煙氣), 연습, 연필, 열(熱), 영화, 옆, 예술, 옛날, 오늘, 오른쪽, 오빠, 오전, 오후, 옷, 외국, 왼쪽, 욕심, 우산, 우유, 운동, 위(上), 위치, 은행(銀行), 음식, 음악, 의견, 의미, 의사(醫), 의자, 이(齒), 이름, 이번, 이사(移徙), 이상(以上), 이

야기, 이웃, 이유, 이해, 이후, 인간, 인구, 인기, 인사, 인생, 일, 일기(日記), 일기(日氣), 일본, 일요일, 임금, 입, 자동차, 자리, 자식, 자신, 자연, 자전거, 작년, 잔, 잔치, 잘못, 잠, 잡지, 장(場), 장소, 재료, 재미, 재산, 저녁, 전, 전국, 전기(電氣), 전쟁, 전체, 전통, 전화, 절(節), 점(点), 점심, 정, 정도, 정리, 정신, 정치, 조사, 조상, 종류, 종이, 주위, 주인, 준비, 줄, 중간, 중국, 중심, 쥐, 지구, 지금, 지도(地圖), 지방(地方), 지붕, 지역, 직업, 직장, 질문, 짐, 집, 차(車), 차(茶), 차례, 차이, 창문, 책, 책상, 책임, 처음, 철, 청소, 최고, 추위, 축구, 춤, 취미, 층, 치마, 친구, 친척, 커피, 컴퓨터, 코, 키(身長), 택시, 텔레비전, 토끼, 토요일, 통일, 특징, 편지, 표(票), 표정, 풀(草), 피, 필요, 하늘, 하루, 학교, 학년, 학생,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해, 햇빛, 행동, 허리, 현재, 형, 형제, 호랑이, 호텔, 혼자, 화, 환경, 환자, 활동, 회사, 효과, 후, 흙, 희망, 힘

【동사】 총 245개[25]

가다, 가르치다, 가리다(시야를), 가리키다, 가져오다, 가지다, 갈다(문지르다), 감다(눈을), 갖다, 걱정하다, 건너다, 걷다(느릿느릿), 걸다(옷을), 견디다, 결혼하다, 계속하다, 계시다, 고르다, 고치다, 구하다, 굽다(익히다),그리다(그림을), 그만두다, 그치다, 기다리다, 기르다, 깎다, 깨다(술, 그릇), 꺼내다, 꾸미다, 끄다(불을), 끊다, 끌다, 끓이다, 끝나다, 끝내다, 끼다(끼우다), 나가다, 나누나, 나다, 나오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남기다, 남다, 낫다(병이), 낳다, 내다, 내려가다, 내려오다, 내리다, 넘다, 넣다, 놀다, 놀라다, 놓다, 누르다(힘을 가하다), 눕다, 느끼다, 늘다, 늙다, 다녀오다, 다니다, 다치다, 닦다, 닫다, 달다(단추를), 달리다(말을), 닮다, 담다, 대하다, 던지다, 덮다, 데리다, 도착하다, 돌다 ,돌리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돕다, 되다(어른이), 드리다(인사를), 듣다(소리를), 들다(꽃을), 들다(여관에), 들르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따다, 따르다(뒤를), 떠나다, 떨다, 떨어지다, 뛰다, 뜨다(솟아오르다), 마르다, 마시다, 마치다, 막다, 막히다, 만나다, 만들다, 말다(그만두다), 말하다, 맞다(옷, 답이), 맞추다, 맡기다, 맡다(담임을), 매다(끈을), 먹다(밥을), 멈추다, 모르다, 모시다, 모으다, 모이다, 모자라다, 못하다, 묻다(길을), 미치다(닿다), 믿다, 바꾸다, 바라다, 바라보다, 받다(선물을), 밝히다, 배우다, 버리다, 벌다(돈을), 벗다, 변하다, 보내다, 보다, 부르다(이름을), 부탁하다, 불다(바람이), 붓다(물을), 붙다, 붙이다, 빌다(소원을), 빌리다, 빠지다(물에, 머리가), 빼다(가시를), 사다, 사라지다, 사랑하다, 살

25) 연어 교육의 특성상, 동사의 경우는 여기서 제시한 기본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이외에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걷다'는 여기서는 '(느릿느릿) 걷다'의 의미로 제시되어 있지만 '(옷을) 걷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킴을 의미한다.

다, 살리다, 생각나다, 생각하다, 기다, 서다, 서두르다, 세우다, 쉬다(편안히), 시작하다, 시키다, 신다, 싫어하다, 심다, 싸다(보자기에), 싸우다, 쌓다, 쌓이다, 쓰다(돈을), 씻다, 앉다, 알다, 알리다, 앓다, 어울리다, 얻다, 열다(문을), 열리다(문이), 오다, 오르다, 옮기다, 울다(울음을), 움직이다, 웃다, 위하다, 이기다(적을), 이루다, 이르다(도착하다), 익다(감이), 일어나다, 일으키다, 일하다, 읽다, 잃다, 입다(옷을), 잇다, 잊다, 잊어버리다, 자다, 자라다(커지다), 자르다, 잘하다, 잡다, 잡히다, 적다(답을), 전하다, 정하다, 조심하다, 좋아하다, 주다, 죽다, 죽이다, 줄이다, 즐기다, 지나가다, 지나다, 지내다, 지다(해가), 지르다(소리를), 지키다, 짓다, 찌다(살이), 찍다(사진을), 차다(날씨가), 차리다, 참다, 찾다, 쳐다보다, 추다(춤을), 취하다, 치다(얼굴을), 겨다(성냥을), 키우다, 타다(버스를), 태어나다, 통하다, 틀리다(답이), 팔다, 팔리다, 펴다, 풀다, 피다(꽃이), 피우다, 하다, 향하다, 헤어지다, 흐르다, 흔들다 ,흘리다

다음으로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수록된 연어 중에서 앞에서 추출한 명사와 동사를 포함하는 연어를 모두 추출하였다.[26] 지금 시점에서 약 2, 700개의 연어를 연어 대표 목록으로 추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수록된 연어는 공기관계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를 우선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약 2, 700개의 연어 중에 어색하거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27]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 의한 감수를 실시하였다. 먼저 일차적으로 추출한 약 2,700개의 연어를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 2명에게 어색하거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연어가 있는지 확인을 의뢰하였다.[28] 그리고 각 한국어 모어 화자가 어색하거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연어라고 판단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 한국어 모어 화자 2명과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여, 3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에 한하여 연어 대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총 2,482개의 연어를 선정하였다.

---

26) 가족 관계 호칭(아빠, 엄마 등), 국가명(미국, 일본 등), 언어명(영어, 일본어)은 상위 개념인 가족, 국가, 언어에 포함시키므로 제외시켰음을 명시한다.

27) 예를 들어 어색한 연어는 ‘연필을 잡히다’처럼 문법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교육이 만들다’처럼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연어는 ‘거리가 나다’처럼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8) 이 논문에서 마련할 대표 연어 목록이 교육적으로 유용한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가 흔히 사용하는 연어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닌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의뢰하였다.

3.2. 연어 유형 분류

3.2.1. 기존의 연어 유형 분류 방법 검토

앞에서 연어 대표 목록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 및 학습자가 연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연어 대표 목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어 대표 목록에 수록된 연어를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상의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어 유형 분류 방법을 참고로 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어 대표 목록의 적절한 제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카터(R. Carter, 1987)에서는 어휘적 연어의 유형 분류 방법으로 연어 제한, 통사 구조, 의미 불투명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연어 제한에 따른 분류는 특정 어휘와 결합할 수 있는 어휘 수에 따라 연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그 수에 따라 무제한 연어, 반제한 연어, 친숙 연어, 제한 연어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제한 연어는 특정 어휘가 광범위한 어휘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연어를 의미하며, 반제한 연어는 무제한 연어보다 대치될 수 있는 어휘 수가 정해진 연어이며 친숙 연어는 서로 규칙적으로 결합하는 어휘들의 중간에 해당하는 연어이며 제한 연어는 그보다 고착되고 폐쇄적인 연어를 가리킨다. 둘째, 통사 구조에 따른 연어 유형 분류는 그 통사적 고착성에 따라 신축적인 것, 어떤 제약이 규칙적인 것, 불규칙적인 것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의미 불투명성에 따른 유형 분류는 연어가 각각 어휘가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지 파생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투명한 것, '반'관용구/은유/관용구적 직유, 반투명한 것, 불투명한 것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불투명한 것은 다시 명시적인 것(맥락적/문화적 지식이 없이는 해석 불가능한 것)과 비명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연어 유형 분류 방법은 이러한 애매한 분류 기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차가 크게 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근석(2010)에서는 어휘적 연어 분류 기준으로 첫째, 연어 구성 요소들이 가지는 결합 정도에 따라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 둘째, 의미의 투명도에 따라 연어를 구분하는 방법, 셋째, 구성 요소의 통사 성분에 따라 하위분류하는 방법, 넷째, 구성요소들이 이루는 통사관계를 중시하여 유형 분류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카터(Carter, 1987)의 분류 방법과 동일하지만 넷째, 구성요소들이 이루는 통사관계를 중시하는 유형 분류는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 유형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어휘적 연어	체언적 연어	'명사+ 명사'형 연어
		'명사+ 관형격 조사+ 명사'형 연어
		'관형사+ 명사'형 연어
		'동사/형용사+ 명사'형 연어
	용언적 연어	'명사+ 동사/형용사'형 연어
		'동사/형용사+ 동사/형용사'형 연어
		'부사+ 동사/형용사'형 연어

표 5: (임근석, 2010:139)의 어휘적 연어의 하위 유형 분류

그러나 이 분류 방법은 주술연어, 목술연어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연어 유형 분류 방법으로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연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어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연어의 의미 투명성에 따른 유형 분류 방법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현화(1998)에서는 의미 투명성을 의미 전이성 여부라고 지칭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약성 여부에 따라 특히, '체언+용언'형 연어를 분류한 바 있다. 이 유형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Ⅰ. a+B	① 체언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특정 용언과만 공기하는 구성
	② 체언에 약간의 독립적 쓰임이 있지만 특정 용언과만 공기하는 구성

Ⅱ. a'+B	체언이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Ⅲ. A+b'	용언이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Ⅳ. A+b'	용언이 의미가 약화되어 체언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구성
Ⅴ. A+B	① 의미 원소가 같은 동사류의 선택 제약에 의해 연어를 이루는 구성
	② 독립된 체언이 특정 동사와 많은 빈도로 쓰인 구성
	③ 동족 목적어 구문
Ⅵ. a+b	① 체언과 용언이 모두 제약된 쓰임을 가지는 구성
	② 제약된 체언이 의미가 약화된 용언과 이루는 구성
	③ 체언과 용언의 구 전체가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④ 숙어 구성
Ⅶ. a'+b'	체언과 용언 각각이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표 6: (강현화, 1998:199-200)의 '체언+용언'형 연어 유형 분류

위의 네 가지 연어 유형 분류 방법 이외에도 연어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유형 분류하려는 시도도 몇 차례 있다. 그 중에서 한국어 연어를 일본어 연어와 대조하여 유형 분류한 대표적인 것으로 유은성(2009), 김선효(2010) 등이 있다. 유은성(2009)에서는 '명사+(조사)+동사'형 연어를 중심으로 연어를 이루는 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동사의 대응 관계 및 동사의 대응패턴에 따른 연어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연어 유형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동사의 대응 관계에 의한 분류	동사가 대응되는 경우
	동사가 치환이 가능한 것
	동사가 대응되지 않는 경우
	일본어의 「する(suru)」에 대응하는 경우
	한국어의 「하다」에 대응하는 경우
동사의 대응 패턴에 따른 분류	일본어의 단일 동사에 대응하는 경우

	일본어의 동사 수동형에 대응하는 유형
	한국어의 단일동사에 대응하는 경우
	기타

표 7: (유은성, 2009:328-333)의 한·일 연어 유형 분류

그러나 이 유형 분류 방법은 각 동사가 결합하는 명사에 따라 동사의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대응관계를 일관적으로 규칙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연구자가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도 역시 한·일 연어의 동사 용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분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형 분류하기는 어렵다.

한편 김선효(2010)에서는 한국어 연어와 이에 대응하는 대역 일본어와의 어휘·의미·통사 구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 분류하였다.

가. 1유형	제1항과 제2항의 어휘·의미·통사 구조가 1:1로 대응하는 경우
나. 2유형	제1항의 체언이 다르게 대응되는 경우
다. 3유형	제2항의 용언이 다르게 대응되는 경우
라. 4유형	제1항과 제2항의 어휘·의미가 모두 다르게 대응되는 경우
① 4ㄱ유형	제1항과 제2항의 어휘·의미가 다르게 대응되는 경우
② 4ㄱ유형	용언으로 대역되는 경우
마. 5유형:	한국어 고유의 개념이거나 특별한 지시 대상으로 인하여 일본어의 대역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경우

표 8: (김선효, 2010:32-33)의 한·일 연어 유형 분류

이 연어 유형 분류 방법은 연어가 두 항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주목을 하여 각 구조의 앞 항목을 '제1항', 뒤 항목을 '제2항'이라 임시적으로 명명한 것에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섯 번째 유형으로 한국어 고유의 개념이거나 특별한 지시 대상으로 인하여 일본어의 대역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장을 담그다', '몸살이 나다' 등이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다섯 번

째 유형으로 분류한 이유를 '김장'같은 말은 일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 '몸살'같은 말은 현상과 뜻을 설명해도 일본인들은 대략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의 어휘적 연어 유형 분류 방법을 살펴보았지만 카터(R. Carter, 1987)에서 제시된 연어 제한 및 통사 구조에 따른 유형 분류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의미의 (불)투명성에 따른 유형 분류에 관해서는 연어 분류 방법 중 가장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다. 한국어 연어의 의미 투명성에 따른 연어 유형 분류는 한국어 연어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있으며 언어 교육 현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연어를 한국어 연어의 일본어 대역과의 대조언어학적인 분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유익하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유사한 어휘, 의미, 통사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한국어와 비교하기 쉬운 언어이다. 앞에서 선정한 대표 연어 목록을 실제로 학습 내용 혹은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스스로 연어를 찾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연어 목록 사용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조언어학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한국어 연어를 분류하고자 한다.

앞에서 대조언어학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한국어 연어를 분류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분류하기에 앞서 대조분석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건환(1994)에서는 대조분석의 범위를 문장론적 영역과 의미론적 영역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문장론적 영역에서는 문장 어순과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충어의 수와 종류를 대조 분석하는 것이며 의미론 영역에서는 의미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양 언어의 낱말이나 문장표현을 모아서 그것들이 의미 범위에 따라 대조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한·일 연어의 대조언어학적인 분류 유형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의미론 영역만을 그 범위로 삼아 대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은성(2009), 김선효(2010)처럼 문장론적 영역도 일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의 다양한 차이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분류해야 한국어 연어에 대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보다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은성(2009), 김선효(2010)의 어휘, 의미, 통사적 구조에 따른 한·일 연어 유형 분류를 참고로 삼아 다음과 같이 한·일 연어 유형 분류를 재설정하였다.

	대응 관계	예
1. 제1유형	명사와 동사가 대응	옷을 입다 (服を着る)
2. 제2유형	명사가 다르게 대응	축구를 하다 (サッカーをする)
3. 제3유형-1	동사가 다르게 대응	책을 덮다 (本を閉じる)
4. 제3유형-2	일본어의 "suru"에 대응	냄새가 나다 (においがする)
5. 제3유형-3[29]	한국어의 "하다"에 대응	샤워를 하다 (シャワーを浴びる)
6. 제4유형-1	명사와 동사가 다르게 대응	화를 내다 (腹を立てる)
7. 제4유형-2	일본어 단일 동사에 대응	힘을 내다 (頑張る)
8. 제4유형-3	일본어 동사 수동형에 대응	사랑을 받다 (愛される)
9. 제5유형	일본어에 없거나 일본어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연어	차이를 두다 차가 서다

표 9: 한·일 연어 유형 분류

이 한·일 연어 유형 분류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어의 큰 차이가 나는 동사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지만 이 유형 분류의 특성은 제5유형에 있기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5유형과 같은 유형을 따로 설정한 이유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사용이 일본어 연어 사용에 의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어로부터 한국어 연어를 추측하여 한국어 연어를 생성할 수 있지만 한국어만의 연어 즉, 한국어에서만 허용되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본어에 없는 연어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서만 허용되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차이를 두다'와 같은 것이다.

29) 추후 연어 유형 분류를 실시한 결과,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어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다.

한편 일본어로부터 추축하기가 어려운 연어란 일본인 학습자가 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는 아는데 주변 의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제대로 추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다'는 '앉다'의 반대말로서의 의미를 기본의미로 가지고 있고 주변 의미로 '멈추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모르면 '사람이 서다'와 같은 연어는 쉽게 추축할 수 있지만 '차가 서다'와 같은 연어는 추축하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고유의 개념이거나 특별한 지시 대상으로 인하여 일본어의 대역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연어'를 제5유형 대상으로 삼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문화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일본어의 대역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연어'는 극히 한정적이다.[30] 이 연구에서 재설정한 연어 유형 분류는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로 인하여 틀리기 쉬운 연어와 일본어에 없거나 일본어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연어를 따로 분류한 것으로 연어에 대한 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연어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연어 유형 분류에 따라 한국어 연어를 분류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유형 분류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어 연어의 일본어 대역을 찾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조언어학적인 분류 방법을 취하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연어와 해당 언어의 연어 대역 차이를 찾는 데 각종 사전 활용, 해당 언어 모어 화자의 감수와 같은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사전은 실제 언어 사용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해당 언어 모어 화자 감수도 개인차가 있어 대역의 신빈성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김선효(2010)에서는 '그림을 그리다'를 거기서는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 대역인 '絵を描く'와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1유형: 제1항과 제2항의 어휘·의미·통사 구조가 1:1로 대응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림을 그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을 쓰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거기서 1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학습자에게 한국어로는 '그림을 쓰다'라고 표현

30) '일본어의 대역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연어'는 어색하지 않게 해석 가능한 것도 있다. 앞에서 언급된 '김장을 담그다'를 예로 들자면 '김장'은 일본어에 완전히 대응하는 말은 없지만 일본 사전에서 '월동용 김치'라는 대역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한국 김치와 같이 빨간 김치는 아니지만 백김치에 해당하는 '漬物 (채소 절임: 일본식 김치)'이 존재함으로 '김장을 담그다'를 '월동용 김치를 담그다(越冬用のキムチを漬ける)'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지 않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연어와 일본어 연어 대역의 차이,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데에 현대 “일본어 글말 균형 코퍼스(『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를 활용하였다.[31)]

3.2.2. 연어 유형 분류 결과 및 연어 대표 목록 제시

선정한 연어 대표 목록을 앞에서 설정한 연어 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제1유형에 속하는 연어가 총 1,828개, 제2유형에 속하는 연어가 총 259개, 제3유형에 속하는 연어가 총 103개, 제4유형에 속하는 연어가 총 73개, 제5유형에 속하는 연어가 총 219개이었다.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는 제3유형부터 제5유형까지 총 395개이며 연어 대표 목록 전체의 15.9%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설정한 연어 대표 목록이 출현도, 사용도 높고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에 있는 연어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초급 단계부터 일본인 학습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학습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3유형부터 제5유형까지에 속하는 총 395개의 연어는 일본인 학습자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수·학습해야 한다.

다음 표는 대조언어학적 유형 분류에 따른 연어 대표 목록을 제시한 예이다.[32)] 여기서는 총 383개의 표제어 중에서 1~10까지의 표제어를 제시하였다. 연어 목록의 제시 순서는 표제어 간의 수준 구분이 어려워 가나다라 순서로 하여, 제2유형부터 제5유형에 관해서는 연어 대표 목록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적절한 일본어 대역을 달았다. 또한 표제어가 한자어인 경우 한자를 달았다. 연어 대표 목록의 곳곳에 보이는 빈칸은 그곳에 해당하는 연어가 없음을 의미한다.

---

31) 일본어 글말 균형 코퍼스(『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는 현대 일본어 글말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적, 잡지, 신문, 교과서, 인터넷 댓글 등으로부터 수집된 샘플 약 1억 어절이 수록되어 있다. 만약에 여기에 한국어 연어의 일본어 대역을 치고 검색해도 없을 경우, 일본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연어 대표 목록의 전체적인 개요는 부록(132쪽부터)을 참조.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1. 가게	가 쉬다 를 나서다, 내다, 닫다, 보다, 얻다, 열다, 차리다, 찾다, 하다				
2. 가구 (家具)	를 갖추다, 놓다 모으다, 사다				
3. 가슴	이 나오다, 막히다 을 누르다, 열다, 치다, 펴다		이 뛰다 (弾む)		
4. 가을	이 끝나다, 되다 오다, 지나가다, 지나다 을 기다리다, 알리다				이 가다 (過ぎる) 를 타다 (弱い)
5. 가정 (家庭)	이 건강하다, 되다 를 갖다, 만들다, 버리다, 위하다, 이루다, 지키다				를 꾸미다 (持つ)
6. 감정 (感情)	이 나타나다 을 나누다, 누르다, 느끼다, 다치다, 읽다			을 풀다 (怒りを鎮める)	이 오다 (感じる)
7. 값	이 내리다 떨어지다, 오르다 을 내리다		이 나가다 (高い) 뛰다 (跳ね上がる) 을 부르다 (言う)	을 깎다 (値切る)	을 잡다, (見積もる) 치다 (つける)
8. 강 (江)		강(川)이 흐르다 을 건너다, 끼다, 넘다			
9. 강아지	를 기르다, 낳다, 안다, 키우다				
10. 개	가 미치다 를 기르다, 잡다, 키우다				

표 10: 한국어 연어 대표 목록 예시

Ⅲ. 한국어 연어 사용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연어 교수·학습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설문 조사 및 연어 시험을 실시하여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의 경향과 그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연어 사용과 연어 사용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제 요인들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연어 사용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효과적인 연어 교수·학습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사 방법

설문 조사 및 실험을 위하여 먼저 조사 방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조사 참여자, 조사 도구, 조사 자료 분석, 조사 절차의 네 가지로 나누어 논의한다.

1.1. 조사 참여자 선정 및 정보

Ⅱ장에서 추출 및 선정된 한국어 연어 대표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연어는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난해한 단어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초급 학습자도 조사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조사 참여 대상자로 제외시키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에서는 초급 학습자는 단순히 배우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인지 오류를 범한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이 조사의 목적은 연어 즉, 어휘의 결합 지식을 아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실수와 오류의 구분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초급 학습자를 조사 참여자로 포함한 예비 조사의 결과에서 초급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 이 조사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오류가 아닌 실수를 범한 문항을 제외시킬 수는 있지만 그 수가 많으면 조사 참여자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제외한 중·고급 학습자를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의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3,4급을 소지하는 학습자를, 고급 학습자는 5,6급을 소지하는 학습자를 말한다. 즉, 조사 참여자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학생 구분	빈도	비율	누적 비율
교환학생	13	30.1	30.1
대학생	7	17.5	47.5
대학원생	22	52.4	52.4
계	42	100.0	100.0

표 11: 학생 구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

학생 구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는 교환학생이 13명, 대학생이 7명, 대학원생이 22명이다. 모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교환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대학원생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교환학생은 모두 대학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비율은 1:1이다.

한국어능력시험	빈도	비율	누적 비율
3급	13	31.0	31.0
4급	4	9.5	40.5
5급	4	9.5	50.0
6급	21	50.0	100.0
계	42	100.0	

표 12: 한국어능력시험의 급수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

한국어능력시험 급수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는 6급이 21명, 5급이 4명, 4급이 4명, 3급이 13명이다. 5·6급을 합한 고급 학습자의 수는 총 25명이며 3·4급을 합한 중급 학습자의 수는 총 17명이다. 5·6급인 조사 참여자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생이며 3·4급인 조사 참여자는 교환학생이나 대학생이다. 3·6급 조사 참여자에 비하여 ·4·5급 조사 참여자가 적는 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의 급수 판정의 체계와 관련이 있다.[33] 즉, 중급의 가장 낮은 급수인3급이나 고급의 가장 높은 급수인 6급

33)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2006년도 제 10회부터 1·2급을 초급으로, 3·4급을 중급으로,

을 목표로 하여 시험을 보는 학습자가 많은 반면 중급과 고급 각 급수의 중간에 위치하는 4·5급을 목표로 하여 시험을 보는 학습자가 적기 때문이다.

하습기간(일본)	빈도	비율	누적 비율
0개월	2	4.8	4.8
3개월	5	11.9	16.7
6개월	2	4.8	21.4
9개월	1	2.4	23.8
12개월	8	19.0	42.9
24개월	10	23.8	66.7
30개월	2	4.8	71.4
36개월	4	9.5	81.0
48개월	1	2.4	83.3
60개월	4	9.5	92.9
72개월	1	2.4	95.2
120개월	2	4.8	100.0
계	42	100.0	

표 13: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는 최단 0개월부터 최장 120개월까지 다양하다. 조사 참여자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의 평균은 28개월이며 약 2년 동안 일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학습기간(한국)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개월	1	2.4	2.4
3개월	10	23.8	26.2
6개월	11	26.2	52.4
9개월	1	2.4	54.8
12개월	17	40.5	95.2
15개월	1	2.4	97.6
18개월	1	2.4	100.0
계	42	100.0	

표 14: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

5·6급을 고급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전체 점수의 평균이 50%를 넘으면 낮은 급수를 부여하여 70%를 넘으면 높은 급수를 부여하는 체계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는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8개월까지 다양하다. 이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시간은 언어교육원, 어학당 등에서 한국어 자체를 학습한 기간을 말한다. 조사 참여자의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의 평균은 8개월이며 약 반 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한국 체류기간	빈도	비율	누적 비율
3개월	6	14.3	14.3
6개월	5	11.9	26.2
12개월	6	14.3	40.5
16개월	1	2.4	42.9
17개월	2	4.8	47.6
24개월	1	2.4	50.0
30개월	2	4.8	54.8
36개월	6	14.3	69.0
42개월	1	2.4	71.4
48개월	2	4.8	76.2
60개월	3	7.1	83.3
66개월	1	2.4	85.7
72개월	3	7.1	92.9
78개월	1	2.4	95.2
84개월	2	4.8	100.0
계	42	100.0	

표 15: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

한국 체류기간에 따른 조사 참여자의 수는 최단 3개월부터 최장 84개월까지 다양하다. 조사 참여자의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의 평균은 31개월이며 약 2년 반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1.2. 조사 도구 개발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어 사용 양상을 평가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필요한 도구는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의 양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존의 연어와 관련된 연구는 학습자의 연어 사용을 연구하는 내용보다 연어 교육의 중요성 주장, 한국어 연어와 외국어 연어의 대조 분석 등 이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로 학습자의 연어 사용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즉, 연어를 평가하는 도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어 사용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빈칸 채우기, 번역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조사 참여자가 직접 답을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되고, 또한 조사 참여자가 답을 모르는 경우 답을 기술하지 않거나 연구자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등 회피 전략을 취하는 우려가 있다.[34)]

최근에 들어 국외에서 제2 외국어 교실에서의 연어 교육에 관한 논문집이 발간되어 외국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질르스태드(H. Gyllstad, 2009)는 스웨덴인 학습자의 영어 연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가 도구 등을 참고하여 COLLEX test: collocating lexis test(이하, 연어 어휘 시험이라고 한다.)와 COLLOMATCH test: collocate matching test(이하, 연어 맞추기 시험이라고 한다.)를 마련하였다.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a	b	c
a. drive a business b. run a business c. lead a business	☐	☐	☐

그림 13: (H. Gyllstad, 2009:157)의 COLLEX 시험 문항 예시

catch a cold	☐	yes	☐	no
draw a limitation	☐	yes	☐	no

그림 14: (H. Gyllstad, 2009:158)의 COLLOMATCH 시험 문항 예시

연어 어휘 시험은 실험자가 한 개의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과 두 개의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이 어느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3자 택1형이다. 한편 연어 맞추기

34) 최근에 발표된 연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로 심은경(2012)이 있는데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번역 시험과 병행하여 CONTRIX 시험을 새로 도입하였다. 기존의 연어 사용 평가 도구가 연어를 이루는 명사 또는 동사의 한 쪽만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평가할 수 있었지만 CONTRIX 시험은 명사와 동사 양 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CONTRIX 시험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시험은 실험자가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과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을 섞어서 제시하여 학습자가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과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을 각각 올바르게 선택하는 yes/no형이다. 질르스태드(H. Gyllstad, 2009)에서는 연어 어휘 시험으로 사용하는 문항을 100, 연어 맞추기 시험으로 사용하는 문항을 150, 총 250 문항을 마련하였다. 득점 방식은 연어 어휘 시험인 경우 한 개의 올바른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을 선택하였을 때만 1점을 주고, 연어 맞추기 시험인 경우 연어 관계를 이루는 단어 결합을 올바르게 선택했을 때 및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을 선택했을 때에 각각 1점씩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을 사용하여 조사 참여자의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을 활용하여 한국어 연어 사용을 평가하고자 하지만, 어휘 시험을 주로 '한·일 동사의 용법 차이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연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즉,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또한 연어 맞추기 시험을 '일본어에 연어로 존재하지 않아 특히 명사 뒤에 오는 동사를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어 연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즉, 연어 사용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의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두 가지 시험은 연어를 이루는 동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연어 사용 평가 도구로 적절하다. 셋째, 질르스태드(H. Gyllstad, 2009)에서 두 가지 시험을 가지고 연어 사용의 정확성 평가를 실시하였지만[35] 조사 참여자가 일본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한·일 동사의 용법 차이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연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yes/no형인 연어 맞추기 시험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목표어에 어떤 연어가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 연어 사용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yes/no형인 연어 맞추기 시험은 유용하다.

문항 수는 조사 참여자의 심적 부담과 집중력을 고려하여 질르스태드(H.

35) (Gyllstad, 2009)에서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을 병행하여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평가한 것은 사용 평가 도구로 두 가지 시험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 제대로 작용하는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Gyllstad, 2009)에서 마련된 문항 수를 5분의 1로 줄여 연어 어휘 시험은 20문항으로, 연어 맞추기 시험은 30문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어 맞추기 시험인 경우 연어 관계를 이루는 결합과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결합을 30문항 제시하는데 문항 모두 연어를 이루는 단어 결합 또는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15%에 해당하는 5문항을 연어 관계를 이루지 않는 단어 결합으로 설정하였다.

득점 방식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연어 어휘 시험인 경우 20점을, 연어 맞추기 시험인 경우 3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실제로 사용한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a	b	c
a. 해가 뜨다 b. 해가 나가다 c. 해가 오르다			

그림 15: 연어 어휘 시험의 문항 예시

효과를 보다	yes	no
자신이 앉다	yes	no
방송을 타다	yes	no

그림 16: 연어 맞추기 시험의 문항 예시

1.3. 자료 분석 방법

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빈도분석이다. 이는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 자체의 결과인 각각의 득점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Pearson(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황해익(2003)에 의하면 상관계수 r은 0에서 2 사이의 절댓값, 즉 -1.0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취하는데 이때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지

는 것이고 절댓값 q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결과에 나타난 연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 기간이나 한국어 학습 태도 등의 제 요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상관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상관계수와 상관관계 정도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상관계수	상관관계 정도
±0.9 이상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0.7~±0.9 미만	상관관계가 높다
±0.4~±0.7 미만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
±0.2~±0.4 미만	상관관계가 있지만 낮다
±0.2 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표 16: (황해익, 2003: 261)의 상관계수와 상관관계 정도

셋째, t-검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은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상호 독립적인 경우,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결과에 나타난 연어 사용과 제 요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그 요인의 여부에 따라 모집단을 나누어 평균 차이가 숫자적으로가 아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값의 크기이다. t값은 음수 아니면 양수로 나타나는데 이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절댓값이 그대로 t값이 된다. 또한 t값의 절댓값이 클수록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조사 절차

한국어 연어 사용 능력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를 밟으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조사에 앞서 시험지에 사용되는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문항을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인 초급 학습자 2명, 중급 학습자 2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경우 문항을 교체 및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 42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이유가 없는 한 연구자가 직접 조사 참여자를 만나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조사를 하는 동안 감독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조사 참여자의 조사 시의 생각이나 인식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 기간이나 한국어 학습 태도 등의 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가 예상과 달랐을 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및 분석

이 절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실제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전체 및 개별 문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이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 사용과 연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1. 연어 사용의 정확성의 문제점

조사 참여자를 전체, 고급, 중급으로 나누어 연어 어휘 시험의 전체 결과를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사례수(N)	최솟값	최댓값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42	5	20	14.76	4.23
고급	25	14	20	17.64	1.35
중급	17	5	18	10.47	3.20

표 17: 연어 어휘 시험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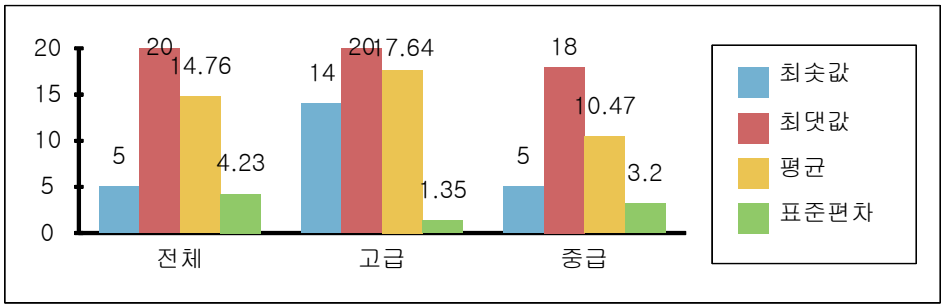


그림 17: 연어 어휘 시험 전체 결과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최솟값이 5, 최댓값이 20이며 평균이 14.76, 표준편차가 4.23이다. 중·고급 집단을 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 및 표준편차가 크다. 고급 집단을 살펴보면 최솟값이 14, 최댓값이 20이며 평균이 17.64, 표준편차가 1.35이다. 중급 집단을 살펴보면 최솟값이 5, 최댓값이 28이며 평균이 10.47, 표준편차가 3.2이다. 중급 집단보다 고급 집단이 평균이 높은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연어 사용이 한국어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급 집단 간의 표준편차가 1.21에 비하여 중급 집단 간의 표준편차는 3.2이며 같은 집단 간인데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조사에 사용한 시험 문항의 내용이나 수준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연어 사용에 한국어 능력이 아닌 다른 요인이 관계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36]

다음으로 조사 참여자를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연어 어휘 시험의 문항 1부터 문항 20까지 각 문항별 결과를 빈도 분석 및 원인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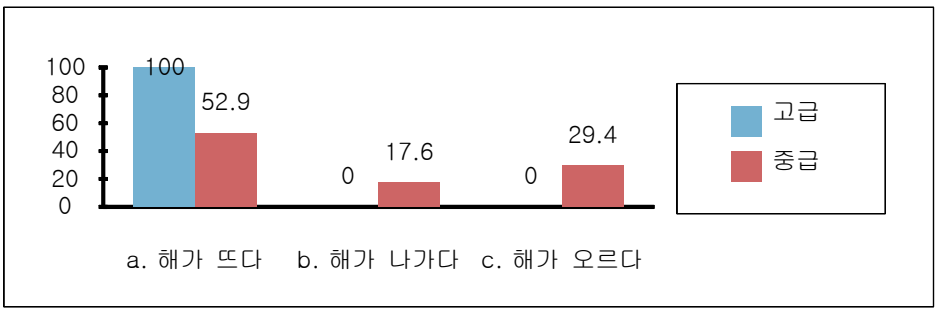


그림 18 :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

36) 2.3.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문항 1은 a. '해가 뜨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52.9%가 정답을 선택하여 29.4%가 일본어의 '日が昇る'에 해당하는 c. '해가 오르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중급 집단의 17.6%가 일본어의 '日が出る'에 해당하는 b. '해가 나가다'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동사 '나다'와 혼동하여 '나가다'를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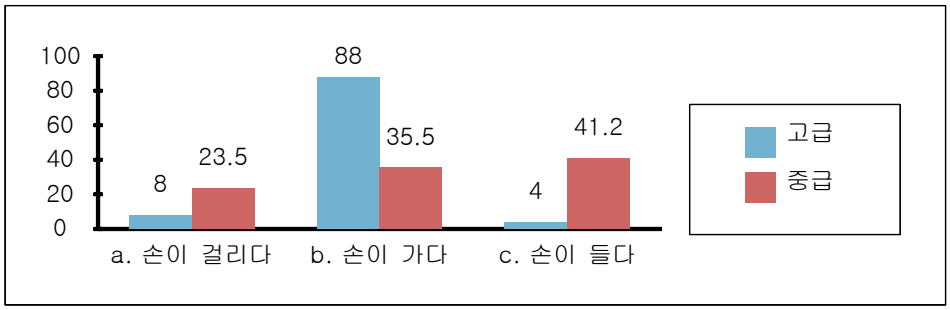


그림 19: 연어 어휘 시험 문항 2 결과

문항 2는 b. '손이 가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집단인 경우 35.5%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8%, 23.5%가 일본어의 '手が掛かる'에 해당하는 a. '손이 걸리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4%, 41.2%가 일본어의 영향과 관계가 없는 c. '손이 들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손이 걸리다'가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a. '손이 가다'와 c. '손이 들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 고민한 끝에 c. '손이 들다'를 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보다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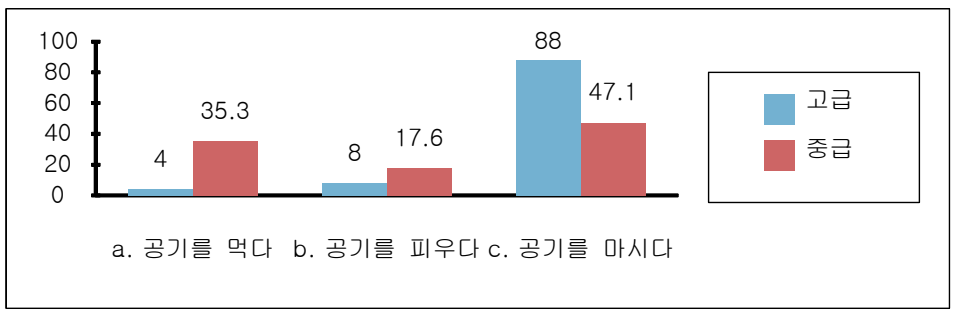


그림 20: 연어 어휘 시험 문항 3 결과

문항 3은 c. ‘공기를 마시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집단인 경우 41.2%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8%, 17.6%가 일본어의 ‘空気を吸う’에 해당하는 b. ‘공기를 피우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4%, 35.3%가 일본어의 영향과 관계가 없는 a. ‘공기를 먹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동사 ‘먹다’의 사용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인식 하에서 ‘공기’와 같은 기체에도 ‘물’과 같은 ‘액체’에 먹다가 사용되는 것처럼 ‘먹다’를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보다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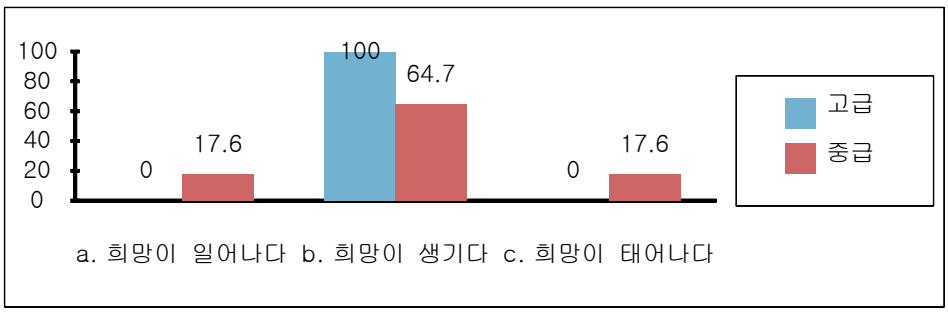


그림 21: 연어 어휘 시험 문항 4 결과

문항 4는 b. ‘희망이 생기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가 b. ‘희망이 생기다’를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64.7%가 정답을 선택하여 17.6%가 일본어의 ‘希望が生まれる’에 해당하는 c. ‘희망이 태어나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중급 집단인 경우 17.6%가 a. ‘희망이 일어나다’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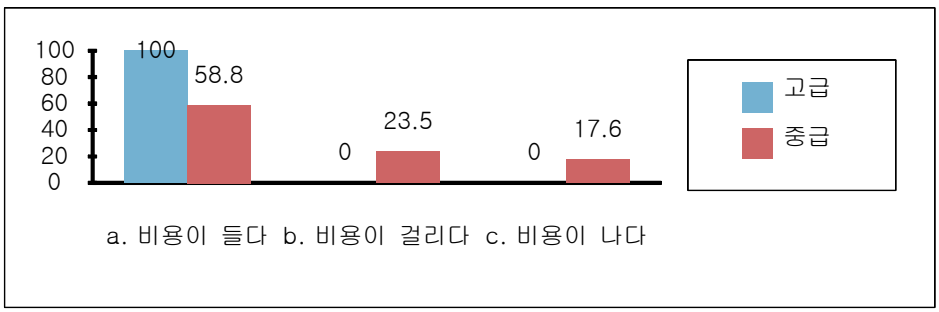


그림 22: 연어 어휘 시험 문항 5 결과

문항 5는 a. '비용이 들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가 a. '비용이 들다'를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23.5%가 일본어의 '費用がかかる'에 해당하는 b. '비용이 걸리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17.6%가 c. '비용이 나다'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동사 '나가다', '나오다'와 혼동하여 '나다'를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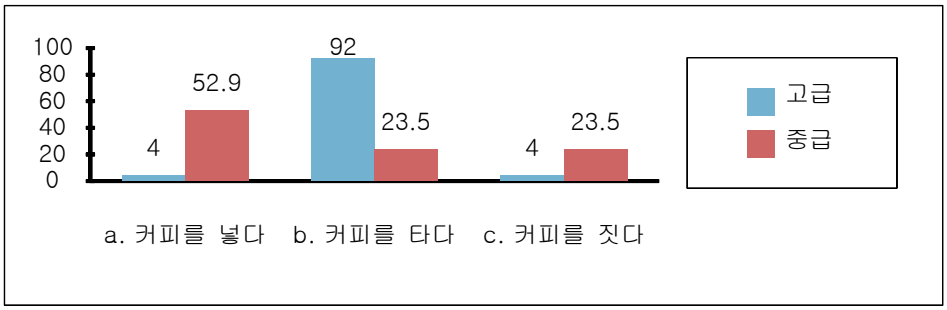


그림 23: 연어 어휘 시험 문항 6 결과

문항 6은 b. '커피를 타다'가 정답이다.[37] 일본인 고급 집단인 경우 92%, 중급 집단인 경우 23.5%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4%, 52.9%가 일본어의 'コーヒーを入れる'에 해당하는 a. '커피를 넣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4%, 23.5%가 c. '커피를 짓다'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동사 '만들다'와 혼동하여 '짓다'를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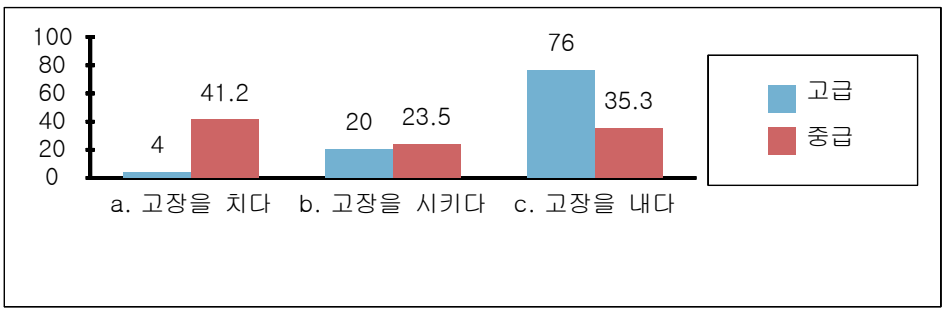


그림 24: 연어 어휘 시험 문항 7 결과

37) 조사 참여자에게 '커피를 끓이다'의 뜻을 가진 연어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문항임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커피를 넣다'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문항 7은 c. ‘고장을 내다’가 정답이다. 일본인 고급 집단인 경우 76%, 중급 집단인 경우 35.3%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20%, 23.5%가 일본어의 ‘故障(を)させる’에 해당하는 b. ‘고장을 시키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급 집단인 경우 41.2%가 일본어의 영향과 관계가 없는 a. ‘고장을 치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고장이 나다’는 알고 있었지만 ‘고장을 내다’를 몰라, 정답처럼 보이는 ‘고장을 치다’를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보다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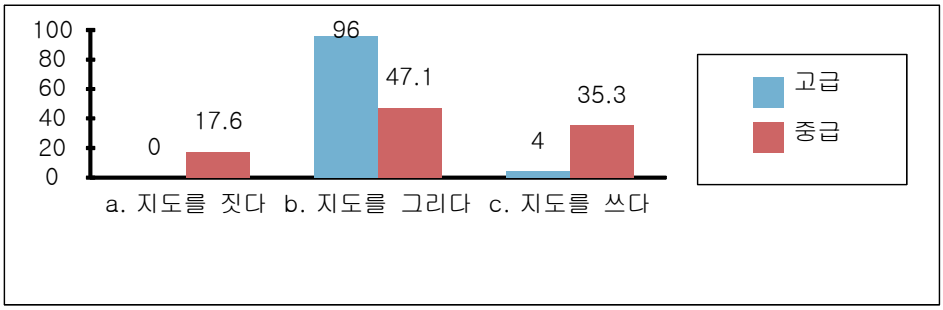


그림 25: 연어 어휘 시험 문항 8 결과

문항 8은 b. ‘지도를 그리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6%, 중급 집단인 경우 47.1%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4%, 35.3%가 일본어의 ‘地図を書く’에 해당하는 c. ‘지도를 쓰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일본어에서 a. ‘지도를 그리다’, c. ‘지도를 쓰다’ 양쪽이 사용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중급 집단인 경우 17.6%가 a. ‘지도를 짓다’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동사 ‘만들다’와 혼동하여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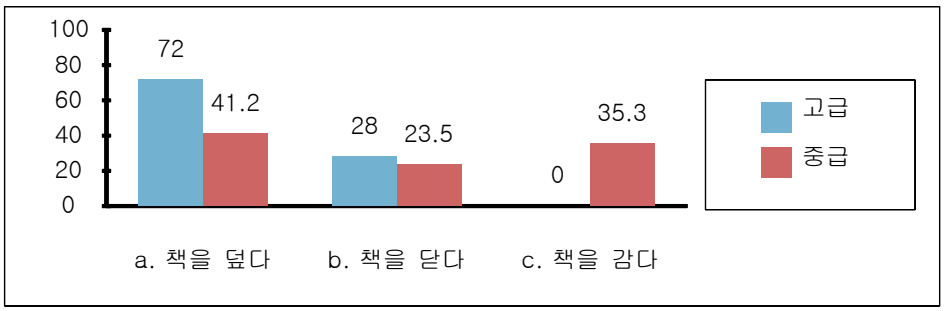


그림 26: 연어 어휘 시험 문항 9 결과

문항 9는 c. ‘책을 덮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72%, 중급 집단인 경우 41.2%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28%, 23.5%가 일본어의 ‘本を閉じる’에 해당하는 b. ‘책을 닫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급 집단인 경우 35.3%가 일본어의 영향과 관계가 없는 a. ‘책을 감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책을 닫다’는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a. ‘책을 덮다’와 c. ‘책을 감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 고민한 끝에 c. ‘손이 들다’를 선택하였다고 답하였거나 ‘눈을 감다’처럼 ‘감다’가 사용될 줄 알아 a. ‘책을 감다’를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보다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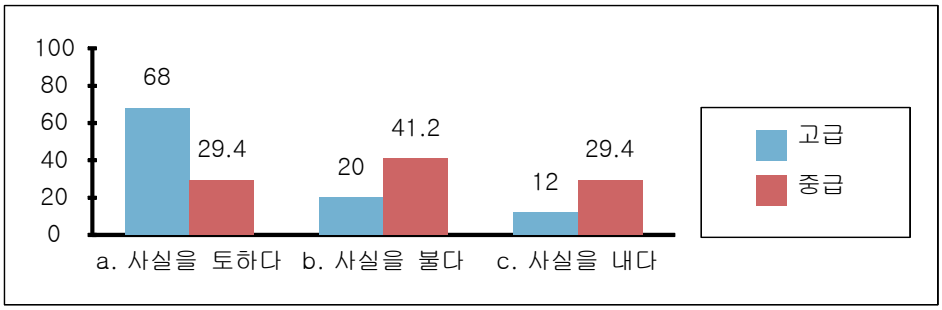


그림 27: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0 결과

문항 10은 c. ‘사실을 불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20%, 중급 집단인 경우 41.2%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68%, 29.4%가 일본어의 ‘事実を吐く’에 해당하는 a. ‘사실을 토하다’를 선택하였고 12%, 29.4%가 c. ‘사실을 내다’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중급 집단보다 고급 집단이 정답률이 낮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고급 집단은 b. ‘사실을 불다’가 정답임을 전혀 예상치 못하였고 c. ‘사실을 내다’는 오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사용되는 a. ‘사실을 토하다’를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한편 중급 집단은 고급 집단처럼 무엇이 오답인지 전혀 몰랐다고 답하였다. 즉 중급 집단인 경우 이 문항에 관해서는 우연히 정답을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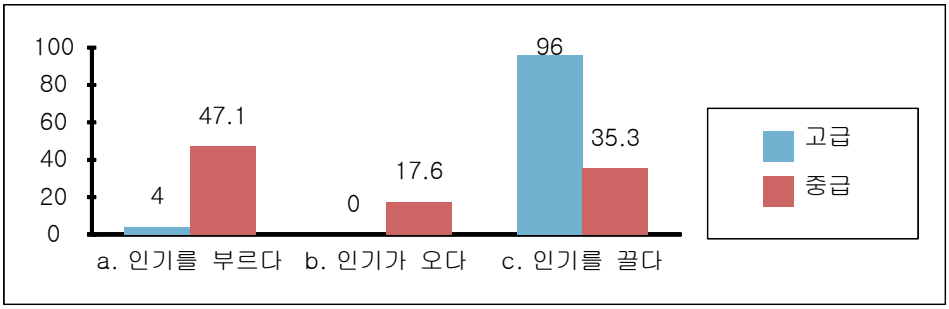


그림 28: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1 결과

문항 11은 c. '인기를 끌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6%, 중급 집단인 경우 35.3%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4%, 41.1%가 일본어의 '人気を呼ぶ'에 해당하는 a. '인기를 부르다'를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17.6%가 b. '인기가 오다'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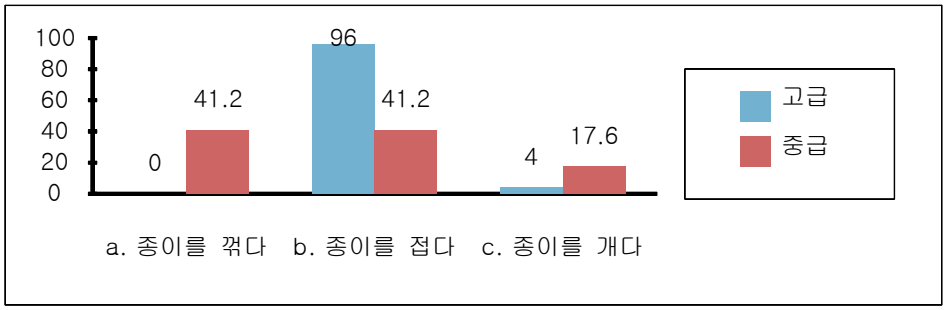


그림 29: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2 결과

문항 12는 b. '종이를 접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6%, 중급 집단인 경우 41.2%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41.2%가 일본어의 '紙を折る'에 해당하는 a. '종이를 꺾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고급 집단인 경우 4%, 중급 집단인 경우 17.6%가 c. '종이를 개다'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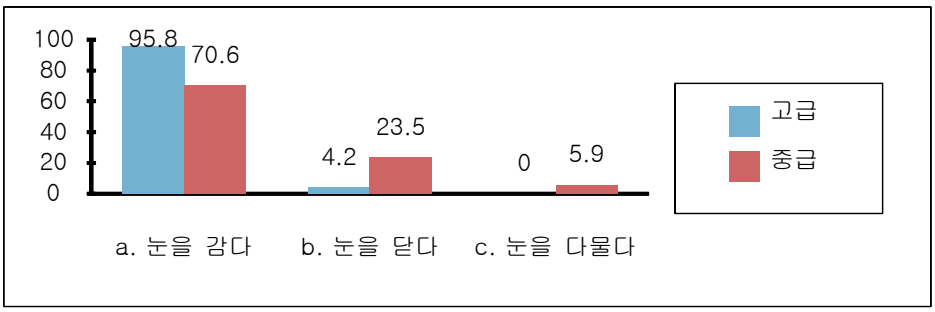


그림 30: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3 결과

문항 13은 a. '눈을 감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5.8%, 중급 집단인 경우 70.6%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4%, 23.5%가 일본어의 '目を閉じる'에 해당하는 b. '눈을 닫다'를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5.9%가 c. '눈을 다물다'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눈'이 '닫다'가 아니라 '감다'와만 결합함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입을 다물다'와 혼동하여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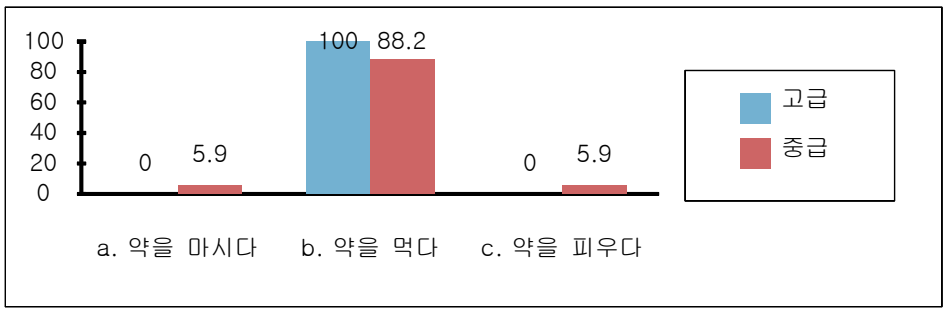


그림 31: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4 결과

문항 14는 b. '약을 먹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88.2%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5.9%가 일본어의 '薬を飲む'에 해당하는 a. '약을 마시다'를 선택하였고 마찬가지로 5.9%가 c. '약을 피우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중급 집단인 경우 고급 집단보다 비교적 한국 체류 기간이 짧아,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는 조사 참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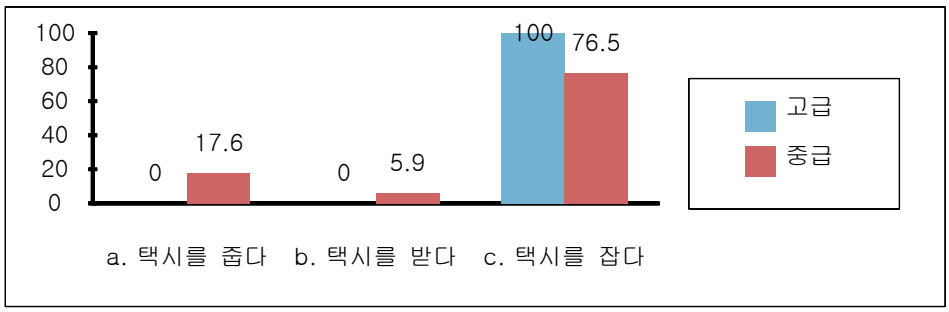


그림 32: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5 결과

문항 15는 a. '택시를 잡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76.5%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17.6%가 일본어의 'タクシーを拾う'에 해당하는 b. '택시를 줍다'를 선택하였고 5.9%가 b. '택시를 받다'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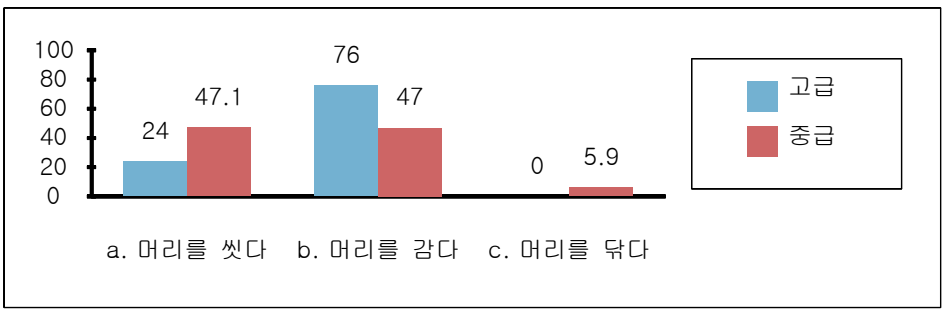


그림 33: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6 결과

문항 16은 b. '머리를 감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76%, 중급 집단인 경우 47%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24%, 47.1%가 일본어의 '髪を洗う'에 해당하는 a. '머리를 씻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머리'가 '씻다'가 아니라 '감다'와만 결합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중급 집단인 경우 5.9%가 c. '머리를 닦다'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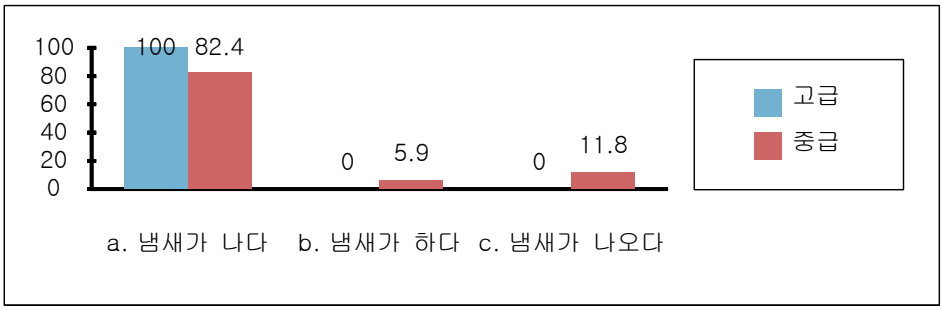


그림 34: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7 결과

문항 17은 a. '냄새가 나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82.4%가 정답을 선택하여 5.9%가 일본어의 '匂いがする'에 해당하는 b. '냄새가 하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급 집단인 경우 11.8%가 일본어의 영향과 관계가 없는 a. '냄새가 나오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동사 '나다'와 혼동하여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보다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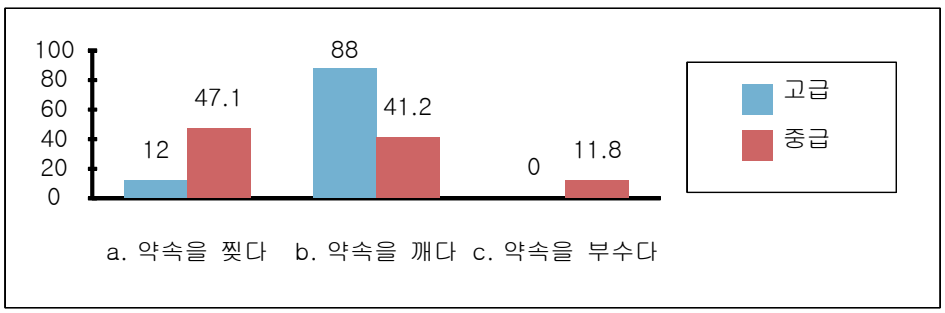


그림 35: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8 결과

문항 18은 b. '약속을 깨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학습자인 경우 41.2%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12%, 47.1%가 일본어의 '約束を破る'에 해당하는 a. '약속을 찢다'를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11.8%가 c. '약속을 부수다'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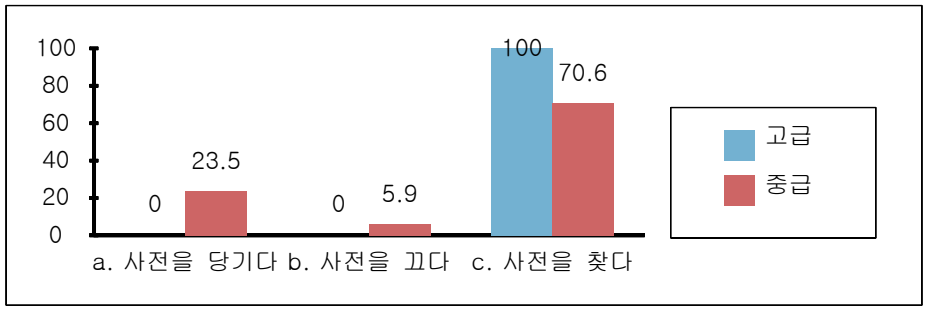


그림 36: 연어 어휘 시험 문항 19 결과

문항 19는 c. '사전을 찾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다. 중급 집단인 경우 70.6%가 정답을 선택하여 23.5%가 일본어의 '辞書を引く'에 해당하는 a. '사전을 당기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중급 집단인 경우 5.9%가 b. '사전을 끄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어 동사 '引く'가 한국어 동사 '당기다', '끌다' 등에 대응하는데 '끌다'와 혼동하여 '끄다'를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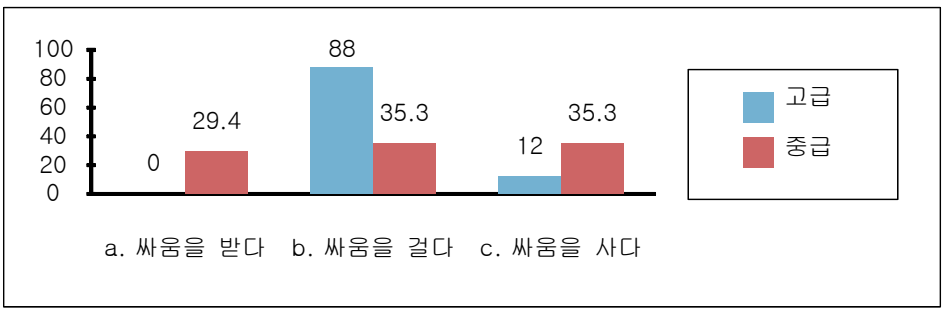


그림 37: 연어 어휘 시험 문항 20 결과

문항 20은 b. '싸움을 걸다'가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집단인 경우 35.3%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또한 12%, 35.3%가 일본어의 '喧嘩を買う'에 해당하는 c. '싸움을 사다'를 선택하였다. 중급 학습자인 경우 29.4%가 a. '싸움을 받다'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다.

이상의 연어 어휘 시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 집단에 비하여 중급 집단은 같은 집단 간인데도 연어 어휘 시험 점수에 큰 차이가 나타났

다. 이에 연어 사용에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관계하는 가능성을 보였다. 즉,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체류 기간, 학습 내용 및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어 사용과 직결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항 10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급 집단보다 고급 집단의 정답률이 높았다. 셋째, 문항에서 제시한 연어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집단인 경우 모두가 정답을 선택한 것은 문항 1, 4, 5, 14, 15, 17, 19 총 7 개다. 그러나 고급 집단인 경우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것은 문항 10 총 1개다. 중급 집단인 경우 모두가 정답을 선택한 문항은 없었다. 또한 중급 집단인 경우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것은 문항 2, 3, 6, 7, 8, 9, 10, 11, 12, 16, 17, 18, 20 총 13개이다. 이는 전체 문항 수의 절반을 넘는 수이다. 이 결과에서 고급 집단보다 중급 집단에 연어 사용의 정확성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넷째,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목표어의 영향 때문에 오답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은 문항은 고급 집단인 경우 문항 2, 3, 7, 8, 9, 10, 11, 13, 16, 18, 20 총 11개다. 중급 집단인 경우 문항 1, 4, 5, 6, 8,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총 15개다. 한편 목표어의 영향 때문에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오답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은 문항은 고급 집단인 경우 문항 12 총 1개다. 중급 집단인 경우 문항 2, 3, 7, 9, 17 총 5개다.

이 결과에서 고급 집단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인 반면 한국어 동사 간의 혼동을 안 보였다. 이는 기존의 한국어 학습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명사와 어떤 동사가 함께 어울려 사용되는지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중급 집단은 수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의한 혼동을 보였지만 한국어 동사 간의 혼동도 보였다. 이는 아직 어떤 명사와 어떤 동사가 함께 어울려 사용되는지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중급 집단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와 함께 한국어 동사 간의 차이에 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중급 집단은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신장을 중심으로 한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필요하며 이를 마련해야 한다. 고급 집단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사 용법 차이에 관해서 수시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2.2. 연어 사용의 다양성의 문제점

먼저 조사 참여자를 전체, 고급, 중급으로 나누어 연어 맞추기 시험의 조사 결과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사례수(N)	최솟값	최댓값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42	12	26	19.40	3.42
고급	25	15	26	21.80	3.03
중급	17	12	20	17.06	2.28

표 18: 연어 맞추기 시험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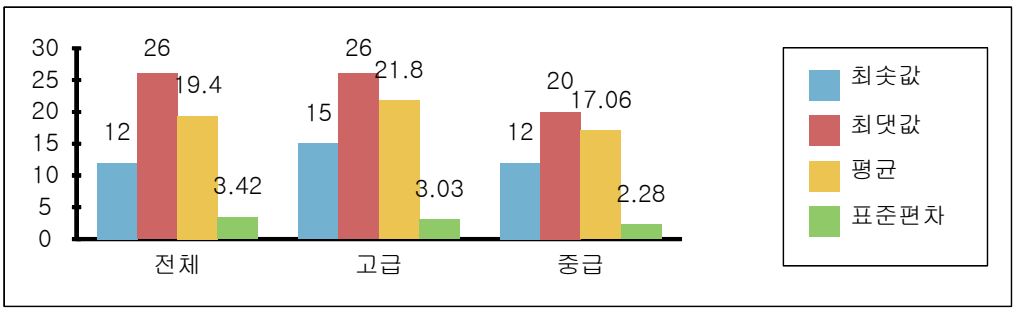


그림 38: 연어 맞추기 시험 전체 결과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최솟값이 12, 최댓값이 26이며 평균이 19.40, 표준편차가 3.42이다. 고급 집단을 살펴보면 최솟값이 15, 최댓값이 26이며 평균이 21.80, 표준편차가 3.03이다. 중급 집단을 살펴보면 최솟값이 12, 최댓값이 20이며 평균이 17.06, 표준편차가 2.28이다. 중급 집단보다 고급 집단이 평균이 높은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연어 사용이 한국어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어 어휘 시험과 달리 고급 집단 간의 표준편차는 3.03이며 같은 집단 간인데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 참여자를 고급, 중급으로 나누어 연어 맞추기 시험의 문항 1부터 문항 30까지 각 문항별의 결과를 빈도 분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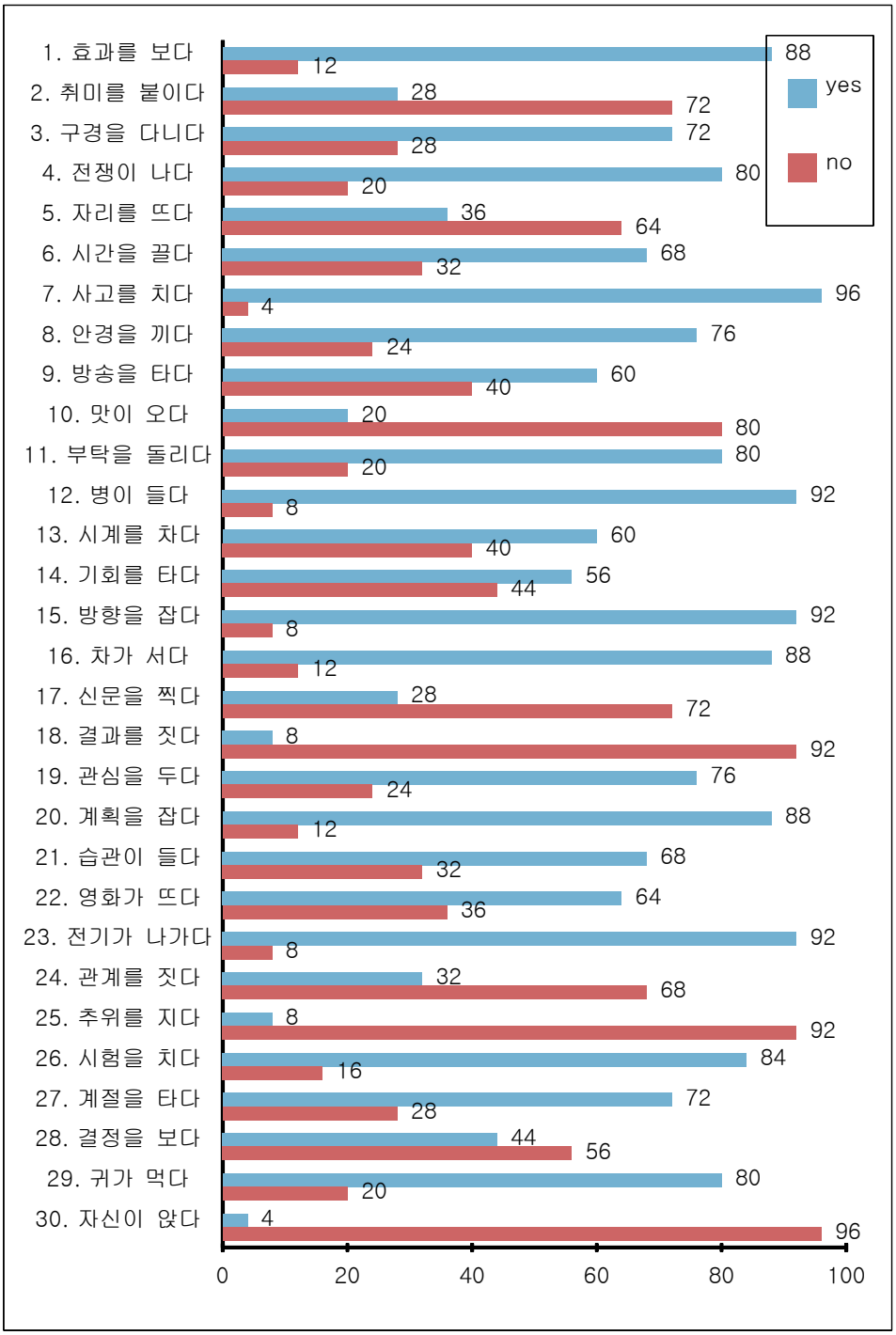


그림 39: 고급 집단의 연어 맞추기 시험 개별 문항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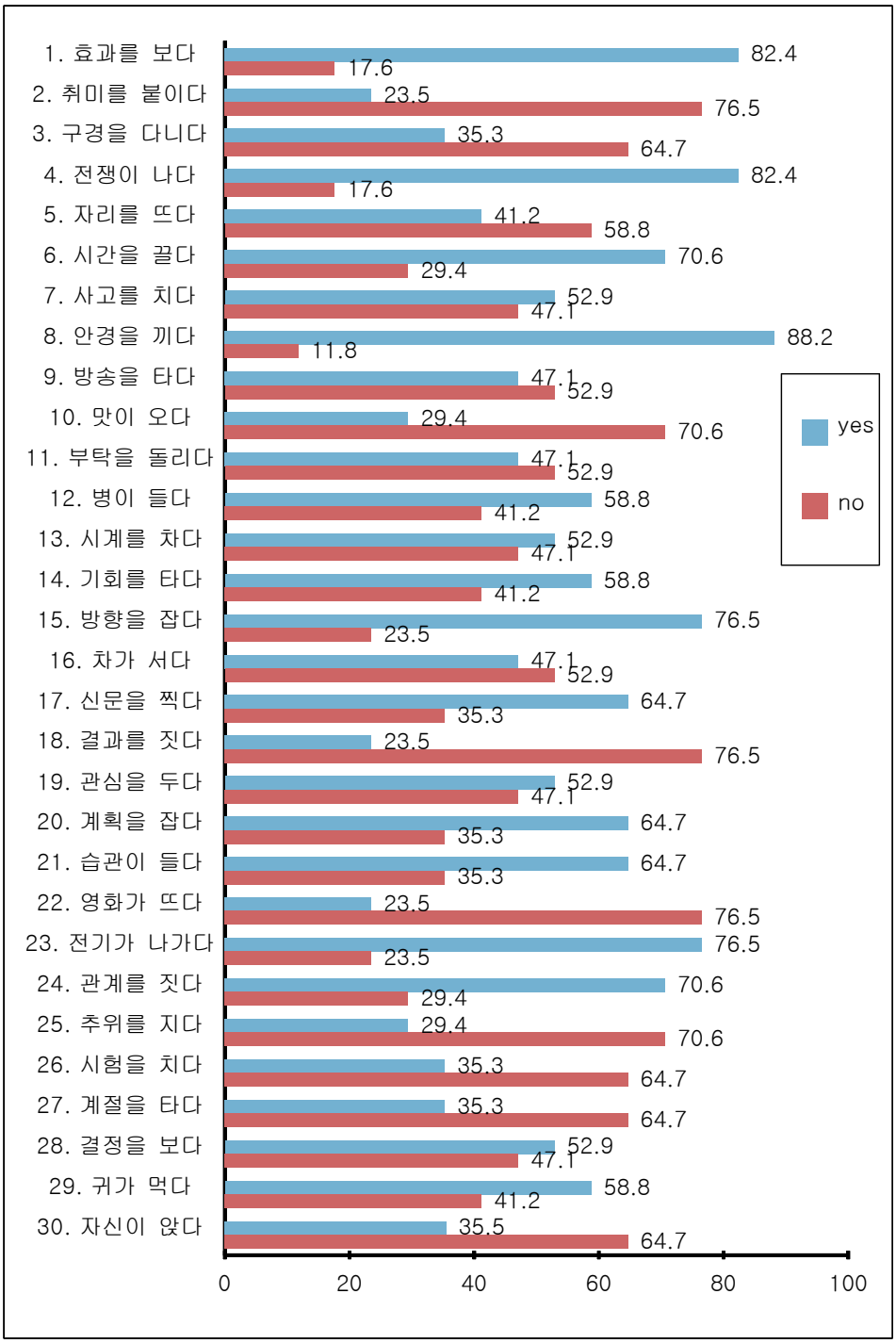


그림 40: 중급 집단의 연어 맞추기 시험 개별 문항 결과

문항 1 ‘효과를 보다’는 ‘효과를 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집단인 경우 82.4%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12%, 후자 집단의 17.6%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 ‘취미를 붙이다’는 ‘취미가 생기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28%, 중급 집단인 경우 23.5%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72%, 후자 집단의 76.5%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3 ‘구경을 다니다’는 ‘구경을 가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28%, 중급 집단인 경우 23.5%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72%, 후자 집단의 76.5%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4 ‘전쟁이 나다’는 ‘전쟁이 일어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0%, 중급 집단인 경우 82.4%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20%, 후자 집단의 17.6%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5 ‘자리를 뜨다’는 ‘자리를 비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36%, 중급 집단인 경우 41.2%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74%, 후자 집단의 58.8%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6 ‘시간을 끌다’는 ‘시간을 벌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68%, 중급 집단인 경우 70.6%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32%, 후자 집단의 29.4%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7 ‘사고를 치다’는 ‘사고를 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6%, 중급 집단인 경우 52.9%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4%, 후자 집단의 47.1%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8 ‘안경을 끼다’는 ‘안경을 쓰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76%, 중급 집단인 경우 82.4%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24%, 후자 집단의 11.8%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9 '방송을 타다'는 '방송에 나오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60%, 중급 집단인 경우 47.1%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40%, 후자 집단의 52.9%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0 '맛이 오다'는 일부러 오답으로 넣는 것이며 no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20%, 중급 집단인 경우 29.4%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80%, 후자 집단의 70.6%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1 '부탁을 돌리다'는 일부러 오답으로 넣는 것이며 no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0%, 중급 집단인 경우 47.1%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20%, 후자 집단의 52.9%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2 '병이 들다'는 '병이 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2%, 중급 집단인 경우 58.8%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8%, 후자 집단의 41.2%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3 '시계를 차다'는 '시계를 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60%, 중급 집단인 경우 52.9%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40%, 후자 집단의 47.1%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4 '기회를 타다'는 '기회를 얻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집단인 경우 82.4%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12%, 후자 집단의 17.6%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5 ''는 '방향을 잡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2%, 중급 집단인 경우 76.5%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8%, 후자 집단의 23.5%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6 ‘차가 서다’는 ‘차가 멈추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집단인 경우 47.1%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12%, 후자 집단의 52.9%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7 ‘신문을 찍다’는 ‘신문을 인쇄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28%, 중급 집단인 경우 64.7%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72%, 후자 집단의 35.3%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8 ‘결과를 짓다’는 일부러 오답으로 넣는 것이며 no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 중급 집단인 경우 23.5%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92%, 후자 집단의 76.5%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19 ‘관심을 두다’는 ‘관심을 갖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76%, 중급 집단인 경우 52.9%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24%, 후자 집단의 47.1%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0 ‘계획을 잡다’는 ‘계획을 세우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8%, 중급 집단인 경우 64.7%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12%, 후자 집단의 35.3%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1 ‘습관이 들다’는 ‘습관이 붙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68%, 중급 집단인 경우 64.7%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32%, 후자 집단의 35.3%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2 ‘영화가 뜨다’는 ‘영화가 인기가 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64%, 중급 집단인 경우 23.5%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36%, 후자 집단의 76.5%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3 ‘전기가 나가다’는 ‘전기가 끊어지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92%, 중급 집단인 경우 76.5%가 yes를 선택하

고, 전자 집단의 8%, 후자 집단의 23.5%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4 '관계를 짓다'는 '관계를 만들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32%, 중급 집단인 경우 70.6%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68%, 후자 집단의 29.4%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5 '추위를 지다'는 일부러 오답으로 넣는 것이며 no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 중급 집단인 경우 29.4%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92%, 후자 집단의 70.6%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6 '시험을 치다'는 '시험을 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4%, 중급 집단인 경우 35.3%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16%, 후자 집단의 64.7%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7 '계절을 타다'는 '계절에 약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72%, 중급 집단인 경우 35.3%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28%, 후자 집단의 64.7%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8 '결정을 보다'는 '결정을 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44%, 중급 집단인 경우 52.9%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56%, 후자 집단의 47.1%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에서는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중급 집단에서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29 '효과를 보다'는 '효과를 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yes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80%, 중급 집단인 경우 58.8%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20%, 후자 집단의 41.2%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문항 30 '자신이 앉다'는 일부러 오답으로 넣는 것이며 no를 선택하면 정답이다. 고급 집단인 경우 4%, 중급 집단인 경우 35.5%가 yes를 선택하고, 전자 집단의 96%, 후자 집단의 64.5%가 no를 선택하였다. 고급 집단도 중급 집단도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연어 맞추기 시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급 집단에 비하여 고급 집단에서 같은 집단 간인데도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체류 기간, 학습 내용 및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어 사용과 직결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항에서 제시한 연어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집단에서도 중급 집단에서도 모두가 정답을 선택한 문항은 없었다. 이는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비하여 연어 사용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어를 이루는 단어가 일상생활 수준이지만 그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어 사용의 정확성보다 연어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문항 4, 5, 6, 8, 11, 17, 24, 28을 제외한 문항에서 중급 집단보다 고급 집단의 정답률이 높았다. 또한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것은 고급 집단인 경우 문항 2, 5, 17, 24, 28 총 5개이고 중급 집단인 경우 문항 2, 3, 5, 9, 16, 22, 26, 27 총 8개이다. 이 결과에서 고급 집단보다 중급 집단에 연어 사용의 다양성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연어 어휘 시험에 비하면 중급 집단보다 고급 집단의 정답률이 높은 문항의 수 및 고급 집단과 중급 집단의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수에 차이가 없다. 이는 시험 형식이 yes/no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어 맞추기 시험 개별 문항 결과 그래프를 보면 고급 집단인 경우 거의 모든 문항에서 정답과 오답의 비율에 차이가 보이는 반면 중급 집단인 경우 거의 모든 문항에서 정답과 오답의 비율이 비슷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급 집단인 경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집단 간에서 공통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정답과 오답의 비율에 분명한 차이가 났지만, 중급 집단인 경우 거의 모르는 것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연히 정답을 선택한 결과 정답과 오답의 비율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또한 연어 사용의 정확성보다 연어 사용의 다양성이 한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연어 맞추기 시험 전체 결과에서 고급 집단에서 같은 집단 간인데도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어 사용의 다양성은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달리 한국어 능력과 함께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고급 집단이라도 연어 사용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의식적인 학습이 필요가 있다. 즉, 고급 집단은 연어 사용의 정확성보다 연어 사용의 다양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해야 한다. 중급 집단도 마찬가지로 연어의 다양성을 신장하는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하지만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신장하는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2.3. 연어 사용과 제 요인들과의 상관 분석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전체 결과와 개별 문항 결과에서 연어 사용에는 한국어 능력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38]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 집단을 고급, 중급으로 나누어 연어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설문지 문항에서 추출하여 이들에 대한 상관 분석 및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계 분석 처리에 앞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 가설 1. 연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 기간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가설 3.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가설 4. 연어 사용과 어휘 학습 방법[39]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가설 5.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들 가설이 기각되는지 아니면 채택되는지를 검정하는 데 유의도 수준(probability: 확률)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05$를 기준으로 한다.[40] 또한 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

38) 양수영(2008)에서는 외국인 중·고급 학습자가 연어 사용과 개별 어휘 지식과 한국어 능력과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논의한 바 있고 심은경(2012)에서는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연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바 있다. 즉, 연어 사용과 한국어능력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되어 있다.

39) 조현용(2000:149)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학습 전략으로 교사의 설명, 사전 찾기, 노트 필기, 말하기, 보기의 반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1. 교사의 설명, 2. 사전 찾기, 3. 노트 필기, 4. 말하기, 보기의 반복, 5. 기타의 다섯 가지 선택지를 설문지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40) $p<.05$는 표본의 결과가 모집단의 본질과 관계없이 표본의 특성에 의해 우연히 나타났을 확률이 100번 가운데 5번 이하라는 뜻이다. 즉, 통계치가 모수치를 대표하는 정도에서 오

는 기준에는 t값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p<.05$와 같은 수준인 t값이 ±1.96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들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3.1. 연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

연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기간의 상관관계는 연어 어휘 시험 및 연어 맞추기 시험과 한국어 학습 시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주로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과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학습 기간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학습 기간	1.00		
연어 어휘 시험	.08	1.00	
연어 맞추기 시험	.03	.29	1.00

표 19: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N=25)

	학습 기간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학습 기간	1.00		
연어 어휘 시험	.15	1.00	
연어 맞추기 시험	.41	.29	1.00

표 20: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N=17)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과의 상관관계는 상관 계수와 유의 확률의 수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고급 집단인 경우 연어 어휘 시험과 .08, 연어 맞추기 시험과 .03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71, .88이다. 이는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키지 않았다. 중급 집단인 경우 연어 어휘 시험과 .15, 연어 맞추기 시험과 .41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57,

차가 5%이며, 표본통계치의 신뢰도가 95%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지준, 2009: 16)

.10이다. 이도 역시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키지 않았다. 고급 집단의 상관 계수는 중급 집단의 상관 계수보다 값이 작아, 고급 집단에서의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연어 사용과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 기간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학습 기간	1.00		
연어 어휘 시험	.18	1.00	
연어 맞추기 시험	.12	.29	1.00

표 21: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N=25)

	학습 기간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학습 기간	1.00		
연어 어휘 시험	.28	1.00	
연어 맞추기 시험	.12	.29	1.00

표 22: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N=17)

연어 사용과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과의 상관관계는 상관 계수와 유의 확률의 수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고급 집단인 경우는 연어 어휘 시험과 .18, 연어 맞추기 시험과 .12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40, .57이다. 이는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키지 않았다. 중급 집단인 경우 연어 어휘 시험과 .28, 연어 맞추기 시험과 .12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27, .66이다. 이도 역시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키지 않았다. 고급 집단의 상관 계수는 중급 집단의 상관 계수보다 값이 작아, 고급 집단에서의 연어 사용과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에서 고급 집단에서도 중급 집단에서도 연어 사용과 학습 기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설 1. '연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 기간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어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어 사용이 정확하고 다양해질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 연어 사용의 정확성이나 다양성은 단지 한국어 학습을 오래 해서는 신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2.3.2.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관계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관계는 연어 어휘 시험 및 연어 맞추기 시험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체류 기간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체류 기간	1.00		
연어 어휘 시험	.27	1.00	
연어 맞추기 시험	.43*	.29	1.00

*p<.05

표 23: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관계(N=25)

	체류 기간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체류 기간	1.00		
연어 어휘 시험	.13	1.00	
연어 맞추기 시험	.15	.29	1.00

표 24: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의 상관관계(N=17)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과의 상관관계는 상관 계수와 유의 확률의 수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고급 집단인 경우는 연어 어휘 시험과 .27, 연어 맞추기 시험과 .43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19, .03이다. 이는 연어 어휘 시험 사이에는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가리키지 않았지만 연어 맞추기 시험 사이에는 유의 확률이 .03(p<.05)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켰다. 중급 집단인 경우 연어 어휘 시험과 .13, 연어 맞추기 시험과 .15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63, .56이다. 이는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키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 고급 집단의 연어 맞추기 시험과 한국 체류 기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고급 집단의 절반이 속하는 한국 체류 기간 36개월을 경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체류 기간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36개월 이상	13	22.85	3.16	1.89
36개월 미만	12	20.67	2.54	

표 25: 고급 집단의 체류 기간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한국 체류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고급 집단은 평균 22.85(SD=3.16), 한국 체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고급 집단은 평균 20.67(SD=2.54)이다. 평균 점수 상으로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t값은 1.89(t>1.96)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가리켰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설 2. '연어 사용과 한국 체류 기간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오래 체류할수록 저절로 한국어 연어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어 사용이 정확하고 다양해질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 한국에 오래 체류해도 그것이 연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2.3.3.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의 상관관계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의 상관관계는 연어 어휘 시험 및 연어 맞추기 시험과 연어 학습의 상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연어 학습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연어 학습	1.00		
연어 어휘 시험	.65*	1.00	
연어 맞추기 시험	.63*	.29	1.00

*p<.05

표 26: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의 상관관계(N=25)

	연어 학습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연어 학습	1.00		
연어 어휘 시험	.48*	1.00	
연어 맞추기 시험	.61*	.29	1.00

*p<.05

표 27: 중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의 상관관계(N=17)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과의 상관관계는 상관 계수와 유의 확률의 수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고급 집단인 경우는 연어 어휘 시험과 .65, 연어 맞추기 시험과 .63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00(p<.05), .00(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켰다. 중급 집단인 경우는 연어 어휘 시험과 .48, 연어 맞추기 시험과 .61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각각 .04(p<.05), .0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리켰다. 이에 따라 고급 집단과 중급 집단을 연어 학습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어 학습에 따른 연어 어휘 시험 및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연어 학습 (유)	10	18.70	.68	4.15*
연어 학습 (무)	15	16.93	1.22	

*p<.05

표28: 고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어휘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연어 학습 (유)	10	24.10	1.37	3.92*
연어 학습 (무)	15	20.27	2.87	

*p<.05

표29: 고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연어 학습 (유)	9	11.89	3.18	2.14*
연어 학습 (무)	8	8.88	2.53	

*p<.05

표30: 중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어휘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연어 학습 (유)	9	18.33	1.58	3.00*
연어 학습 (무)	8	15.63	2.13	

*p<.05

표31: 중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고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어휘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어 학습을 실시하는 집단은 평균 18.70(SD=.68), 연어 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은 평균 16.93(SD=1.22)이다. 또한 t값은 4.25(t>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가리켰다. 고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어 학습을 실시하는 집단은 평균 24.10(SD=1.37), 연어 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은 평균 20.27(SD=2.87)이다. 또한 t값은 3.92(t>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가리켰다. 중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어휘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어 학습을 실시하는 집단은 평균 11.89(SD=3.18), 연어 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은 평균 8.88(SD=2.53)이다. 또한 t값은 2.14(t>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가리켰다. 중급 집단의 연어 학습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어 학습을 실시하는 집단은 평균 18.33(SD=1.58), 연어 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은 평균 15.63(SD=2.13)이다. 또한 t값은 3.00(t>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가리켰다. 따라서 가설 3.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즉,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은 의식적인 연어 학습을 통해 신장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2.3.4. 연어 사용과 어휘 학습 방법의 상관관계

연어 사용과 한국어 어휘 학습 방법의 상관관계는 연어 어휘 시험 및 연어 맞추기 시험과 어휘 학습 방법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사전 찾기	COLLEX 시험	COLLOMATCH 시험
사전 찾기	1.00		
COLLEX 시험	.37	1.00	
COLLOMATCH 시험	.40*	.29	1.00

*p<.05

표 32: 고급 집단의 연어 사용과 사전 찾기의 상관관계(N=25)

연어 사용과 어휘 학습 방법과의 상관관계는 상관 계수와 유의 확률의 수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의 사전 찾기와 연어 맞추기 시험은 .40의 상관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04(p<0.5)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인 경우 사전 찾기와 연어 맞추기 시험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리켰다. 중급 집단에서는 어휘 학습 방법과 아무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가리켰다. 이에 따라 사전 찾기를 학습 방법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찾기 (유)	19	21.16	3.08	-2.01*
사전 찾기 (무)	6	23.38	1.84	

*p<.05

표 33: 고급 집단의 사전 찾기 여부에 따른 연어 맞추기 시험 점수에 대한 t-검정

사전 찾기를 어휘 학습 방법으로 취하는 고급 집단은 평균 21.16(SD=3.08), 사전 찾기를 어휘 학습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중급 학습자는 평균 23.38(SD=1.84)이다. 또한 t값은 2.01(t>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가리켰다. 따라서 가설 4. '연어 사용과 어휘 학습 방법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사전 찾기를 어휘 학습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집단의 점수가 사전 찾기를 어휘 학습 방법으로 취하는 집단보다 높다는 의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사전 찾기를 어휘 학습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점수가 높은 실험 참여자 몇 명에게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사전 학습으로는 실제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즉, 이는 연어 사용의 정확성이나 다양성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연어들을 모아 그것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교수·학습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2.3.5.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의 상관관계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의 상관관계는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상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연어 어휘 시험	1.00	
연어 맞추기 시험	.29	1.00

표 34: 고급 집단의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상관관계(N=17)

	연어 어휘 시험	연어 맞추기 시험
연어 어휘 시험	1.00	
연어 맞추기 시험	.29	1.00

표 35: 중급 집단의 연어 어휘 시험과 연어 맞추기 시험의 상관관계(N=25)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의 상관관계는 상관 계수와 유의 확률의 수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고급 집단인 경우는 .29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16이다. 이는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중급 집단인 경우 .29의 상관 계수를 가진다. 또한 유의 확률은 .26이다. 이도 역시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즉,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가리켰다. 이에 따라 가설 5.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에서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어 교수·학습 방법을 따로 마련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어 사용과 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3. '연어 사용과 연어 학습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를 채택함으로써 연어 사용에는 명시적인 연어 학습이 필요하며, 연어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둘째, 가설 4. '연어 사용과 어휘 학습 방법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를 채택함으로써 연어 사용에는 어휘 학습 방법이 크게 관련을 가지며 특히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가설 5.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를 기각함으로써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신장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연어 사용의 다양성을 신장하는 교수·학습 방법 두 가지를 따로 마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Ⅳ.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의 실제

Ⅲ장에서는 일본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연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 경향과 문제점, 그리고 연어 사용에 기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 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어 교수·학습 목표

이 절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어 연어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어 연어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에 종합적인 방침을 제공한다.

언어 교육의 목표에는 종합목표(goal)와 목표(objectives)라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브라운(J. D. Brown, 1995)에서는 종합목표(goal)와 목표(objectives)라는 두 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종합목표(goal): “소망하고 달성 가능한 프로그램 목적과 지향점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
> 목표(objectives): “특정한 지식, 행동, 및/혹은 기능을 기술한 구체적인 진술”
> (H. D. Brown, 2007:174 재인용)

또한 브라운(H. D. Brown, 2007)에서는 종합목표를 교육적 맥락에서 상당히 넓게 기반을 둔 지향점과 목적들에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이나, 강좌들, 혹은 한 강좌 내에서 어느 정도 큰 모듈과 더 적절히 연관되는 것으로 목표를 그 개념과 맥락에서 모두 종합목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보통 한 단위의 수업이나 한 수업의 활동이라는 좁은 맥락 안에서의 목적과 지향점을 지칭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해당하는 맥락의 크기나 범위에 따라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성기철(1998)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목적’과 ‘목표’ 두 가지로 나누어, 목적은 목표보다 상위개념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며 목표는 목적을 충족시

키기 위하여 도달되기를 기대하는 직접적인 종착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종합목표에 해당한다. 이상 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목표를 '목적'과 '목표'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받아들여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1.1. 연어 교육의 목표와 어휘 교육의 목표

언어 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 신장이라는 실용적인 것으로 전환되면서 어휘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에 들어 이와 함께 어휘의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어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휘 교육의 하위범주로 생각되는 연어 교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지만 연어 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는 연어 교육이 어휘 교육의 하위범주인 것처럼 연어 교육의 목표는 어휘 교육의 목표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데에 하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휘 교육 목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단어에 관한 지식과 관련을 지어 논의되었다. 네이션(I. S. P. Nation, 1990)에서는 단어에 관한 지식(knowing a word)을 수용적 지식(receptive knowledge)과 생산적 지식(productive knowledge)의 두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형태		
구어	R	어떻게 들리는가?
	P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어	R	어떻게 단어가 생겼는가?
	P	어떻게 쓰고 어떤 철자인가?
위치		
문법적 양식	R	어떤 양식에서 단어가 나타나는가?
	P	어떤 양식에서 단어를 써야 하는가?
연어	R	어떤 단어가 그 단어의 앞뒤에 오는가?
	P	어떤 단어와 그 단어를 같이 써야 하는가?
기능		

빈도	R	그 단어가 얼마나 흔한가?
	P	그 단어를 얼마나 자주 써야 하는가?
적절성	R	어디서 그 단어를 볼 수 있는가?
	P	어디에다 그 단어를 써야 하는가?
의미		
개념	R	단어의 의미는 무어신가?
	P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가?
연계	R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상기시키는가?
	P	그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가?

표 36: (I. S. P. Nation, 1990:31)의 단어에 관한 지식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어에 관한 지식의 한 범주로서 연어에 관한 기술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어휘 교육의 목표의 일부로서 연어 교육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는 어휘력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김광해(1993)에서는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연어에 관해서는 질적 능력 안에서 '공기관계'라는 언급에 그치고 있다.[41] 이영숙(1997)에서는 김광해(1993)의 논의를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역시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질적 어휘력 다시 통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연어 관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언급에 그치고 있다.[42] 이러한 논의에서 연어에 관한 지식은 어휘력이

41) 김광해(1993:305)에서 제시된 어휘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밑줄은 연구자)
1. 양적 능력-어휘소의 양
2. 질적 능력
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1. 단일 어휘소의 의미(단어의 의미, 다의)
2.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숙어, 속담, 사자성어 등)
3.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나.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1. 유의 관계, 반의 관계
2. 공기관계

42) 이영숙(1997:201)에서 제시된 어휘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밑줄은 연구자)
1. 양적 어휘력-어휘의 양
2. 질적 어휘력
2.1. 언어내적 지식

라는 범위 안에서 어휘의 질적 능력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이승연·최은지(2007)에서는 연어를 이루는 동사 부분에서 연어 사용의 다양성의 문제와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연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어휘력 즉, 어휘에 관한 능력과 마찬가지로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연어 사용의 다양성 문제는 외국인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결합 가능한 동사의 수가 적어 전반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연어에 관한 양적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연어 사용의 정확성 문제는 말 그대로 외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 목표어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한국어 동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어의 질적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어 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어휘력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 어휘 교육 목표와 관련된 논의를 전적으로 적용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어 교육 목표를 연어 사용의 다양성과 연어 사용의 정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설정하고자 한다.

2.1.1. 선언적 지식
2.1.1.1. 형태에 대한 지식
2.1.1.1.1. 발음과 철차에 대한 지식
2.1.1.1.2. 단어외 철자에 대한 지식
2.1.1.2. 의미에 대한 지식
2.1.1.2.1.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에 대한 지식
2.1.1.2.2.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
2.1.1.3. 통사에 대한 지식
2.1.1.3.1.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
2.1.1.3.2. 연어 관계에 대한 지식
2.1.1.3.3. 호응에 대한 지식
2.1.1.4. 화용에 대한 지식
2.1.1.4.1. 상황에 따른 사용의 제약에 대한 지식
2.1.1.4.2. 단어외 사용 효과에 대한 지식
2.1.2. 절차적 지식
2.1.2.1.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수행적 정보에 대한 지식
2.1.2.2.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행동 목록에 대한 지식
2.1.2.3.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에 관한 지식
2.2. 언어 외적 지식
2.2.1 단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2.2.2. 단어에 관한 일화적 기억
2.2.3. 단어의 원어에 대한 지식
2.2.4. 단어의 어원에 대한 지식

1.2. 연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연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연어 교육의 목적은 한국어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용의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의 종합적인 신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연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 수준 별로 단계적인 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와 동시에 연어 사용의 질적 능력과 양적 능력 각각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신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Ⅱ장의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어 교육 현황 조사와 Ⅲ장의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연어 교육의 학습자 수준별 목표를 설정한다. 연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목적	한국어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연어 사용의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른다.	
목표	초급	1. 연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초보적인 언어 기능(자기소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행위 등)을 수행하는 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이해하여, 한국어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중급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이해하여, 한국어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를 이해하여, 한국어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를 어느 정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 급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어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 37: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 교육의 목적과 수준별 목표

초급 학습자의 연어 교육 목표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의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어 교육 현황 조사 결과에서 일본인 초급 학습자는 어휘를 학습할 때 '연어' 까지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전체의 9.8%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초급 학습자가 연어를 모르거나 연어 학습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즉, 초급 학습자는 연어를 학습하기에 앞서 의사소통 시에서의 연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초급 학습자의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Ⅲ장에서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중급 학습자는 같은 집단 간에서도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큰 차이가 있어,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와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 때문에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보다 한국어 동사 용법 간의 차이에 더 어려움을 겪었음을 밝혔다. 즉, 초급 학습자의 그 다음 수준인 중급 학습자가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 때문에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면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관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에 비하여 학습한 어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어 사용이 자기소개나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행위에 한정되므로 초보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한해서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함을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어 사용의 다양성과 관련된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중급 학습자의 연어 교육 목표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Ⅲ장에서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중급 학습자

는 같은 집단 간에서도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큰 차이가 있어,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와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 양 쪽 때문에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이해하여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함만 목표인 반면에 중급 학습자는 이와 함께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를 이해하여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함도 목표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중급 학습자가 연어 사용의 다양성보다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하였지만 중급 학습자가 연어 사용의 다양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집단 간의 차이가 고급 학습자에 비하여 적었을 뿐, 고급 학습자보다 연어 사용의 다양성도 부족하였다. 즉, 중급 학습자는 두 가지 연어 사용의 정확성 목표와 연어 사용의 다양성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연어 사용의 다양성보다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면 그 목표의 비중은 연어 사용의 정확성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어 사용의 다양성목표를 부수적인 것으로 설정하였다.

고급 학습자의 연어 교육 목표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Ⅲ장에서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고급 학습자는 같은 집단 간에서도 연어 사용의 다양성에 큰 차이가 있어, 연어 사용의 다양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를 다양하게 사용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편 중급 학습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는 연어 사용의 정확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일부분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와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약간 이었다. 이는 중급 학습자의 그것과 비교하면 고급 학습자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와 관련된 연어 사용의 정확성 문제가 고급 학습자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하면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이해하여, 연어를 정학하게 사용함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관한 이해를 높여,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연어 교수·학습 내용

이 절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연어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 수준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어 교수·학습 내용을 연어 의식 고양,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의 세 가지로 나누어 학습자의 수준별로 마련하고자 한다.

2.1. 연어 의식의 고양

연어 교수·학습의 주된 내용은 앞에서 설정한 연어 교육의 목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어의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의 신장이다. 그러나 연어 교수·학습 내용은 단지 연어의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만을 신장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어의 질적 양력과 질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연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연어가 의사소통에서 중요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힐(J. Hill, 2000)에서는 연어 교수 절차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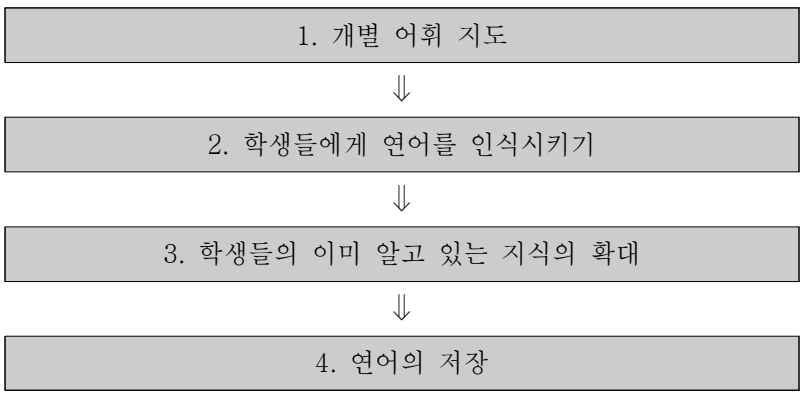


그림 41: (J. Hill, 2000:59-63)의 연어 교수 절차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어 교수 절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연어를 인식시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연어 교수 절차의 첫 번째인 개별 어휘 지도가 단어 하나하나의 지식에 관한 내용이라면 실제적으로 연어 교수의 첫 번째 단계는 연어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추정된다. 또한 울라드

(G. Woolard, 2000)에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고 텍스트를 읽는 진정한 기법을 가르칠 필요성을 제시하며 연어 교육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연어를 연어로서의 인식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인 학습자인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이른 시기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특히 초급 학습자에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연어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연어 교수·학습 내용의 전체에 차지하는 역할이 큼을 확인하였다.

2.2.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연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이다. 연어의 양적 능력을 신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어휘력에서의 어휘의 양적 능력과 같은 개념인데 말 그대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면서 단어 자체의 지식을 늘리는 것과 동반하여 연어 지식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그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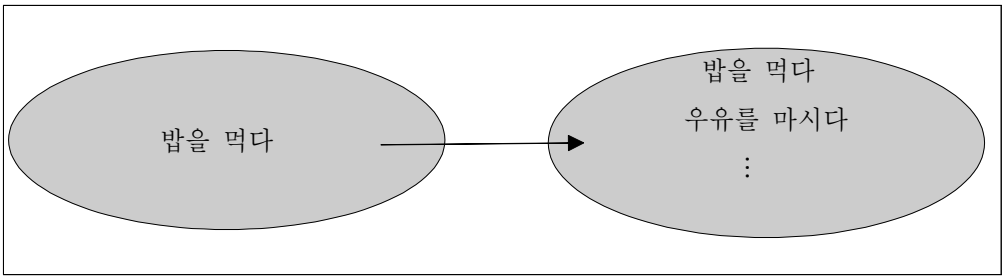


그림 42: 연어의 양적 능력 모델 1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학습한 단어가 어떤 단어와 결합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늘리는 것과 동반하여 절대적인 연어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Ⅲ장의 일본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대부분의 일본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결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연어의 양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43]는 것에서 새로운 단

43) 이는 Ⅲ장의 연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험 문항을 Ⅱ장에서 설정한 연어 대표 목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바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어 연어의

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어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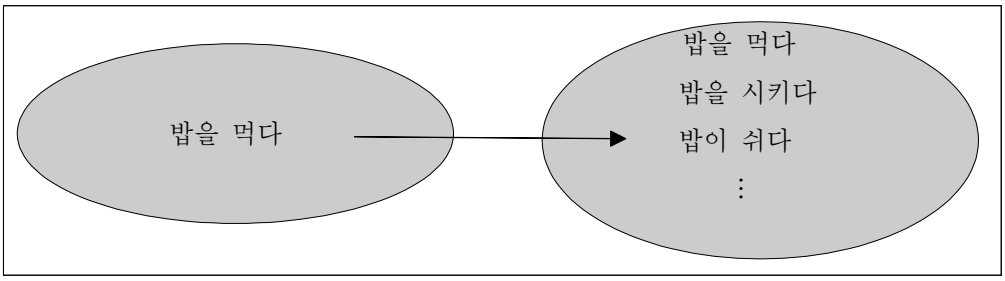


그림 43: 연어의 양적 능력 모델 2

초급 학습자인 경우 중·고급 학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량과 연어의 양을 동시에 늘리기 위하여 연어의 양적 능력 모델 1에 따라 연어의 양적 능력을 우선적으로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Ⅱ장에서 분류한 연어 중에서도 제1유형에 속하는 연어(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연어)이다. 중·고급 학습자인 경우 이미 상당한 수의 한국어 어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어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연어의 양적 능력 모델 2에 따라 양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Ⅱ장에서 분류한 연어 중에서도 제5유형에 속하는 연어(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이다.

2.3.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

연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질적 능력 신장이다.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국어와 모국어인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적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반영되는 문화적 요소에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같은 연어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 연어와의 차이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한국어 연어를 일본어 연어처럼 사용하게 된다. 이는 고급 학습

대부분이 기능 동사라고 볼 때 역시 학습자의 단어와 단어와의 결합에 관한 지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타당하다.

자도 예외가 아니다. Ⅲ장의 일본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고급 학습자도 실제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 때문에 연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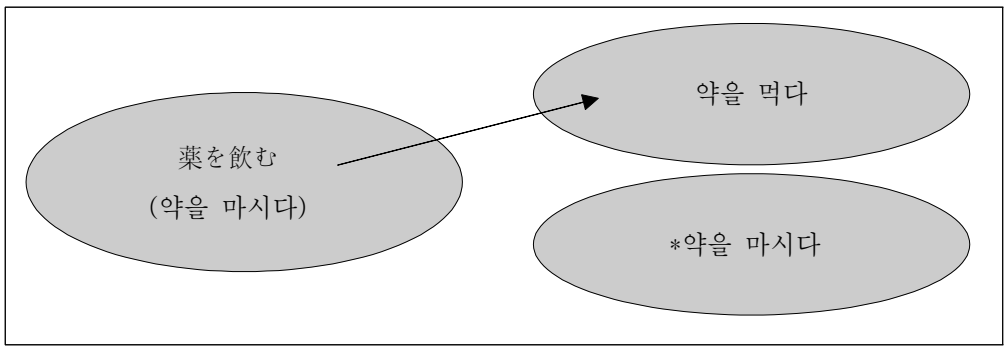


그림 44: 연어의 질적 능력 모델 1

또 다른 하나는 목표어인 한국어에 존재하는 유사한 형태, 의미를 가지는 동사 간의 용법 차이를 이해하여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Ⅲ장의 일본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특히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 때문에 한국어 연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향도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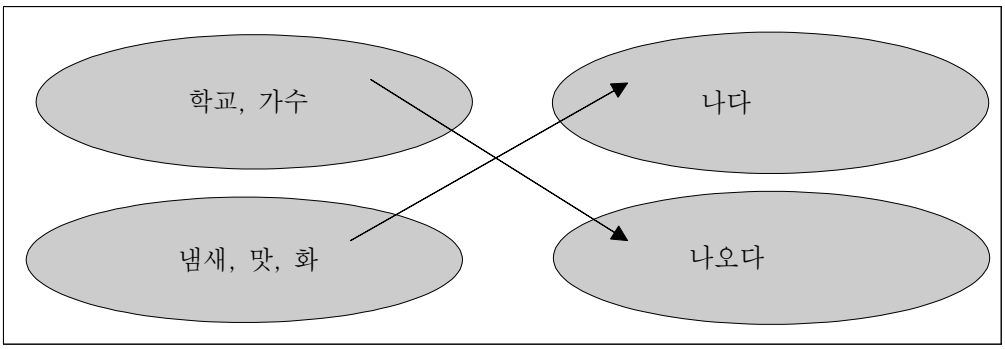


그림 45: 연어의 질적 능력 모델 2

초급 학습자인 경우 중급 학습자가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보다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 때문에 연어 사용에 더 어려움을 겪었음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어의 질적 능력 모델 1에 따라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Ⅱ장에서 분류한 연어 중에서도 제3,4유형(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에 속하는 연어이다. 초급 학습자인 경우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나 의식주와 관련이 있는 연어(바지를 입다, 약을 먹다, 잠을 자다 등)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한다.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를 학습하며 어느 정도의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 및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연어의 질적 능력을 동시에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제3,4유형(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에 속하는 연어 중에서도 중급 학습자인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시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어(얼굴을 풀다, 마음을 놓다, 생각을 고치다 등)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한다. 아울러 위의 연어를 교수·학습 하면서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열이 나다, 학교를 나오다 등)가 나타나면 수시로 교수·학습한다.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에 대한 지식은 그간의 한국어 학습을 통해 제대로 갖추고 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관한 지식은 아직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고급 학습자는 연어의 질적 능력 모델 1에 따라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와 달리 그 불완전함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수·학습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여 학습자 수준 별로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같다. 또한 굵은 글씨체 부분은 각 학습 수준에서 강조하여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초급	**1. 연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킨다.** 2. 새로운 어휘(명사와 동사)를 학습하여 어휘량을 늘리면서 제1유형에 속하는 연어(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연어)의 양을 늘려, 연어의 양적 능력을 신장시킨다. 3. 제3,4유형에 속하는 연어(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 중에서도 자기소개나 의식주에 관련되는 연어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킨다.
중급	1. 기존에 학습한 어휘(동사)가 다른 어휘(명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여 제5유형에 속하는 연어(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의 양을 늘려, 연어의 양적 능력을 중대시킨다. **2. 제3,4유형에 속하는 연어(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 중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시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어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킨다.** **3.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를 학습하여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킨다.**
고급	**1. 기존에 학습한 어휘(동사)가 다른 어휘(명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여 제5유형에 속하는 연어(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의 양을 늘려, 연어의 양적 능력을 중대시킨다.** 2. 제3,4유형에 속하는 연어(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 중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시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어를 수시로 학습하여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킨다.

표 38: 일본인 학습자의 연어 교수·학습 내용

3. 연어 교수・학습 방법

이 절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연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어휘 교육의 명시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연어 의식 고양,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을 학습자 수준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슈미트(N. Schmitt: 2000)에서는 어휘 교육의 방법으로서 명시적 접근법(Explicit approach)과 부수적 학습 접근법(Incidental learning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명시적 접근법이라는 학습 대상인 어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오로지 어휘 학습 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며, 아직 상대적으로 모르는 어휘가 많거나 이를 실제 문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학습자에게는 유용하다. 즉, 명시적 접근법은 초급 학습자에게 적절한 어휘 학습 방법이다. 한편 부수적 학습 접근법이라는 읽기와 같은 언어 기능 학습과 관련하여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 어휘 학습을 구성하여, 하나의 어휘를 다양한 문맥에 노출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어휘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그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습자에게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기억에 쉽게 남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맥락에서의 어휘 학습은 목표로 하는 어휘 이외의 어휘 및 문법 등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나 고급 학습자처럼 어휘나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학습자에게 유용하다. 즉, 부수적 학습 접근법은 중·고급 학습자에게 적절한 어휘 학습 방법이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자가 목표어로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다면 후자인 부수적 학습 접근법을 활용하여 어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44] 따라서 한국어 연어 교육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주로 부수적 학습 접근법에 입각하여 고안된 연어 교수·학습 방법이 많았다.[45] 그러나 하나의 어휘가 아닌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연어는 맥락이 없어도 어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명시적 접근법에 의거한 연어 교수·학습도 유용하다. 또한 학습자에게 연어 의식 고양시키기 위해서 연어를 강조하여 교수·학습하려고 하면 부수적 학습 접근법보다 명시적 접근법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학습자 수준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

44) 브라운(H. D. Brown, 2007)에서는 어휘 지도 원리의 하나로 맥락 속에서 어휘를 배우도록 도와줌을 예로 들고 있다. 이는 어휘를 둘러싸고 있는 담화적 맥락에서 단어들을 접하게 함으로써 뭉치말/글에서 나온 데이터는 실제 세상의 실제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단어들의 사전의 정의에 맞추는 것과 같이 단어를 고립시키기보다는 어휘 항목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적인 구조 내에서 어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45) 부수적 학습 접근법에 의거한 연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논문은 한송화·강현화(2004), 김원경(2010) 등이 있다.

3.1. 초급 학습자

먼저 초급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수·학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초급 학습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 어휘의 양이 부족하여 본격적인 연어 교수·학습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무엇보다 연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소통에서의 연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연어를 익히는 시간을 제공하며 그 속에서 연어의 양적 능력과 연어의 질적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울라드(G. Woolard, 2000)에서는 연어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으로써 한 학습자가 범한 전형적인 연어적 오류를 학습자 간에서 공유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한다는 것을 수적으로 단어를 많이 학습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연어에 대한 의식의 고양이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한다는 것을 스스로 어휘와 어휘의 새로운 결합 안에서 자주 어울리는 단어들을 학습한다는 것으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힐(G. Hill, 2000)에서는 위의 방법과 달리 하나의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두세 개의 단어를 보게 하도록 특정한 텍스트 안에 있는 모든 연어에 표시를 하게 하는 전형적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참고로 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한 실제 활동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활동 1】 연어 의식 고양 방법 1

다음 일본어를 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바꾸시오.
(次の日本語を辞書を使って韓国語に訳しなさい。)

(1) 薬を飲む → _____

(2) 味がする → _____

(3) 本を開く → _____

전형적 연어 오류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연어 몇 가지를 일본어로 제시하고 사전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바꾸도록 지시를 한다. 이때 학습자 중에는 사전으로 일본어 단어를 하나씩 찾아 한국어로 바꾸는 학습자도 있고 사전의 용례나 연어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학습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답을 예상할 수 있다.

〈답 1〉

(1) 薬を飲む → 약을 **마시다**

(2) 味がする → 맛이 **하다**

(3) 本を開く → 책을 **열다**

〈답 2〉

(1) 薬を飲む → 약을 **먹다**

(2) 味がする → 맛이 **나다**

(3) 本を開く → 책을 **펴다**

교사는 앞에서 예상되는 두 가지 답을 나열시켜 학습자에게 제시하며 답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이 때 교사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 체계가 같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수준의 언어 사용에 있어도 차이가 있음을 학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에게 이후 한국어 어휘를 학습할 때 단어 단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연어 단위로 학습할 있도록 유도한다.

【활동 2】 연어 의식 고양 방법 2

다음 한국어를 읽고 '명사+ 을/를+ 동사' 표현에 표시를 하시오.
(次の韓国語を読み「名詞＋을/를＋動詞」の表現に印をつけなさい。)

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8시에 집을 나선다.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걸린다.
오전에는 한국어 강좌가 있다.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도 수업이 있다.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본다.
10시쯤에 잠을 자다.

("쉬운 한국어 강좌", 어연, p.72.)

교사는 위와 같이 기초적인 읽기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읽으면서 '명사+을/를+동사' 표현에 표시를 하도록 한다.

다음 한국어를 읽고 '명사+ 을/를+ 동사' 표현에 표시를 하시오.
(次の韓国語を読み「名詞＋을/를＋動詞」の表現に印をつけなさい。)

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8시에 집을 나선다.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걸린다.
오전에는 한국어 강좌가 있다.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도 수업이 있다.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본다.
10시쯤에 잠을 자다.

⇒

집을 나서다.
시간이 걸리다.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텔레비전을 보다.
잠을 자다.

그 다음에 교사는 '명사+을/를+동사' 표현 모두를 추출하여 학습자에게 연어의 의미와 함께 일본어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연어 사용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여기서 다룬 연어를 노트에 적도록 함으로써 연어를 기억하게 하여 연어 사용의 양적 능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교사는 한국어 어휘 학습이 아니라도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린다.

3.2. 중·고급 학습자

초급 단계에서의 연어 학습·방법은 연어의 의식 고양부터 시작하여 교사가 주도함에 연어의 형태나 의미와 같은 지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활동 예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어를 교수·학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추를 활용한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연어를 도입할 때 그 연어의 형태나 의미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학습자에게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후에 피드백을 주고 정확한 형태와 의미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학습자에게 그 연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그 연어가 머릿속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고 기억에 남도록 할 수 있다. 의미 유추를 경험함으로써 이를 위한 방법과 그 지식을 갖출 수도 있다. 조은영(2010)에서는 어휘적 연어의 유추를 다시 그 특성에 따라 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와 형태·의미적 유사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 연결주의 관점에서의 어휘부 논의 가운데에 연어 유추가 학습자의 머릿속 사전을 활성화시킴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명시적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유추를 활용한 연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예시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Ⅲ장의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중급 학습자는 연어의 양적 능력, 연어의 질적 능력 모두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같은 집단 간의 차이가 크던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연어의 질적 능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로 인한 연어 사용의 혼동과 한국어 동사 간의 차이로 인한 연어 사용의 혼동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교

수·학습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국어로 인한 연어 사용의 혼동을 교정하는 예시 활동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 3】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 방법 1

다음 한국어 동사를 가각 **한 번씩** 사용하여 표를 완성하시오.
(次の動詞をそれぞれ**一回ずつ**使い、表を完成させなさい。)

걸다 / 생기다 / 끌다 / 그리다 / 들다 / 끓이다 / 걸다 /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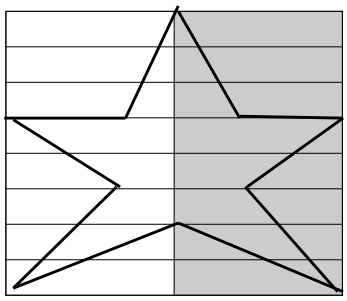
⇒

돈	
커피	
안경	
희망	
싸움	
지도	
사전	
인기	

교사는 학습자에게 표를 배포한 후, 표에 있는 각 명사에 대하여 각 동사를 한 번씩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학습자에게 표를 작성하게 한다. 앞에서 제시한 동사는 표에 있는 여러 명사와 결합 가능하며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나는 것들이다. 즉, 대부분의 학습자는 몇 개는 올바른 짝을 찾을 수 있지만 모든 올바른 짝을 찾으려면 그만큼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돈	들다
커피	끓이다
안경	쓰다
희망	생기다
싸움	걸다
지도	그리다
사전	찾다
인기	끌다

⇒



교사는 학습자가 표를 완성시킨 쯤에 학습자에게 자신의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도록 표를 뒤집게 한다. 표를 뒤집었을 때 표에 완전한 별 모양이 나오면 모든 짝을 올바르게 찾았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하여 두 언어의 동사 용법 차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복잡한 활동을 통하면 기억하기 쉬어지고 연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 효과적으로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대한 지식을 신장한 뒤에 사전이 아니라 연어 대표 목록을 활용하여 해당 명사와 연결 가능한 다른 동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는 Ⅲ장의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는 사전 학습을 하는 학습자보다 실제 언어 사용이 반영된 것으로 학습하는 학습자가 연어 사용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커피	가 나오다 를 가져오다, 남기다, 드리다, 들다, 마시다		를 끓이다, **타다**		를 시키다 (注文する)

이는 연어 대표 목록의 '커피'를 표제어로 하는 부분이다. 위의 활동에서 '커피를 끓이다'에 대하여 학습하였는데 같은 유형에 속하는 굵은 글씨체의 '커피를 타다'도 이 연어 대표 목록을 활용하여 동시에 학습시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중급 학습자인 경우 연어의 양적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 5유형에 속하는 연어를 학습하며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도 이를 계기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활동 4】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 방법 2

보기를 참고 하여 다음 한국어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시오. **단, 모두에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例を参考に次の韓国語の名詞を結合できる動詞によってグループ分けしなさい。**但**

し、すべてのグループに当てはまるものもあります。)

힘, 열차, 결과, 열, 고장, 광고, 책, 맛, 바람, 눈물, 뉴스, 해, 음악

그룹	단어
나다	**보기) 냄새, 땀**
나오다	**보기) 기사, 집**
나가다	**보기) 기사, 집**

교사는 각 동사와 결합이 가능한 명사의 예를 제시하여 학습자와 예로 제시한 명사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에 학습자에게 실제로 주어진 명사를 그룹별로 나누게 한다. 이 때 Ⅱ장에서 마련한 연어 대표 목록에서 명사를 추출해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에게 사전이나 교재와 같이 정답의 힌트가 되는 자료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학습자의 유추 기능을 높이도록 한다.

그룹	단어
나다	**예) 냄새, 땀** 힘, 열, 고장, 맛, 바람, 눈물, 해
나오다	**예) 기사, 집** 결과, 광고, 책, 뉴스, 음악
나가다	**예) 기사, 집** 열차, 광고, 뉴스

*연어 대표 목록 활용
1. 답을 확인하기
2. 결합 가능한
   다른 동사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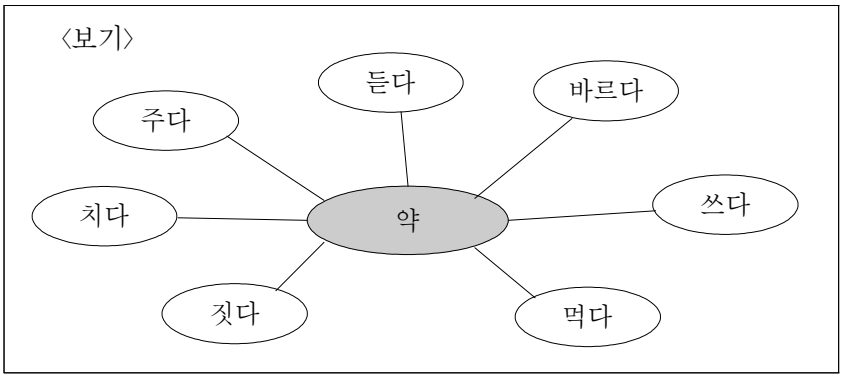
유추한 결과, 학습자는 각각의 답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위의 활동처럼 Ⅱ장에서 마련한 연어 대표 목록을 활용하고자 한다. 대표 연어 목록에서 해당 명사를

찾아 올바른 결합 관계를 학습한다. 이는 목표어인 한국어와 유사한 형태나 의미를 가지는 동사 간의 차이 용법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며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고급 학습자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Ⅲ장의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고급 학습자는 같은 집단 간의 차이가 크던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을 우선해야 한다. 이에 연어의 양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시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 5】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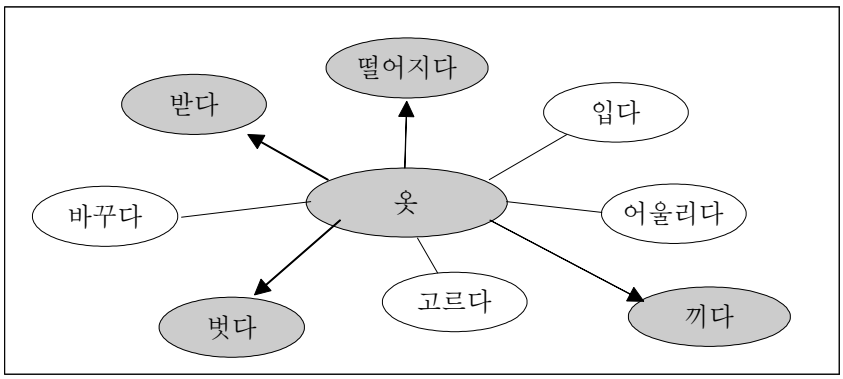
다음 보기와 같이 주어진 명사를 사용하여 어휘 지도를 작성하시오.
(次の例のように語彙マップを作成しなさい。)



길, 나라, 돈, 마음, 말, 물, 사람, 사상, 책, 옷, 집, 일, 이름, 집

Ⅱ장에서 언급했듯이 연결주의 관점에서 어휘는 하나하나 고립하여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단어와 단어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연결망을 형성하여 저장된다고 가정된다. 이에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다양하게 관련을 지어 기억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어휘 지도 작성이 있다.

교사는 어휘 지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예시를 보여준 다음에 비교적 결합 가능한 동사가 많은 명사를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한 명사는 Ⅱ장에서 마련한 대표 목록에서 최소 15개 이상의 동사와 결합 가능한 명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어 어휘 지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이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른 연어에 대한 지식을 생각하게 하여 유추를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 교사는 학습자의 어휘 지도를 보며 각 학습자가 몇 개의 동사를 연결시켰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여기서 교사가 해당 명사와 결합 가능한 동사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모두 알리는 것이 아니라 Ⅱ장에서 마련한 연어 대표 목록을 활용하여 실제로 그 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한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옷	이 맞다 어울리다 을 걷다, 걸다, 고르다, 놓다, 맞추다, 바꾸다, 버리다, 벗다, 빌리다, 입다, 팔다				**이 떨어지다,** **(破れる)** **끼다** **(小さい)** **을 짓다,** **(作る)** **받다** **(合う)**

이 때 교사는 특히 위의 어휘 지도에서 색칠을 한 부분 혹은 연어 대표 목록에서 굵은 글씨체인 부분처럼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여 연어의 양적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각각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 방법과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중급과 고급 간에서는 연어 교수·학습 방법의 상호 활용이 가능하다. 중급 학습자인 경우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연어의 양적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급 학습자인 경우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연어의 질적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어의 양적 능력과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 방법을 나선형으로 활용함으로 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모형

이 절에서는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대부분이 교양 과목으로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정에 맞도록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정에 맞게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자고 한다. 오구리(小栗, 2007)에 의하면 일본의 4년제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대학교 수는 2003년 시점으로 335, 전체 대학교 수의 47.7%이다. 이는 1995년 시점으로의 143, 전체 대학교 수의 25.3%에 비하면 20%이상 늘었다. 이처럼 일본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 한편 노마·나카지마(野間·中島, 2007)에 의하면 일본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과목으로 설치한 대학교 수는 19에 불과하여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대부분의 한국어 수업은 주로 교양 과목으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오구리(小栗, 2007)에 의하면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의 학습 수준은 초급이 가장 많아 전체 비율의 32.1%를 차이하며 이어서 중급이 30.6%, 입문 22.2%, 고급 9.3%, 전문 5.8%이다. 일주일 당의 한국어 수업 수는 (90분)이 74.5%, 2(180분)가 22.7%, 3(270

분)이 0.8%, 4(360분)이 1.8%, 5(450분)가 0.2%이다. 수업 내용은 문법과 회화 중심이다.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의 학습 수준은 입문과 초급을 합한 초급이 전체의 54.3%로 가장 많고 수업 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90분 내지 180분)이 전체의 97.2%로 가장 많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모형은 학습 수준을 초급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일주일 중 한국어 수업 수는 1(90분)인 경우 시간적 제한 때문에 연어를 한 수업의 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한국어 수업 과정에 연어 학습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주일 중에 수업이 두 번 있는 경우나 전공과목으로 설치된 수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번 연어를 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어 학습을 도입한 한국어 교수·학습 모형 및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연어 학습을 도입한 한국어 교수·학습 모형

연어 학습을 기존의 한국어 교수·학습에 도입하려고 하면 연어 학습을 위한 교재, 자료 등을 새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용하던 교재를 활용하여 어떻게 연어 학습을 도입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시즈오카대학교에서 개설된 '현대 한국어 초급Ⅱ'의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46]를 활용하여 연어 학습을 도입한 한국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학습목표>	
5-1 V/A+았/었/였+습니다.	5-3 V+(으)셨+습니다.
5-2 N+이었+습니다.	5-4 V+고
N+였+습니다.	5-5 V/A+지만

46) 일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많지만 그 대부분이 독학용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교재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초급 수준으로 학습하는 일본인을 위하여 만든 것이며 일본의 대학교에서 이를 교재로 사용하는 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교에서는 지정된 교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사가 임의로 선택한다.

제5과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1. 민수 : 오늘은 무엇을 했습니까?
   미호 : 친구하고 인사동에 갔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2. 준호 : 어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미 : 한국어 숙제를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준호 :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유미 :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자 초급 문법과 표현, 문형과 활용연습", 아사히출판사, p. 90)

구분	학습 내용 및 활동	준비물	유의점	비고
차시	1/2			
도입 (15분)	(1) 전차 시 복습 -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질문하여 습득 정도를 확인한다. (2) 본문 읽기 **- * 본문을 읽으면서 연어 의식 고양을 실천한다.**			
제시 설명 (20분)	(3) 문법 - 예문과 함께 의미 및 접속 방법을 설명한다. 5-3 V+(으)셨+습니다. 5-4 V+고 5-5 V/A+지만			
연습 (20분)	(4) 문형 연습 -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끼리 짝을 맺어 연습을 한다. 예) 1.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를 만났습니다. - *** 연습에서 나타난 문장을 연어장에 기술한다.**			
활용 (25분)	(5) 활용 연습 -과거형과 정중형의 활용 연습을 한다. 예) 찾다 → 찾았습니다. / 찾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시킨다. 예) 이, 닦다 / 세수, 하다 → 이를 닦고 세수를 했습니다. - ***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를 이해시킨다.**			
정리 (10분)	-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숙제와 복습 방법을 안내한다.			

위의 학습 지도안은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의 일반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휘 교육은 문법 교육의 부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 중심 수업에서도 연어 학습을 도입 가능한 부분이 있다.

첫째, 본문 읽기와 관련하여 연어 의식 고양을 실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수: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미호: 친구하고 ①인사동에 갔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시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

② 인사동에 가다.
사진을 찍다.
숙제를 하다.
영화를 보다.

준호: 어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미: 한국어 숙제를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준호: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유미: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한두 번 본문을 읽는다. 교사는 학습자의 연어에 대한 의식

을 높이기 위하여 ①처럼 '명사+동사' 형의 표현에 밑줄을 긋게 한다. 그리고 교사는 다시 학습자와 함께 밑줄을 그은 '명사+동사' 형의 표현을 읽는다. 그리고 ②처럼 밑줄을 그은 표현을 추출하여 노트에 적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을 하면서 연어를 계속하여 적을 수 있도록 연어장 작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어에 대한 주의력을 가지게 한다.

둘째, 교사는 문형 연습을 하면서 나타난 연어를 위의 활동처럼 학습자에게 연어장에 적도록 한다.

셋째, 교사는 활용 연습을 하면서 나타난 연어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있는 연어에 대한 설명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기】 한국어, 어렵다 / 재미있다
→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1) 눈, 오다 / 춥지 않다
→ **눈이 오지만** 춥지 않습니다.
↓
눈이 오다(√雪が来る), 비가 오다(√雨が来る)
*한국어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때 '오다'도 사용된다.

활용 연습을 하면 다양한 문장 및 표현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한국어와 일본어 동사 간의 차이가 있는 연어도 흔히 나타난다. 교사는 한국어와 일본어 동사 간의 차이가 있는 연어가 나타나면 이를 추출하여 일본어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다른 예와 함께 제시한다.

이처럼 교사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지도안을 활용하여 학습 단계 여러 곳에서 짧고 간단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연어 의식이나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대한 주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 연어 교수·학습 모형

일반적인 교수·학습 모형으로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에 따른 PPP 모형과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TTT모형이 있다. PPP모형은 제시

(Presentation), 연습(Practice), 생성(Production)으로부터 이루어 TTT모형은 과제(Task), 교수(Teach), 과제(Task)로부터 이룬다. 한편 우르(P. Ur, 1996)에서는 위의 두 교수·학습 모형과 달리 인식 학습 단계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 첫 번째 단계에 학습자에게 목표로 하는 언어 항목에 대한 의식을 명시적으로 가지게 하는 인식 단계(awareness step)를 두고 있다.[47]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초급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에서는 연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소통에서의 연어의 중요성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키는 명시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초급 학습자는 연어 사용의 다양성인 연어의 양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보다 연어 사용의 정확성 주에서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 에 대한 연어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여, 이러한 기본적 학습의 흐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창성보다 정확성을 강조하는 PPP모형이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는 PPP모형을 기본으로 삼아 거기에 인식 단계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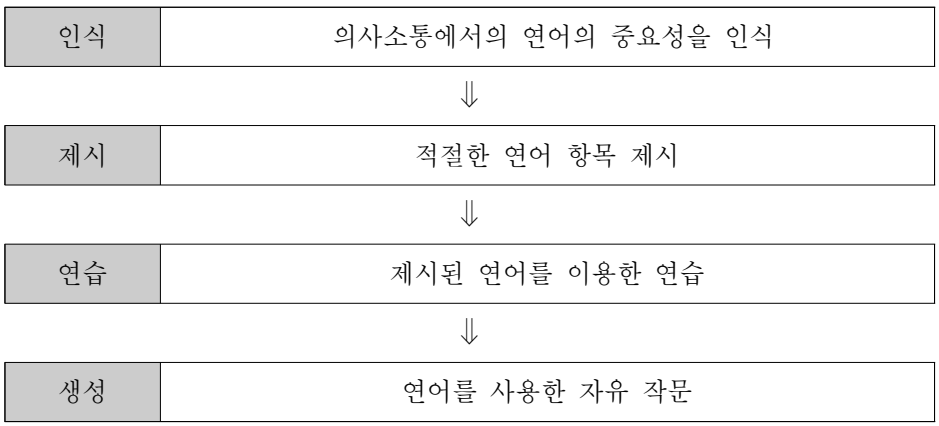


그림 46 : 일본인 초급 학습자의 연어 교수·학습 모형

먼저 초급 학습자의 연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수업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7) 우르(P. Ur, 1996, 84)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곱 가지 학습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인식 단계(Awareness step), 통제된 반복적 연습(Controlled drills), 유의미한 연습(Meaningful practice), 유도된 유의미한 연습(Guided meaning practice), 자유 작문(Free sentence composition), 담화 만들기(Discourse composition), 자유 담화(Free discourse)

〈학습 목표 〉
· 연어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 연어에 주의를 기울여 언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연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단원 구성
학습 단계: 초급
학습 시간 90분

2) 수업 절차

1) 인식 단계: 15분

준비물 1

(1) 시험을 보다 → *試験を受ける

(2) 바지를 입다 → *ズボンを着る

(3) 눈이 오다 → *雪が来る

교사는 초급 교재에도 흔히 볼 수 있을 만한 일본어와 동사 용법에 차이가 나는 한국어 연어를 일본어 직역과 같이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틀린 일본어 옆에 올바른 일본어를 적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한데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학습자에게 던진다. 이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한 후에 교사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데에 단어가 특정한 단어와 관습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가짐을 알리며 한국어 학습에서 연어 학습이 중요함을 학습자에게 명시한다.

민수: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미호: 친구하고 ①인사동에 갔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시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

② 인사동에 가다.
사진을 찍다.
숙제를 하다.
영화를 보다.

준호: 어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미: 한국어 숙제를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준호: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유미: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자 초급 문법과 표현, 문형과 활용연습", 아사히출판사, p. 79)

그리고 교사는 연어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위와 같은 대화문을 읽게 한 다음에 ①처럼 '명사+동사' 형의 표현에 밑줄을 긋게 한다. 그리고 ②처럼 밑줄을 그은 표현을 추출하여 노트에 적도록 하는 것으로 연어에 대한 주의력을 가지게 한다.

2) 제시 단계: 20분

준비물 2

A: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연어
학교를 다니다, 빨래를 하다, 편지를 보내다, 커피를 마시다, 친구를 만나다, 점심을 먹다, 전화를 걸다, 잡지를 보다, 인사를 나누다, 옷을 사다, 열이 나다, 여행을 가다, 수업을 듣다, 버스를 타다, 담배를 피우다, 김치를 먹다

준비물 3

B: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연어
시험을 보다, 약을 먹다, 책을 펴다, 책을 덮다, 꿈을 꾸다, 눈을 감다, 눈을 뜨다, 돈이 들다, 머리를 감다, 사전을 찾

	다, 안경을 쓰다, 우산을 펴다, 지도를 그리다, 치마를 입다, 커피를 끓이다, 모자를 쓰다

다음으로 교사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연어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연어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연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연어와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에 차이가 나는 연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앞에서 제시한 연어 이외에도 대학생활과 관련된 연어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도 좋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가 단순히 앞에서 제시된 연어를 보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어를 노트에 적도록 하여 자신만의 연어장을 만들도록 권장한다.

3) 연습 단계: 25분

다음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시오.
(次の例のように文章を作りなさい。)

【보기】 이, 닦다 / 세수, 하다
→ 이를 닦고 세수를 했습니다.

1) 산책, 하다 / 아침, 먹다 →
2) 식사, 하다 / 영화, 보다 →
3) 한국어, 공부하다 / 쉬다 →
4) 저녁, 먹다 / 숙제, 하다 →
5) 쇼핑, 하다 / 차, 마시다 →

("한국어를 배우자 초급 문법과 표현, 문형과 활용연습", 아사히출판사, p. 99)

위의 연습 문제는 원래 연결어미나 과거형을 학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같이 사용되는 연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가 나는 연어에 대해서는 위의 연습 문제를 조금 바꾸어 연어의 동사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문법적 요소를 간소화시킨다. 그리고 학습자가 틀리기 쉬운 오답과 정답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다음 보기와 같이 올바른 동사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次の例のように正しい動詞を選択し、文章を作りなさい。)

【보기】 잠, (하다, 자다) / 꿈, (꾸다, 보다)
→ 잠을 자고 꿈을 꾸다.

1) 밥, 먹다 / 약, (마시다, 먹다) →
2) 사전, (끌다, 찾다) / 공부, 하다 →
3) 치마, (입다, 신다) / 안경, (걸다, 쓰다) →
4) 눈을 (닫다, 감다) / 잠, (자다, 하다) →
5) 머리, (감다, 씻다) / 학교, 가다 →

4) 생성 단계: 30분

준비물 4

지금까지 학습한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연어 혹은 다르게 사용되는 연어 중에서 자신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세 개씩 선택하여 쓰시오.
(今まで学習した韓国語と日本語で同じように使われる連語もたは異なって使われる連語の中で自分の日常生活と最も関係が深いものを3つずつ選んで書いてください。)

먼저 자유 작문에 앞서 지금까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한 연어를 머릿속에 확실히 담기 위하여 학습자 자신과 깊은 관계에 있는 연어를 상기시킨다. 이는 학습자에게 머릿속에서 다양한 일상생활의 장면을 상상하며 자유 작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브레인스토밍의 역할도 해준다.

＊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연어에 주의하세요.
.....
.....
.....

그 다음으로 학습자 자신이 선택한 연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장을 자유롭게 쓰게 한다. 주제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자유 작문을 어려워하는 초급 수준이라도 학습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에 차이가 나는 연어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각각 학습자가 쓴 작문을 보며 다른 학습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오류의 예를 제시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이후에 한국어 학습에서도 연어 학습을 꾸준히 하도록 조언을 하다.

4.3. 연어 교수·학습 모형의 효과 검증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어 교수·학습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에는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보다 실용성이 높은 4.1.에서 마련한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소수의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받았는지의 변수를 부여하여 실험을 하고, 사전 시험의 점수와 사후 시험의 점수 간의 증가율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어 교수·학습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4.3.1. 실험 참여자 선정 및 실험 설계

지금까지 단순한 어휘 교육이 아닌 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어 교육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천하는 데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중심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단순한 어휘 의미 교육을 받은 학습자보다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연어과 동일한 것에 관해서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간의 점수 간의 증가율이 높다.
가설 2. 단순한 어휘 의미 교육을 받은 학습자보다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연어과 동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사후 시험의 점수가 높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연어 즉, 공기관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실험에서 단순한 어휘 의미 교육을 받은 학습자보다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공기관계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얻어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간의 점수의 증가율이 높으면 명시적인 연어 교육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1을 세웠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제시한 연어의 형태만 사용할 수 있어도 그 이외의 형태인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어휘의 사용 범위를 좁혀 연어 교육이 효과적인 어휘 교육이 아니다. 실험에서 단순한 어휘 의미 교육을 받은 학습자보다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공기관계에 대한 적절한 판단력이 있어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연어과 동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사후 시험의 점수가 높으면 명시적인 연어 학습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2를 세웠다.

이와 같은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의 한국어 수준에 가장 가까운 일본인 교환학생 8명을 실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실험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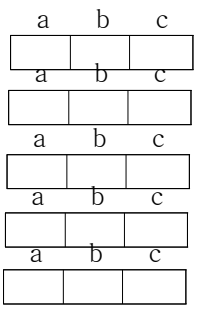
	통제 집단	실험 집단
학생 구분	교환학생 4명	교환학생 4명
한국어 수준	초급(TOPIK 미응시)	초급(TOPIK 미응시)
일본에서의 학습 기간	1~2년	1~2년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	없음	없음
한국 체류 기간	1개월	1개월

표 39: 실험 참여자의 정보

이를 대상으로 6월13일부터 6월 21일까지 1주 동안에 한 번씩 수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 참여자 8명을 무작위로 4명씩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 통제 집단에는 단순한 어휘 의미 교육 즉, 앞에서 마련한 연어 교수·학습 모형에서 연어 의식 고양이나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하지 않는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반면, 실험 집단에는 앞에서 마련한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 명시적 연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에 앞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사전 시험을 실시하여 이미 알고 있는 연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 때 실험 참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연어라고 판정될 경우 이를 실험 후에 실시하는 사후 시험의 점수에서 제외하여 명시적인 연어 교육에 의하여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간의 점수의 증가율을 비교하였다.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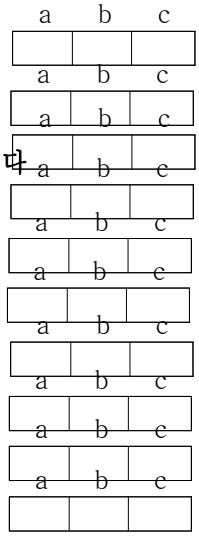
〈사전 시험〉

1.	a. 책을 펴다	b. 책을 열다	c. 책을 뜨다
2.	a. 지도를 짓다	b. 지도를 그리다	c. 지도를 쓰다
3.	a. 돈이 걸다	b. 돈이 들다	c. 돈이 나다
4.	a. 치마를 입다	b. 치마를 신다	c. 치마를 덮다
5.	a. 안경을 걸다	b. 안경을 매다	c. 안경을 쓰다



〈사후 시험〉

1.	**a. 바지를 덮다**	**b. 바지를 신다**	**c. 바지를 입다**
2.	a. 책을 열다	b. 책을 뜨다	c. 책을 펴다
3.	**a. 선글라스를 매다**	**b. 선글라스를 쓰다**	**c. 선글라스를 걸다**
4.	a. 지도를 그리다	b. 지도를 짓다	c. 지도를 쓰다
5.	a. 돈이 나다	b. 돈이 들다	c. 돈이 걸다
6.	**a. 노트를 열다**	**b. 노트를 펴다**	**c. 노트를 뜨다**
7.	a. 치마를 신다	b. 치마를 입다	c. 치마를 덮다
8.	**a. 비용이 나다**	**b. 비용이 걸다**	**c. 비용이 들다**
9.	a. 안경을 쓰다	b. 안경을 매다	c. 안경을 걸다
10.	**a. 선을 짓다**	**b. 선을 쓰다**	**c. 선을 그리다**



굵은 글씨체 부분은 사후 시험에서 추가한 문항이며 연어를 이루는 명사를 사전 시험과 다른 것으로 바꾸었고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에서는 정답의 위치도 바꾸었다. 또한 하나의 문항에 1점을 주고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점수의 증가율을 계산하였다.

4.3.2. 실험 절차

실험에 앞서 사전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실험 참여자 A(A')	1점	2점
실험 참여자 B(B')	2점	2점
실험 참여자 C(C')	2점	3점
실험 참여자 D(D')	3점	2점
평균	2점	2.3점

표 40: 사전 시험 결과

통제 집단은 실험 참여자 A: 1점, 실험 참여자 B: 2점, 실험 참여자 C: 2점, 실험 참여자 D: 3점이었고 실험 집단은 실험 참여자 A': 2점, 실험 참여자 B': 2점, 실험 참여자 C': 3점, 실험 참여자 D': 2점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평균 점수가 통계 집단이 2점, 실험 집단이 2.3점이며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이 점수가 약간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전 시험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 시험에서 얼마나 점수가 올랐는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다.

사전 시험 후 바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내용은 기본적으로 4.1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일본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모형을 사용하였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교육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통제 집단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본문을 읽게 하는 한편 실험 집단에서는 연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본문을 읽은 후에 연어에 선을 긋게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읽은 다음에 이를 연어 장에 적도록 한다.
2. 통제 집단에서는 문법 연습이나 활용 연습을 반복하는 한편 실험 집단에서는 문법 연습에 나타난 연어를 연어장에 적도록 하고, 그 연어에 한국어와 일본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가 있는 경우 추출하여 그 차이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4.3.3. 실험 결과

실험 후에 실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사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후 시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실험 참여자 A(A')	6점	10점
실험 참여자 B(B')	7점	9점
실험 참여자 C(C')	6점	10점
실험 참여자 D(D')	8점	10점
평균	6.8점	9.8점

표 41: 사후 시험 전체 결과

통제 집단은 실험 참여자 A: 6점, 실험 참여자 B: 7점, 실험 참여자 C: 6점, 실험 참여자 D: 8점 평균 6.8점이었고 실험 집단은 실험 참여자 A': 10점, 실험 참

여자 B': 9점, 실험 참여자 C': 10점, 실험 참여자 D': 10점 평균 9.8점이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실험 참여자 A(A')	3점	5점
실험 참여자 B(B')	4점	5점
실험 참여자 C(C')	3점	5점
실험 참여자 D(D')	4점	5점
평균	3.5점	5점

표 42: 사후 시험 부분 결과(동일한 것)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실험 참여자 A(A')	3점	5점
실험 참여자 B(B')	3점	4점
실험 참여자 C(C')	3점	5점
실험 참여자 D(D')	4점	5점
평균	3.3점	4.8점

표 43: 사후 시험 부분 결과(동일하지 않는 것)

통제 집단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연어와 동일한 것에 관해서는 A: 3점, 실험 참여자 B: 4점, 실험 참여자 C: 3점, 실험 참여자 D: 4점이었고,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연어와 동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A: 3점, 실험 참여자 B: 3점, 실험 참여자 C: 3점, 실험 참여자 D: 4점이었다. 한편 실험 집단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연어와 동일한 것에 관해서는 A': 5점, 실험 참여자 B': 5점, 실험 참여자 C': 5점, 실험 참여자 D': 5점이었고,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연어와 동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A': 5점, 실험 참여자 B': 4점, 실험 참여자 C': 5점, 실험 참여자 D': 5점이었다.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점수 간의 증가율을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실험 참여자 A(A')	1점	3점
실험 참여자 B(B')	1점	3점
실험 참여자 C(C')	0점	2점
실험 참여자 D(D')	2점	3점
증가율	1점	2.8점

표 44: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점수 간의 증가율(동일한 연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연어와 동일한 것에 관해서는 A: 1점, 실험 참여자 B: 1점, 실험 참여자 C: 0점, 실험 참여자 D: 2점이며 평균 1점 올랐다. 한편 실험집단은 A': 3점, 실험 참여자 B': 3점, 실험 참여자 C': 2점, 실험 참여자 D': 3점이며 평균 2.8점 올랐다. 따라서 가설 1. '단순한 어휘 의미 교육을 받은 학습자보다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연어과 동일한 것에 관해서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간의 점수의 증가율이 높다.'를 채택할 수 있어 연어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연어와 동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통제집단이 평균 3.3점이고 실험집단은 평균 4.8점이었다. 따라서 가설 2. '단순한 어휘 의미 교육을 받은 학습자보다 명시적인 연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연어과 동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사후 시험의 점수가 높다.'를 채택할 수 있어 연어 교육이 공기관계의 판단을 적절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어 교수·학습 모형에 다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에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연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까?
(2) 유창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에 연어가 중요임을 알 수 있었습니까?
(3) 한국어와 일본어 연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4) 연어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교육(어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5) 앞으로 연어에 주의를 기울려 한국어 학습을 수행하고자 합니까?

사후 인터뷰 결과, 연어가 단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연어가 하나의 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금방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실험 참여자가 있었고,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가 언어적 거리가 가까운데도 의외로 차이가 많음에 연어 학습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고 답하는 실험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가 이 실험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어 학습 시에 연어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연어 교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Ⅴ. 결론

연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창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다. 그러므로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연어 교육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 특히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적 거리가 가까운데도 연어를 이루는 단어의 공기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연어를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한국어 연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국내 및 일본에서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적인 관점에서 연어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설문 조사로 일본의 두 개의 대학교에서 네 번의 수업을 통해 연어 교육의 현황을 교재 2개, 학습자 51명, 교사 3명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여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의 연어 교육과 함께 연어 교육을 위한 충분한 연어 자료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초급 수준의 학습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출현도, 사용도가 높은 연어를 추출하여 총 2,482개가 수록된 연어 대표 목록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일본인 학습자의 사용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이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유형 분류하였다.

Ⅲ장에서는 연어 학습에 관한 설문지 및 연어 대표 목록에 수록된 연어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한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시험지를 통해 일본인 중·고급 학습자 42명의 연어 사용의 경향과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첫째, 중급 수준의 학습자는 연어 사용의 정확성 문제, 즉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동사 용법 차이, 한국어 동사 간의 용법 차이로 인하여 연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고급 학습자는 연어 사용의 다양성 문제, 즉 일본어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일본어에 없는 연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연어 사용과 연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 요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연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첫째, 연어 사용과 명시적인 연어 학습 및 어휘 학습 방법의 하나인 사

전 학습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명시적인 연어 학습과 실제 언어 현상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 연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어 사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은 전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 연어 사용의 두 가지 측면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첫째, 연어 사용의 다양성을 연어의 양적 능력, 연어 사용의 정확성을 연어의 질적 능력이라고 다시 정의하여 두 가지 연어 사용 능력 신장을 한국어 연어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목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연어의 양적 능력 신장, 연어의 질적 능력 신장과 함께 언어 학습에서의 연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연어 의식 고양 세 가지를 한국어 연어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셋째, 어휘 교육의 명시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다섯 개의 예시 활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Ⅱ장에서 마련한 연어 대표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도 기술하였다. 넷째, 일본의 대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를 활용하여 일본의 대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수업과 전공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두 가지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마련하였다. 또한 검증을 통해 연어 교수·학습 모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그간의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에 관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를 보충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연어를 다루지 못하였고, 어휘적 연어 중에서 주술연어와 목술 연어만 다루었다. 둘째,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연어 대표 목록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목표어인 한국어 동사의 형태,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한 연어 사용의 정확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학교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한 연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일본 대학교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자 료

(1) 주 자료

김하수 외(2007),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郭喜碩·河合紀子(2010), 文型で学ぶ韓国語 基礎編, NiDAコミュニケーション.

李昌圭(2006), 韓国語を学ぼう 初級 -文法と表現、文型と活用練習-, 朝日出版社.

(2) 보조 자료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황해익 외(2003), 영유아, 아동연구에서의 SPSS 자료분석, 창지사.

McKay, L. S.(2006), *Reserching Second Language Classroom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김영주 역(2009), 제2언어교실 연구방법론, 한국문화사.]

Nation, P.(1994), *New Ways in Teaching Vocabulary*,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nc.(TESOL).

金田一秀穂(2006), 知っておきたい日本語コロケーション辞典, 学習研究社.

国際交流基金(2011), 日本語教授法シリーズ 第3巻「文字·語彙を教える」, ひつじ書房.

2. 국내 논저

(1) 단행본

고석주 외(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김건환(1994), 대비언어학, 청록출판사.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진해(2000), 연어연구, 한국문화사.

나은미(2009), 연결주의 관점에서 본 어휘부와 단어 형성, 박이정.

이정모(1994),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 '94, 성원사.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월인.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2) 논 문

강현화(1998),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 연구 8-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91-224쪽.
강현화(2003), 김진해『연어(連語)』(2000) 다시 읽기, 형태론 5-2, 도서출판 박이정, 419-434쪽.
구본관(2011), 어휘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쪽.
김미옥(2003),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권별 어휘 오류 통계적 분석,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52쪽.
김선효(2010),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연어 학습 방안, 이중언어학 44, 이중언어학회, 25-47쪽.
김원경(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 방안, 한성어문학 29,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11-231쪽.
김지은(2010), 한국어 연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진해(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4, 한국어의미학회, 239-279쪽.
김진해(2000), 연어의 계열 관계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199-222쪽.
김진해(2006), 연어관계의 제자리 찾기-국내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제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229-260쪽.
나카가와 아키오(2010),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체언+용언}형 연어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53-288쪽.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連語)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217-250쪽.
성기철(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41-68쪽.
신자영(2005), 한국어 연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28, 이중언어학회, 185-203쪽.
야마시타 아이(2011), 일본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경모(1995), 동사와 명사의 결합에 관한 대조 고찰 -한국어와 일본어의 기능동사

결합을 가지고-, 언어학 17-1, 한국언어학회, 169-182쪽.
양수영(2008), 중·고급 학습자의 어휘적 연어 능력과 한국어 숙달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은성(2007), 외국어교육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連語의 대조연구 -「명사(조사)동사」형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연구소, 325-346쪽.
이승연·최은지(2007),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연어 사용 연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299-321쪽.
이영숙(1997), 어휘력과 어휘 지도 -어휘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25-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89-208쪽.
이치노미야 나오(2009), 한·일 連語 대조연구 -'명사+(조사)+동사'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희자(1994),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11-444쪽.
임근석(2001), 현대 국어의 어휘적 연어 연구, 사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병준(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교육, 한어문교육 1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97-112쪽.
임유종(2006), 연어의 개념과 범주 한정의 제 문제,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145-181쪽.
임팔용(1985), 現代 日本語 및 韓国語의 慣用表現考 -일본어에 있어서의『連語成句』를 中心으로 한 対照考察-, 일본연구 1,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연구소, 101-120쪽.
임흥빈(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국어학회, 279-320쪽.
조은영(2010), 어휘적 연어의 형성과 유추,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299-331쪽.
한송화·강현화(2004),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318쪽.
한영균(2009), 코퍼스를 기반한 한·일 기본어휘의 연어 구성 대조 분석 연구, 국어학 55, 국어학회, 55-103쪽.
허영임(2010), 한국어 교육용 연어 선정 연구 -[체언+용언]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외국 논저

(1) 서양

Brown, H. D.(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Third Edition*, Longman, [권오량 외 역(2010),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서의 상호작용적 접근법(제3판),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Brown, J. D.(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A Systematic Approach to Program Development*, Heinle and Heinle Publishers.

Carter, R.(1996), *Vocabulary: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 Routledge. [원명옥 역(1998), 어휘론의 이론과 응용, 한국문화사.]

Firth, J. R.(1957), *Paper in Linguistics 1934-1951*, Oxford University Press.

Gyllstad, H.(2009), Designing and Evaluating Test of Receptive Collocation Knowledge: COLLEX and COLLOMATCH, Barfield, A. and Gyllstad, H. (Eds.), *Researching Collocations in Another Language Multiple Interpretations*, Palgrave Macmillan, 153-170.

Hill, J.(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 Success. Lewis, M.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47-69.

Lewis, M.(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TL and a Way Forwar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ewis, M.(1997), Pedagogical Implications of Lexical Approach, Coady, J. and Huckin, T.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A Rationable for Pedag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ion, I. S. P.(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Heinle and Heinle Publishers.

Nation, I. S. 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awley, A. and Syder, F.(1983), Two Puzzles for Linguistic Theory: Native-like Selection and Native-like Fluency. Richards, J. and Schmidt, R.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Longman.

Schmitt, N.(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Sinclair, J.(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Woolard, G.(2000), Collocation-Encouraging Learner Independence. Lewis, M.(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28-46.

(2) 일본

秋元美晴(1993), 語彙教育における連語指導の意義について, PROCEEDINGS OF THE 4TH CONFERENCE ON SECOND LANGUAGE RESEARCH IN JAPAN, 国際大学.
小倉章(2007),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現在 -大学等の調査にみる現状と課題-, 野間秀樹(編), 韓国語教育論講座 第1巻, くろしお出版, 51-68.
野田尚史(2007), 文法的なコロケーションと意味的なコロケーション, 日本語学 26, 明治書院, 18-27.
野間秀樹·中島仁(2007),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歴史, 野間秀樹(編), 韓国語教育論講座 第1巻, くろしお出版, 69-93.
阪田雪子(1990), 連語·慣用句,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 7, 明治書院.
宮地裕(1977), 慣用句と連語成句, 日本語教育 33, 明治書院, 1-10.
三好裕子(2007), 連語による語彙指導の有効性の検討, 日本語教育学 134 日本語教育学会, 80-89.
村木新次郎(2007), コロケーションとは何か, 日本語学 26, 明治書院, 4-17.
山田進(2007), コロケーションの記述と名詞の意味分類, 日本語学 26, 明治書院, 48-57.

[부록] 설문지1: 한국어 연어 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학습자용)

アンケートの内容は匿名で処理し、集計した資料は韓国語教育学の修士論文にのみ使用されます。これは日本人学習者のための韓国語の語彙教育に関する研究のために行われます。このアンケートの目的は現在、日本の大学で韓国語を学習している日本人学習者の韓国語の語彙学習の内容及び方法を検討し、これからの韓国語の語彙教育の指針を示すところにあります。アンケートに参加される方々には一切の不利益及び利益はありません。氏名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このアンケートの所要時間は約10分ほどです。

***アンケートに関してご質問などありましたら、下記のメールアドレスにご連絡下さい。**

ソウル大学校師範大学国語教育科
韓国語教育学専攻(修士課程)
荻野晋作（おぎのしんさく）
E−mail: kusannshinogio@yahoo.co.jp

Ⅰ. 韓国語の学習に関する基本事項（*該当する番号に〇印をつけて下さい。）

1．韓国語の学習期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① 3ヶ月以下　② 3.1～6ヶ月　③ 6.1～9ヶ月　④ 9.1ヶ月～1年　⑤ 1.1年以上

*** 1.1年以上の場合、年数をお書きください。** _____年

2．韓国で勉強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語学研修、交換留学など)

① はい　② いいえ

3．授業以外で韓国語を学習していますか。**(授業の予習及び宿題を含む復習を除く)**

① はい　② いいえ

*** 「はい」と答えた方 →** 授業以外でどのように学習しているのかお書きください。

_____

例）韓国ドラマを見る、韓国の音楽を聴く、韓国人と交流する、語学学校に通うなど

4．韓国語の学習において**最も**難しいものは何ですか。

① 発音　　② 文法　　③ 語彙

5．韓国語の学習において**最も**重要だ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

① 発音　　② 文法　　③ 語彙

6．韓国語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最も**重要だ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

① 発音　　② 文法　　③ 語彙

7．韓国語をどのレベルまで学習したいですか。

① 初級(教養レベル)　② 中級(中間レベル)　③ 上級(専門レベル)　④ ネイティブ級

8．韓国語を学習しようとし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

_____

例）韓国や韓国文化が好きだから、 韓国人の友達がいるからなど

9．韓国語を学習する目的は何ですか。

_____

例）単位の取得、 趣味、 留学など

Ⅱ． 韓国語の語彙学習に関する事項（* 該当する番号に〇印をつけて下さい。）

１０．韓国語の語彙の中で**最も**難しいものは何ですか。

① 固有語　　② 漢字語　　③ 外来語

１１．教科書で新しい語彙が出た場合、その何を学習していま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意味　　② 用例(例文)　③ (その語彙と)一緒によく使われる語彙
④ 慣用句、ことわざなど　　⑤ その他_____

１２．語彙をどのような方法で学習していま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教師の説明を聞く　② 辞書を引く　③ ノートに書く
④ 何回も言ったり、見たりする　⑤ その他＿＿＿＿＿＿＿＿＿＿＿＿

１３．教科書で扱う語彙以外の語彙やその語彙を使った表現を学習していますか。

① はい　② いいえ

＊**「はい」と答えた方 →** 教科書以外でどのように学習しているのかお書きください。

＿＿＿＿＿＿＿＿＿＿＿＿＿＿＿＿＿＿＿＿＿＿＿＿＿＿＿＿＿＿＿＿＿＿

例）韓国ドラマを見る、韓国の音楽を聴く、韓国人と交流するなど

１４．次のうち、1つずつ単語で覚えるより短い文で覚えたほうが韓国語での表現の誤りを防いだり、日本語にはない韓国語独特の表現を効果的に習得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日本語と同じ表現
例）학교에 가다(学校に行く)

② 日本語と異なる表現(名詞)
例）기차를 내리다(汽車を降りる)
→ 韓国語で「汽車」は日本語の「電車」の意味で使用されている

③ 日本語と異なる表現(助詞)
例）가족을 만나다(家族を会う) → 가족에 만나다(家族に会う)は誤り

④ 日本語と異なる表現(動詞)
例）골프를 치다(ゴルフを打つ) → 골프를 하다(ゴルフをする)は誤り
계단을 내려가다(階段を下りていく) → 계단을 내리다(階段を下りる)は誤り

⑤ 日本語にはない表現
例）결정을 보다(決定を見る → 「決定する」の意味)
자동차가 서다(自動車が立つ →「自動車が止まる」の意味)

１５．１回の授業(90分)で新しい語彙は何個ぐらい扱うのが適当だと思いますか。

① 5個以下　　② 6～10個　　③ 11～15個　　④ 16～20個　　⑤ 21個以上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부록] 설문지2: 한국어 연어 교수에 관한 설문 조사(교사용)

アンケートの内容は匿名で処理し、集計した資料は韓国語教育学の修士論文にのみ使用されます。これは日本人学習者のための韓国語の語彙教育に関する研究のために行われます。このアンケートの目的は現在、日本の大学で韓国語を教授している韓国語教師の韓国語の語彙教授の内容及び方法を検討し、これからの韓国語の語彙教育の指針を示すところにあります。アンケートに参加される方々には一切の不利益及び利益はありません。氏名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このアンケートの所要時間は約10分ほどです。

***アンケートに関してご質問などありましたら、下記のメールアドレスにご連絡下さい。**

ソウル大学校師範大学国語教育科
韓国語教育学専攻(修士課程)
荻野晋作（おぎのしんさく）
E−mail: kusannshinogio@yahoo.co.jp

Ⅰ. 韓国語の教授に関する基本事項（*該当する番号に〇印をつけて下さい。）

1．韓国語の教育歴はどのくらいですか。

_____ 年

2．韓国で勉強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日本人教師のみ)

① はい　　② いいえ

3．授業以外で韓国語を学習していますか。**(授業の予習及び宿題を含む復習を除く)**

① はい　　② いいえ

*** 「はい」と答えた方 →** どのような形で留学したのかお書きください。

_____

例）語学留学、交換留学、正規留学など

4．韓国語の教授において**最も**難しいものは何ですか。

① 発音　　② 文法　　③ 語彙

5．韓国語の教授において**最も**重要だ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

① 発音　　② 文法　　③ 語彙

6．韓国語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最も**重要だ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

① 発音　　② 文法　　③ 語彙

Ⅱ． 韓国語の語彙教授に関する事項（* 該当する番号に〇印をつけて下さい。）

7．韓国語の語彙の中で**最も**重要なものは何ですか。

① 固有語　　② 漢字語　　③ 外来語

8．教科書で新しい語彙が出た場合、その何を教えていま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意味　　② 用例(例文)　③ (その語彙と)一緒によく使われる語彙
④ 慣用句、ことわざなど　　⑤ その他＿＿＿＿＿＿＿＿＿＿＿＿

9．語彙をどのような方法で教えていま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教師の説明する　　② 辞書を引かせる　　③ ノートに書かせる
④ 何回も言ったり、見たりさせる　⑤ その他＿＿＿＿＿＿＿＿＿＿＿＿

１０．教科書で扱う語彙以外の語彙やその語彙を使った表現を教えていますか。

① はい　　② いいえ

＊「はい」と答えた方 → 教科書以外でどのように学習しているのかお書きください。

＿＿＿＿＿＿＿＿＿＿＿＿＿＿＿＿＿＿＿＿＿＿＿＿＿＿＿＿＿＿

例）副教材を使う、韓国ドラマを見させる、韓国の音楽を聴かせるなど

１１．次のうち、1つずつ単語で覚えるより短い文で覚えたほうが韓国語での表現の誤りを防いだり、日本語にはない韓国語独特の表現を効果的に習得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日本語と同じ表現
例）학교에 가다(学校に行く)

② 日本語と異なる表現(名詞)
例）기차를 내리다(汽車を降りる)
→ 韓国語で「汽車」は日本語の「電車」の意味で使用されている

③ 日本語と異なる表現(助詞)
例）가족을 만나다(家族を会う) → 가족에 만나다(家族に会う)は誤り

④ 日本語と異なる表現(動詞)
例）골프를 치다(ゴルフを打つ) → 골프를 하다(ゴルフをする)は誤り
계단을 내려가다(階段を下りていく) → 계단을 내리다(階段を下りる)は誤り

⑤ 日本語にはない表現
例）결정을 보다(決定を見る → 「決定する」の意味)
자동차가 서다(自動車が立つ →「自動車が止まる」の意味)

１２．１回の授業(90分)で新しい語彙は何個ぐらい扱うのが適当だと思いますか。

① 5個以下　② 6～10個　③ 11～15個　④ 16～20個　⑤ 21個以上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부록] 설문지3: 한국어 연어 사용에 관한 설문 조사

アンケートの内容は匿名で処理し、集計した資料は韓国語教育学の修士論文にのみ使用されます。これは日本人学習者のための韓国語の語彙教育に関する研究のために行われます。このアンケートの目的は日本人学習者の韓国語の語彙能力を調査することで、これからの韓国語の語彙教育の指針を示すところにあります。アンケートに参加される方々には一切の不利益及び利益はありません。氏名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このアンケートの所要時間は約30分ほどです。

***アンケートに関してご質問等がありましたら、下記のメールアドレスにご連絡下さい。**

ソウル大学校師範大学国語教育科
韓国語教育学専攻(修士課程)
荻野晋作（おぎのしんさく）
E−mail: kusannshinogio@yahoo.co.jp

Ⅰ. 韓国語の学習に関する基本事項（*該当する番号に〇印をつけて下さい。）

1．日本での韓国語の学習期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① 3ヶ月以下　② 3.1～6ヶ月　③ 6.1～9ヶ月　④ 9.1ヶ月～1年　⑤ 1.1年以上

＊1.1年以上の場合、年数をお書きください。 _____年

2. 韓国での韓国語の学習期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① 3ヶ月以下　② 3.1～6ヶ月　③ 6.1～9ヶ月　④ 9.1ヶ月～1年　⑤ 1.1年以上

＊1.1年以上の場合、年数をお書きください。 _____年

3．韓国での韓国語の滞在期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① 3ヶ月以下　② 3.1～6ヶ月　③ 6.1～9ヶ月　④ 9.1ヶ月～1年　⑤ 1.1年以上

＊1.1年以上の場合、年数をお書きください。 _____年

4．TOPIKは何級ですか。

① TOPIK 3級　② TOPIK 4級　③ TOPIK 5級　④ TOPIK 6級

5．教科書で新しい語彙が出た場合、その語彙の何を学習していま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意味　② 用例(例文)　③（その語彙と)一緒によく使われる語彙
④ 慣用句、ことわざなど　⑤ その他＿＿＿＿＿＿＿＿＿＿

6．韓国語の語彙をどのような方法で学習していますか。**(複数回答可能)**

① 教師の説明を聞く　② 辞書を引く　③ ノートに書く
④ 何回も言ったり、見たりする　⑤ その他＿＿＿＿＿＿＿＿＿＿

Ⅰ.Test by COLLEX item

				a	b	c
1.	a. 해가 뜨다	b. 해가 나가다	c. 해가 오르다			
2.	a. 손이 걸리다	b. 손이 가다	c. 손이 들다			
3.	a. 공기를 먹다	b. 공기를 피우다	c. 공기를 마시다			
4.	a. 희망이 일어나다	b. 희망이 생기다	c. 희망이 태어나다			
5.	a. 비용이 들다	b. 비용이 걸리다	c. 비용이 나다			
6.	a. 커피를 넣다	b. 커피를 타다	c. 커피를 짓다			
7.	a. 고장을 치다	b. 고장을 시키다	c. 고장을 내다			
8.	a. 지도를 짓다	b. 지도를 그리다	c. 지도를 쓰다			
9.	a. 책을 덮다	b. 책을 닫다	c. 책을 감다			
10.	a. 사실을 토하다	b. 사실을 불다	c. 사실을 내다			
11.	a. 인기를 부르다	b. 인기가 오다	c. 인기를 끌다			
12.	a. 종이를 꺾다	b. 종이를 접다	c. 종이를 개다			
13.	a. 값을 깎다	b. 값을 자르다	c. 값을 당기다			
14.	a. 약을 마시다	b. 약을 먹다	c. 약을 피우다			
15.	a. 택시를 줍다	b. 택시를 받다	c. 택시를 잡다			
16.	a. 머리를 씻다	b. 머리를 감다	c. 머리를 닦다			
17.	a. 냄새가 나다	b. 냄새가 하다	c. 냄새가 나오다			
18.	a. 약속을 찢다	b. 약속을 깨다	c. 약속을 부수다			

				a	b	c
19.	a. 사전을 당기다	b. 사전을 끄다	c. 사전을 찾다			

				a	b	c
20.	a. 싸움을 받다	b. 싸움을 걸다	c. 싸움을 사다			

Ⅱ. Test by COLLMATCH item

1. 효과를 보다	☐ yes	☐ no		16. 차가 서다	☐ yes	☐ no	
2. 취미를 붙이다	☐ yes	☐ no		17. 신문을 찍다	☐ yes	☐ no	
3. 구경을 다니다	☐ yes	☐ no		18. 결과를 짓다	☐ yes	☐ no	
4. 전쟁이 나다	☐ yes	☐ no		19. 관심을 두다	☐ yes	☐ no	
5. 자리를 뜨다	☐ yes	☐ no		20. 계획을 잡다	☐ yes	☐ no	
6. 시간을 끌다	☐ yes	☐ no		21. 습관이 들다	☐ yes	☐ no	
7. 사고를 치다	☐ yes	☐ no		22. 영화가 뜨다	☐ yes	☐ no	
8. 안경을 끼다	☐ yes	☐ no		23. 전기가 나가다	☐ yes	☐ no	
9. 방송을 타다	☐ yes	☐ no		24. 관계를 짓다	☐ yes	☐ no	
10. 맛이 오다	☐ yes	☐ no		25. 추위를 지다	☐ yes	☐ no	
11. 부탁을 돌리다	☐ yes	☐ no		26. 시험을 치다	☐ yes	☐ no	
12. 병이 들다	☐ yes	☐ no		27. 계저를 타다	☐ yes	☐ no	
13. 시계를 차다	☐ yes	☐ no		28. 결정을 보다	☐ yes	☐ no	
14. 기회를 타다	☐ yes	☐ no		29. 귀가 먹다	☐ yes	☐ no	
15. 방향을 잡다	☐ yes	☐ no		30. 자신이 앉다	☐ yes	☐ no	

[부록] 한국어 연어 대표 목록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1. 가게	가 쉬다 를 나서다, 내다, 닫다, 보다, 얻다, 열다, 차리다, 찾다, 하다				
2. 가구 (家具)	를 갖추다, 놓다 모으다, 사다				
3. 가슴	이 나오다, 막히다 을 누르다, 열다, 치다, 펴다		이 뛰다 (弾む)		
4. 가을	이 끝나다, 되다 오다, 지나가다, 지나다 을 기다리다, 알리다				이 가다 (過ぎる) 를 타다 (弱い)
5. 가정 (家庭)	이 건강하다, 되다 를 갖다, 만들다, 버리다, 위하다, 이루다, 지키다				를 꾸미다 (持つ)
6. 감정 (感情)	이 나타나다 을 나누다, 누르다, 느끼다, 다치다, 읽다			을 풀다 (怒りを鎮める)	이 오다 (感じる)
7. 값	이 내리다 떨어지다, 오르다 을 내리다		이 나가다 (高い) 뛰다 (跳ね上がる) 을 부르다 (言う)	을 깎다 (値切る)	을 잡다, (見積もる) 치다 (つける)
8. 강 (江)		강(川)이 흐르다 을 건너다, 끼다, 넘다			
9. 강아지	를 기르다, 낳다, 안다, 키우다				
10. 개	가 미치다 를 기르다, 잡다,				

	키우다				
11. 거리	를 가다, 걷다, 다니다, 지나다				
12. 걱정	이 되다, 들다, 사라지다 을 끼치다, 하다		이 쌓이다 (溜まる)		이 들다 (する)
13. 건강 (健康)	을 위하다, 잃다, 지키다				을 버리다 (損なう)
14. 건물 (建物)	이 나타나다, 보이다, 서다 을 돌아가다, 만들다, 보다, 사다, 세우다, 짓다				
15. 겁 (怯)				이 나다 (怖くなる) 을 내다 (怖くなる)	을 먹다 (怖くなる)
16. 겨울	이 돌아오다, 되다, 오다, 지나다 을 겪다, 견디다, 보내다, 지내다				이 가다 (過ぎる) 을 나다 (過ごす)
17. 결과 (結果)	가 나오다, 나타나다, 보이다 를 걱정하다, 기다리다, 나타내다, 낳다, 내다, 만들다, 보다, 보이다, 알다, 알리다, 얻다				
18. 결정 (決定)	을 내리다, 하다				을 보다, (する) 짓다 (する)
19. 결혼 (結婚)	을 시키다, 하다				
20. 경기 (競技)	가 끝나다, 열리다 를 끝내다, 마치다, 이기다,				

	일으키다, 하다				
21. 경제 (經濟)	를 걱정하다				
22. 경찰 (警察)	이 지키다 을 부르다				이 뜨다 (現れる)
23. 경치 (景致)		경치(景色) 를 보다			
24. 계절 (季節)	이 가다, 돌아오다, 되다, 오다				를 타다 (弱い)
25. 계획 (計劃)	을 꾸미다, 바꾸다, 서두르다, 세우다, 옮기다				을 잡다 (立てる) 이 잡히다 (立つ)
26. 고개 (坂)	를 넘다				
27. 고기	가 익다, 타다 를 굽다, 나누다, 먹다, 사다, 익히다, 팔다				
28. 학교 (學校)	를 가다, 나오다, 다니다, 마치다				
29. 고생 (苦生)		고생(苦労)을 견디다, 끝내다, 모르다, 하다			
30. 고양이	를 기르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키우다				
31. 고장 (故障)				이 나다 (故障する) 을 내다 (故障させる)	
32. 고향 (故鄕)	을 그리다, 다녀오다, 떠나다, 버리다, 사랑하다, 잃다, 잊다, 향하다				을 뜨다, (離れる) 찾다 (訪れる)
33. 곰	을 잡다				
34. 공기	가 들어가다,		을 마시다		

(空氣)	들어오다, 차다, 통하다, 흐르다 를 넣다		(吸う)		
35. 공부 (工夫)		공부(勉強)가 끝나다, 되다, 들어가다, 모자라다, 를 가르치다, 마치다, 못하다, 시키다, 하다		공부를 잘하다 (勉強が出来る)	
36. 공장 (工場)	이 생기다, 서다, 움직이다 을 다니다, 세우다, 옮기다, 짓다				이 돌아가다 (稼働する) 을 돌리다, (稼働する) 움직이다 (経営する)
37. 공책 (空冊)		공책(ノート) 을 꺼내다, 넣다		공책을 덮다, (ノートを閉じる) 펴다 (ノートを開く)	
38. 과거 (過去)	를 묻다, 잊어버리다				
39. 과일	이 익다 을 담다, 따다, 먹다, 사다		를 깎다 (剥く)		이 열리다 (実る)
40. 과자 (菓子)	를 굽다, 만들다, 먹다, 사다, 팔다				
41. 관계 (關係)	가 끝나다, 변하다 를 끝내다, 보이다, 이루다				을 짓다 (結ぶ)
42. 관심 (關心)	이 생기다 을 끌다, 모으다, 보이다, 주다		을 나타내다 (示す)		을 두다, (持つ) 돌리다 (向ける) 이 가다 (寄せる)
43. 광고 (廣告)	가 나가다, 나다, 나타나다, 담다, 붙다				

	를 내다, 만들다, 보다, 찍다, 하다				
44. 교과서 (教科書)	가 되다 를 만들다, 배우다, 쓰다, 읽다				
45. 교수 (教授)	가 되다 를 하다				
46. 교실 (教室)	을 열다				을 꾸미다 (作る)
47. 교육 (教育)	을 맡다, 받다, 시키다, 하다				
48. 교통 (交通)				이 막히다 (渋滞する)	
49. 구경	이 나다 을 가다, 나서다, 나오다, 시키다, 오다, 즐기다, 하다				을 다니다 (行く)
50. 구두	가 맞다 를 닦다, 벗다, 신다				가 끼다 (小さい) 를 맞추다 (新調する)
51. 구름	이 되다, 보이다, 흐르다		이 끼다 (かかる)		
52. 국	이 끓다 을 끓이다, 마시다				을 뜨다, (掬う) 먹다 (飲む)
53. 국가 (國家)	를 사랑하다, 움직이다, 이루다				
54. 국민 (國民)	을 향하다				
55. 군대 (軍隊)	가 돌아가다, 지키다 를 다녀오다, 보내다, 움직이다				를 풀다 (動員する)
56. 귀	가 막히다, 서다 를 막다, 만지다, 세우다				가 먹다 (遠い)

57. 규칙 (規則)	을 만들다, 모르다, 바꾸다, 정하다, 지키다				
58. 그릇	이 되다 을 굽다, 깨다, 닦다, 만들다, 씻다, 주다				
59. 그림	이 걸리다 을 걸다, 보다, 붙이다, 사다, 좋아하다, 즐기다, 팔다		을 그리다 (描く、書く)		
60. 극장 (劇場)	을 세우다, 열다, 짓다, 찾다		을 잡다 (押さえる)		
61. 글	을 가르치다, 보다, 쓰다, 읽다, 적다, 짓다			을 끝내다, (書き納める) 옮기다 (引用、翻訳する)	
62. 글씨	를 쓰다				
63. 글자	를 넣다, 따다, 배우다, 쓰다, 알다, 읽다, 치다				
64. 기계 (機械)	가 만들다, 움직이다 를 고치다, 만들다, 모르다, 쓰다, 움직이다				가 돌다, (稼働する) 돌아가다, (稼働する) 서다, (止まる) 자다, (止まる) 죽다 (止まる) 를 돌리다, (稼働させる) 세우다 (止める)
65. 기름	이 나다, 뜨다, 묻다, 흐르다 을 넣다, 먹다, 바르다, 붓다		이 떨어지다 (切れる) 을 치다 (差す)		이 끼다 (つく) 을 걷다 (除去する)

66. 기분 (氣分)	이 생기다 을 느끼다	기분(感じ)을 내다	이 들다, (なる) 나다 (する) 을 풀다, (良くする)	을 맞추다 (ご機嫌をとる)	
67. 기사 (記事)	가 나가다, 나다, 나오다 를 내다, 보다, 쓰다, 읽다				
68. 기술 (技術)	을 가르치다, 배우다				을 익히다 (学ぶ)
69. 기온 (氣溫)	이 떨어지다				
70. 기차 (汽車)		기차(電車)가 가다, 다니다, 달리다, 돌아가다, 오다, 움직이다 를 내다, 내리다, 타다			가 서다 (止まる)
71. 기회 (機會)	가 돌아오다, 보이다, 생기다, 오다 를 드리다, 만들다, 보다, 얻다, 잡다, 주다				가 돌아가다 (得る), 를 타다 (乘る)
72. 길	이 끝나다, 막히다, 만나다, 맞다, 보이다, 생기다, 을 가다, 건너다, 걷다, 나서다, 다니다, 달리다, 돌아가다, 막다, 멈추다, 모르다, 묻다, 버리다, 알다, 열다,		을 잃다 (迷う)	을 떠나다 (旅立つ)	이 나다 (できる) 을 내다, (作る) 닦다, (作る) 익히다 (学ぶ)

	지나가다, 지나다, 찾다				
73. 김치	가 익다, 를 먹다, 익히다				
74. 까닭	을 묻다				
75. 꽃	이 달리다, 뜨다, 지다, 피다, 을 그리다, 기르다, 들다, 따다, 보다, 사다, 심다, 팔다, 피우다				
76. 꿈	을 그리다, 버리다, 이루다, 잃다, 찾다, 키우다, 펴다				
77. 끝	이 보이다			이 나다 (終わる) 을 내다 (終わらせる)	을 맺다 (終わる)
78. 나라	가 돌아가다, 되다, 생기다, 서다, 이기다 를 구하다, 돌다, 만들다, 버리다, 사랑하다, 세우다, 움직이다, 잃다, 지키다, 찾다, 팔다				를 치다 (攻撃する)
79. 나무	가 서다, 자라다, 를 깎다, 보다, 사랑하다, 심다, 쌓다, 옮기다, 자르다, 키우다, 팔다				가 타다 (燃える) 를 타다, (登る) 찍다, (切る) 하다 (切りにいく)
80. 나이	를 묻다		가 들다 (とる)	가 차다 (年ごろになる)	를 먹다 (とる)
81. 날	이 돌아오다,				이 잡히다

	오다, 지나가다 을 정하다				(決まる) 을 잡다 (決める)
82. 날씨	가 변하다				
83. 날짜	가 남다, 되다, 모자라다 를 기다리다, 맞추다, 정하다				가 잡히다 (決まる) 를 받다, (決める) 잡다 (決める)
84. 남자 (男子)		남자(男)를 만나다, 보내다, 부르다, 사랑하다, 잡다			를 차다 (振る)
85. 내용 (內容)	이 나오다, 들어가다, 붙다, 을 꾸미다, 담다, 바꾸다, 옮기다, 적다				
86. 내일 (來日)		내일(明日)을 열다, 향하다			
87. 냄새	가 묻다 를 느끼다, 맡다, 싫어하다		가 나다 (する)		
88. 노래	가 끝나다, 나오다 를 가르치다, 그치다, 듣다, 만들다, 멈추다, 못하다			를 부르다 (歌う)	가 뜨다 (ヒットする) 를 짓다 (作る)
89. 노력 (努力)	이 보이다 을 하다		이 묻다 (滲む)		
90. 놀이	가 끝나다 를 좋아하다, 줄기다, 하다			를 놀다 (遊ぶ)	
91. 눈 (目)	이 가다, 돌다, 들어가다, 맞다, 붓다 을 끌다,		을 감다, (閉じる) 뜨다 (開ける)		을 팔다, (離す) 돌리다 (向ける)

	맞추다, 붙이다				
92. 눈 (雪)	이 그치다, 내리다, 떨어지다, 쌓이다, 차다				이 오다 (降る)
93. 눈물	이 나다, 나오다, 흐르다, 그치다 을 닦다, 보이다, 흘리다				
94. 뉴스	가 끝나다, 나가다, 나오다 를 끝내다, 듣다, 마치다, 말하다, 보다, 전하다				
95. 능력 (能力)	이 모자라다, 미치다, 생기다, 자라다 을 기르다, 나타내다, 보다, 보이다, 잃다, 주다, 지니다, 키우다				
96. 다리(足)	가 달리다 를 내리다, 다치다, 들다, 만지다, 물다, 쓰다, 움직이다, 펴다				를 풀다 (伸ばす)
97. 다리(橋)	를 건너다		를 놓다 (架ける)		
98. 단어	를 쓰다, 찾다				
99. 달	이 걸리다, 되다, 지나가다, 지나다, 지다		이 뜨다 (昇る)		
100. 닭	이 울다 을 잡다				을 치다 (飼育する)
101. 담배	를 꺼내다, 끄다, 끊다, 물다, 배우다, 얻다, 잡다, 피우다		가 떨어지다 (なくなる)		

102. 대답 (對答)		대답(返事)을 기다리다, 못하다, 얻다, 하다		대답이 떨어지다 (返事が出る)	
103. 대학생 (大學生)	이 되다				
104. 대화 (對話)	를 나누다, 듣다, 열다, 하다				
105. 도둑	이 들다, 들어오다, 잡히다 을 만나다, 잡다				을 맞다 (会う)
106. 도서관 (圖書館)	을 열다				
107. 도시 (都市)	가 생기다, 태어나다, 를 다니다, 돌다, 떠나다, 만들다, 세우다, 찾다				
108. 독서 (讀書)	를 즐기다, 하다				
109. 돈	이 남다, 돌다, 돌아오다, 들어가다, 돌아오다, 모이다, 생기다 을 가져오다, 가지다, 걸다, 구하다, 꺼내다, 나누다, 남기다, 내다, 넣다, 따다, 만들다, 만지다, 모으다, 바꾸다, 받다, 보내다, 붓다, 빌리다, 쓰다, 알다, 얻다, 잃다, 전하다, 주다, 줍다		이 들다, (かかる) 떨어지다 (なくなる)		을 꾸다, (借りる) 걷다, (集める) 찾다, (引き出す) 물다, (支払う) 풀다 (撒く)
110. 돌	이 나오다				

	을 깎다, 맞다, 쌓다, 줍다, 차다, 치다				
111. 동네	가 나타나다, 생기다 를 돌다, 떠나다, 만들다, 이루다				를 뜨다 (離れる)
112. 동물 (動物)	이 잡히다 을 기르다, 물다, 사랑하다, 잡다				
113. 돼지	를 기르다, 잡다				를 치다 (飼育する)
114. 뒤	를 잇다, 지나다				
115. 등(背)	이 굽다, 타다 을 만지다, 붙이다		을 치다 (叩く)		이 타다 (焼ける)
116. 땀	이 나다, 흐르다 을 내다, 닦다, 씻다, 흘리다				
117. 땅	이 나다, 을 가지다, 고르다, 나누다, 떠나다, 보다, 빌리다, 사다, 차다, 찾다, 치다, 팔다, 향하다				
118. 때(時)	가 오다, 이르다, 차다 를 기다리다, 맞추다, 보다				를 잡다 (見る)
119. 떡	이 팔리다				
120. 뜻	을 가지다, 담다	을 버리다, 이루다		뜻을 펴다 (志を遂げる)	
121. 라디오	가 나오다 를 고치다, 끄다, 듣다, 켜다				
122. 마을	이 나타나다, 보이다 을 돌다, 이루다,				을 뜨다 (離れる)

	지키다, 향하다				
123. 마음	이 담기다, 떠나다, 뜨다, 변하다, 사라지다, 열리다, 통하다 을 가지다, 끌다, 나누다, 누르다, 다치다, 담다, 맞추다, 바꾸다, 버리다, 알다, 열다, 움직이다, 읽다, 잡다, 전하다, 정하다	마음(気) 이 나다 을 쓰다	을 고치다, (入れ替える) 얻다 (惹きつける)	이 들다, (気が向く) 타다 (気が揉める) 을 사다, (好感与える) 놓다, (安心する) 먹다 (決心する)	
124. 말	이 가다, 끝나다, 나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을 가르치다, 기다리다, 꾸미다, 끊다, 끝내다, 남기다, 내다, 막다, 만들다, 멈추다, 모르다, 묻다, 바꾸다, 받다, 배우다, 빌리다, 시키다, 잃다, 잇다, 잊다, 잊어버리다, 자르다, 잘하다, 하다, 흘리다	말(声)을 걸다		을 못하다 (物を言えない)	을 익히다 (学ぶ)
125. 말씀	이 끝나다, 나오다 을 나누다, 남기다, 드리다, 듣가, 읽다, 전하다, 하다				
126. 맛	이 떨어지다		이 나다,		이 가다,

	을 내다, 느끼다, 모르다, 보다, 살리다, 알다, 주다, 즐기다		(する) 들다 (つく)		(落ちる) 죽다 (落ちる) 을 잃다 (落とす)
127. 맥주 (麥酒)		맥주(ビール) 를 가져오다, 들다, 마시다		가 떨어지다 (ビールが切れる)	
128. 머리	가 달리다, 죽다 를 깎다, 기르다, 끊다, 다치다, 만지다, 세우다, 자르다, 치다, 풀다, 하다, 흔들다		를 기르다, (伸ばす) 감다, (洗う) 맞다 (殴られる)		
129. 멋			이 나다 (つく) 을 내다 (つける)		
130. 며칠	이 걸리다, 되다, 지나다, 흐르다 을 견디다, 기다리다, 남기다, 보내다, 살다, 지내다				을 가다 (過ぎる)
131. 모습	이 나타나다, 변하다, 보이다, 사라지다, 잡히다 을 가지다, 그리다, 바꾸다, 보다, 보이다, 잡다, 찍다				을 담다 (写真などに 姿を写す)
132. 모양 (模樣)	을 만들다, 바꾸다, 보다, 이루다, 하다			이 나다 (格好がつく) 을 내다 (格好をつける)	을 잡다 (決める)
133. 목	이 가다, 막히다, 붓다, 움직이다				

134. 목소리	가 변하다 를 가지다, 내다, 듣다		가 나다 (する) 를 꾸미다 (作る)		
135. 목적 (目的)	이 되다 을 가지다, 두다, 바꾸다, 밝히다, 세우다, 이루다, 잃다, 정하다				
136. 몸	이 되다, 뜨다, 붓다 을 가리다, 만지다, 세우다, 씻다, 움직이다, 일으키다, 풀다, 흔들다		을 이기다 (支える)	이 끓다 (熱が出る) 을 돌리다 (向きを変える)	
137. 문 (門)		문(扉)이 달리다, 열리다 을 닫다, 세우다, 열다, 지키다		을 따다 (扉を開ける)	
138. 문장 (文章)	을 고치다, 읽다				
139. 문제 (問題)	가 나오다, 남다, 되다, 생기다, 일어나다 를 남기다, 낳다, 내다, 보다, 일으키다, 풀다				
140. 물	이 끓다, 나오다, 담기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떨어지다, 묻다, 차다, 흐르다 을 가져오다, 건너다, 끓이다, 넣다, 닦다, 담다, 마시다,				이 불다 (増える) 을 뜨다, (掬う) 먹다 (飲む)

	받다, 보내다, 불다, 쓰다, 얻다, 주다				
141. 물건 (物件)		물건(物)이 나가다, 나오다, 남다, 담기다, 모이다, 사라지다, 쌓이다, 잡히다, 차다, 팔리다 을 고르다, 구하다, 꺼내다, 두다, 들다 만지다, 맡기다, 바꾸다, 보내다, 사다, 쓰다, 잡다, 찾다, 팔다			
142. 바다	를 가리키다, 건너다, 떠나다, 사랑하다, 이루다, 향하다				
143. 바닷가	를 달리다, 떠나다				
144. 바람	이 그치다, 들어오다, 불다, 일어나다 을 견디다, 막다, 만나다, 맞다, 받다, 일으키다, 타다			을 피우다 (浮気する)	이 죽다 (止む)
145. 바지	가 떨어지다 를 벗다		를 입다 (履く)		를 걷다 (捲くる)
146. 밖	을 나가다, 보다, 향하다				
147. 반 (班)	이 되다 을 나누다,				

	만들다, 바꾸다				
148. 반 (半)		반(半分) 이 남다 을 넘다			
149. 반대 (反對)	를 하다				
150. 발	을 닦다, 들다, 묻다, 씻다, 옮기다, 움직이다		을 걸다 (すくう)	을 맞추다 (足並みを揃える)	이 달리다 (付く)
151. 발음 (發音)	을 못하다				
152. 발전 (發展)	를 가져오다, 이루다, 하다				
153. 밤 (夜)	이 오다 을 보내다, 지내다				
154. 밥	이 남다, 담기다, 되다 을 가져오다, 남기다, 담다, 먹다, 사다, 얻다, 주다, 차리다				이 타다, (焦げる) 쉬다 (すえる) 을 뜨다, (よそう) 짓다 (炊く)
155. 방 (房)		방(部屋)이 달리다, 차다 을 구하다, 꾸미다, 나가다, 나오다, 놓다, 닦다, 빌리다, 쓰다, 얻다, 옮기다, 잡다		이 나가다 (部屋がない)	
156. 방법 (方法)	을 가르치다, 바꾸다, 배우다, 빌리다, 쓰다, 알다, 알리다, 찾다, 취하다				을 익히다 (学ぶ)
157. 방송 (放送)	이 나가다				을 타다 (出る)

					내다 (する)
158. 방학 (放學)		방학(休み)이 끝나다, 되다, 지나다 을 끝내다, 보내다		을 맞다 (休みを迎える)	
159. 방향 (方向)	을 가리키다, 모르다, 바꾸다, 잃다, 찾다				이 잡히다 (決まる) 을 돌리다, (変える) 잡다 (決める)
160. 밭	을 가지다				
161. 배 (腹)	가 나오다 를 만지다		가 부르다 (一杯だ)		
162. 배 (船)	가 가다, 다니다, 달리다, 떠나다, 뜨다, 오다, 움직이다 를 타다				
163. 배 (梨)	를 따다		를 깎다 (剥く)		가 열리다 (実る)
164. 버릇	이 생기다 을 가르치다, 고치다, 버리다		이 들다 (つく)		
165. 버스	가 가다, 달리다, 돌아가다, 떠나다, 멈추다, 오다, 움직이다, 지나가다 를 기다리다, 세우다, 잡다, 타다				
166. 번호 (番號)	가 맞다 를 누르다, 맞추다, 붙이다, 알다, 알리다, 잊어버리다, 정하다		를 부르다 (言う)		
167. 법	을 고치다,				

(法)	만들다, 지키다				
168. 변화 (變化)	가 나타나다, 일어나다 를 가져오다, 겪다, 견디다, 느끼다, 보이다, 주다				
169. 별	을 따다		이 뜨다 (出る)		
170. 병 (病)	이 낫다, 되다, 생기다, 옮다 을 고치다, 달다, 옮기다, 이기다, 일으키다, 얻다				이 들다, (なる) 나다 (なる)
171. 병원 (病院)	을 다녀오다, 다니다, 차리다, 찾다				
172. 봄	이 돌아오다, 되다, 오다 을 기다리다, 맞다				이 가다 (過ぎる) 을 타다 (弱い)
173. 부모 (父母)		부모(両親)를 떠나다, 버리다, 위하다			
174. 부분 (部分)	을 이루다				
175. 부엌	을 고치다				이 달리다 (つく)
176. 부자 (富者)		부자(お金持ち)가 되다			
177. 부탁 (附託)		부탁(お願い) 을 드리다, 듣다, 하다		을 자르다 (お願いを断る)	
178. 불	이 나다, 붙다, 일어나다 을 끄다, 내다, 넣다, 붙이다, 켜다, 피우다				이 살다, (つく) 죽다 (消える) 을 놓다, (つける) 피우다

					(起こす)
179. 비 (雨)	가 그치다, 내리다, 멈추다, 를 기다리다, 내리다, 만나다, 맞다				가 오다 (降る)
180. 비밀 (秘密)	을 가지다, 밝히다, 알다, 지키다, 풀다				
181. 비용 (費用)	이 들어가다, 을 깎다, 물다, 쓰다		이 들다 (かかる)		이 달리다 (足りない)
182. 비행기 (飛行機)	가 가다, 돌아가다, 오다, 지나가다 를 타다				가 뜨다 (飛ぶ)
183. 빛	이 되다 들어오다, 보이다, 사라지다, 흐르다 을 내다, 띠다, 받다, 보이다, 잃다			이 나다 (光る)	
184. 빨래	를 하다		가 쌓이다 (溜まる) 를 걷다 (取り込む)		
185. 빵	를 굽다, 나누다, 만들다, 먹다, 사다, 자르다				
186. 사과 (謝過)		사과(謝罪)를 드리다, 받다, 하다			
187. 사과 (沙果)		사과(林檎)를 따다, 먹다, 자르다	를 깎다 (剥く)		가 달리다, (実る) 열리다 (実る)
188. 사람	이 나타나다, 돌아가다, 되다, 뜨다, 묻다,				을 풀다, (動員する) 찍다

	변하다, 보이다, 서다, 잡히다, 차다, 팔리다 을 고르다, 구하다, 기르다, 끌다, 두다, 만나다, 만들다, 물다, 믿다, 보내다, 부르다, 붙이다, 사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쓰다, 알다, 움직이다, 좋아하다, 치다, 팔다				(選ぶ)
189. 사랑	이 담기다, 떠나다, 사라지다 을 그리다, 나누다, 느끼다, 얻다, 이루다 ,주다, 키우다			을 받다, (愛される) 하다 (愛する)	
190. 사실 (事實)	을 가리키다, 듣다, 만나다, 말하다, 모르다, 믿다, 밝히다, 배우다, 보다, 보이다, 알다, 알리다 ,이르다, 잊어버리다		을 불다 (吐く)		
191. 사업 (事業)	을 그만두다, 맡다, 펴다, 하다				
192. 사전 (辭典)	이 나오다 을 만들다, 사다		을 찾다 (引く)		
193. 사진 (寫眞)	이 걸리다 을 꺼내다, 보다, 찍다				이 나오다 (できる) 달리다 (つく)
194. 사회 (社會)	가 돌아가다, 되다, 바르다,				

	변하다, 열리다, 태어나다 를 만들다, 알다, 움직이다, 이루다, 향하다				
195. 산 (山)	을 깎다, 넘다, 돌아가다, 사랑하다, 오르다, 가다, 지나가다		을 내려가다 (下りる)		을 타다 (上る)
196. 상 (賞)	을 받다, 주다				을 내리다, (与える) 타다 (とる)
197. 새	가 울다, 잡히다 를 기르다, 잡다		가 앉다 (とまる)		
198. 새벽	이 되다, 오다 을 알리다				을 맞다 (迎える)
199. 색 (色)	이 나다, 변하다, 어울리다 을 내다				
200. 색깔	이 변하다 을 내다				을 받다 (合う)
201. 생각	이 나타나다, 막히다, 사라지다 을 가지다, 담다, 바꾸다, 버리다, 알리다, 움직이다, 읽다, 키우다			이 나다, (思い出す) 들다 (気がする) 을 고치다, (考え直す) 하다, (考える) 못하다 (考えられない)	
202. 생일 (生日)		생일(誕生日) 을 묻다		을 맞다 (誕生日を迎える)	
203. 생활 (生活)	을 그리다, 돕다, 마치다, 바꾸다, 보내다, 즐기다, 하다				
204. 서류 (書類)	를 보내다				를 꾸미다 (作る)

205. 선물 (膳物)		선물(贈り物) 을 가져오다, 고르다, 드리다, 받다, 보내다, 사다, 전하다, 주다, 풀다, 하다			
206. 선수 (選手)	가 되다, 이기다 를 쓰다, 이기다, 하다				
207. 설명 (說明)	이 붙다 을 달다, 드리다, 듣다, 붙이다, 빌리다, 하다				
208. 성격 (性格)	이 나타나다, 변하다 을 가지다, 고치다, 바꾸다, 보이다, 지니다				
209. 성적 (成績)	이 오르다				
210. 세계 (世界)	가 돌아가다 를 가다, 가리키다, 돌다, 만나다, 만들다, 바꾸다, 보다, 알다, 잇다, 찾다, 향하다				
211. 세상 (世上)		세상(世の中) 이 끝나다, 돌아가다, 되다, 변하다, 오다, 을 고치다, 구하다, 떠나다, 뜨다, 만나다, 만들다, 모르다, 믿다, 바꾸다,			

		사랑하다, 살다, 향하다			
212. 소	가 울다 를 끌다, 잡다, 키우다, 풀다, 타다				를 치다 (飼育する)
213. 소금	이 되다 을 굽다, 넣다				이 나다 (できる) 을 풀다, (とかす) 치다, (かける) 찍다 (つける)
214. 소녀 (少女)	를 사랑하다				
215. 소리	가 그치다, 나오다, 사라지다, 를 내다, 듣다		가 나다 (する)	를 치다 (叩ぶ)	
216. 소설 (小說)	을 내다, 쓰다, 읽다, 하다				을 옮기다 (翻訳する)
217. 소식 (消息)	이 가다, 오다 을 기다리다, 끊다, 듣다, 모르다, 묻다, 알다, 알리다, 전하다				
218. 손	이 끼다, 달리다, 붓다 을 끌다, 내리다, 넣다, 닦다, 들다, 빌리다, 쉬다, 움직이다, 잡다, 흔들다		이 가다 (かかる)		을 따다 (気持ち悪い時に手に針を刺す)
219. 손님	이 가다, 들다, 떨어지다, 오다, 차다, 찾다 을 기다리다, 끌다, 맡다,		을 받다 (とる)		을 맞다 (迎える)

	모시다, 잡다, 찾다				
220. 수업 (授業)	이 끝나다 을 끝내다, 듣다, 받다, 하다				
221. 숙제 (宿題)	가 끝나다 을 끝내다, 내다, 마치다, 하다				가 밀리다 (たまる)
222. 술	이 담기다, 들어가다 을 끊다, 뜨다, 마시다, 배우다, 붓다, 사다, 알다, 좋아하다, 주다, 즐기다, 팔다		이 떨어지다 (切れる)	이 깨다 (酔いが覚める)	이 받다, (入る) 오르다 (酔う) 을 시키다, (注文する) 익히다, (発酵させる) 못하다, (飲めない) 먹다 (飲む)
223. 숨			이 차다 (切れる) 을 고르다, (整える) 쉬다 (する)		
224. 숲	을 향하다				
225. 시계 (時計)	가 가리키다, 멈추다, 보이다 를 걸다, 고치다, 꺼내다, 만지다, 보다, 풀다		가 울다 (鳴る)		가 가다, (動く) 서다, (止まる) 자다, (止まる) 죽다 (止まる) 를 차다 (はめる)
226. 시내 (市内)	를 돌다, 들어가다, 지나가다,				

	지나다				
227. 시장 (市場)	이 서다 을 다녀오다			을 보다 (買い物する)	
228. 시험 (試驗)	을 끝내다, 하다		을 보다 (受ける)		을 치다 (受ける)
229. 식구 (食口)		식구(家族)가 되다, 모이다			
230. 식당 (食堂)	을 나오다, 열다, 차리다				을 하다 (営む)
231. 식사 (食事)	가 끝나다 를 끝내다, 나누다, 내다, 하다		를 들다 (とる)		
232. 신문 (新聞)	이 오다, 전하다, 팔리다 을 가져오다, 넣다, 들다, 만들다, 보다, 읽다, 팔다, 펴다				을 돌리다, (配る) 찍다 (刷る)
234. 신발	이 맞다 을 벗다, 신다				이 떨어지다 (くたびれる) 을 끌다 (つっかける)
235. 싸움	이 그치다, 일어나다 을 그치다, 하다		을 걸다 (売る)		이 나다, (起こる) 붙다 (起こる) 을 붙이다 (起こす)
236. 쌀	을 내다, 담다		이 떨어지다 (切れる) 을 씻다 (研ぐ)		이 나다 (できる)
237. 쓰레기	를 담다, 모으다, 버리다				
238. 아기	가 서다 를 가지다, 기르다, 낳다, 키우다				
239. 아래	를 보다, 향하다				
240. 아이	가 달리다, 서다, 울다, 태어나다				

	를 가지다, 기르다, 끼다, 남기다, 낳다, 두다, 맡다, 보다, 부르다, 사랑하다, 시키다, 지키다, 치다, 키우다, 팔다				
241. 아침	이 되다, 오다 을 먹다, 하다				을 차리다 (食べる)
242. 아파트	를 고치다, 짓다				
243. 안경 (眼鏡)	을 닦다, 바꾸다, 벗다		을 쓰다 (かける)		을 끼다, (かける) 맞추다 (作る)
244. 앞	을 가리다, 가리키다, 달리다, 보다, 지나가다, 지나다				
245. 애	를 낳다, 보다				
246. 야구 (野球)	를 보다, 좋아하다, 즐기다, 하다				
247. 약 (薬)	이 되다, 듣다 을 구하다, 놓다, 바르다, 사다, 쓰다, 주다		을 먹다 (飲む)		을 짓다, (作る) 치다 (農薬などを 使う)
248. 약속 (約束)	을 드리다, 정하다, 지키다, 하다		을 깨다 (破る)		
249. 양 (量)	이 차다 을 맞추다				
250. 어깨	를 잡다, 치다, 펴다, 흔들다				
251. 어른	이 되다 을 모시다				
252. 얼굴	이 붓다, 을 가리다,			을 펴다, (機嫌を直す)	이 타다 (焼ける)

	그리다, 닦다, 모르다, 묻다, 보다, 씻다, 알다, 알리다, 익히다, 치다, 향하다			풀다 (機嫌を直す)	
253. 여름	이 끝나다, 돌아오다, 되다, 오다 을 지내다				이 가다 (過ぎる)
254. 여자 (女子)		여자(女)가 미치다, 생기다, 울다 를 만나다, 사랑하다, 알다, 잡다, 좋아하다, 팔다		를 차다 (女を振る)	
255. 여행 (旅行)	을 가다, 다녀오다, 떠나다, 마치다, 오다, 즐기다, 하다				을 다니다, (して回る) 보내다 (行かせる)
256. 역사 (歷史)	를 가르치다, 가지다, 배우다, 쓰다				
257. 연구 (硏究)	가 막히다				
258. 연기 (煙氣)		연기(煙)가 나다 를 내다, 피우다		를 마시다 (煙を吸う)	
259. 연습 (練習)	을 마치다, 하다				
260. 연필 (鉛筆)	을 깎다				
261. 열 (열)	이 나다, 내려가다, 내리다, 오르다 을 내다, 만들다, 받다,				이 떨어지다 (下がる)

262. 영화 (映畵)	가 끝나다 를 만들다, 보다, 좋아하다, 찍다				가 뜨다 (ヒットする)
263. 옆	을 보다, 지나가다				
264. 오후 (午後)	가 되다				
265. 옷	이 맞다 어울리다, 을 걷다, 걸다, 고르다, 놓다, 맞추다, 바꾸다, 버리다, 벗다, 빌리다, 입다, 팔다				이 떨어지다, (破れる) 끼다 (小さい) 을 짓다, (作る) 받다 (合う)
266. 외국 (外國)	을 가다, 나가다, 다녀오다				
267. 욕심 (欲心)		욕심(欲)이 나다, 사라지다, 생기다, 차다 을 내다, 버리다			
268. 우산 (雨傘)	을 가져오다, 놓다, 빌리다		을 쓰다 (さす) 펴다 (開く)		
269. 우유 (牛乳)	를 넣다, 마시다				를 먹다, (飮む) 타다 (入れる)
270. 운동 (運動)	을 끝내다, 쉬다, 좋아하다, 하다				
271. 위	를 보다, 지나가다, 향하다				
272. 음악 (音樂)	이 나오다, 흐르다 을 가르치다, 끄다, 듣다, 사랑하다,				

	즐기다				
273. 의견 (意見)	이 맞다 을 가지다, 나누다, 내다, 듣다, 맞추다, 묻다, 펴다				
274. 의미 (意味)	가 담기다 를 담다, 얻다				를 두다 (持つ)
275. 의사 (醫師)		의사(医者)가 되다 를 만나다, 부르다, 하다			
276. 의자	를 끌다, 당기다				
277. 이 (齒)	가 나다 를 닦다				
278. 이름	이 남다, 을 걸다, 달다, 따다, 말하다, 묻다, 바꾸다, 밝히다, 부르다, 붙이다, 빌리다, 쓰다, 알다, 알리다, 얻다, 잊다, 잊어버리다, 정하다		을 내다 (上げる)		을 고치다, (変える) 올리다, (載せる) 짓다 (つける)
279. 이사 (移徙)				를 가다, (引越しする) 오다 (引越してくる)	
280. 이야기	가 돌다, 듣다, 전하다 를 꺼내다, 나누다, 듣다, 쓰다, 읽다, 잇다, 하다				를 옮기다, (引用、 翻訳する) 꾸미다, (作り変える) 짓다 (作る)
281. 이웃	을 돕다, 사랑하다				
282. 이유 (理由)	를 모르다, 묻다, 찾다				

283. 이해 (理解)	가 가다 를 구하다, 돕다, 하다				가 되다 (できる)
284. 인간 (人間)	을 낳다				
285. 인기 (人氣)	가 떨어지다 를 모으다, 얻다		를 끌다 (呼ぶ)		
286. 인사 (人事)		인사(挨拶)를 나누다			
287. 인생 (人生)	을 모르다, 살다, 즐기다				
288. 일	이 끝나다, 달리다, 생기다 을 가다, 가르치다, 꾸미다, 끌다, 끝내다, 나누다, 돕다, 마치다, 만들다, 맡기다, 맡다, 모르다, 못하다, 버리다, 사랑하다, 서두르다, 쉬다, 시키다, 얻다, 찾다, 하다				이 나다, (入る) 돌아가다, (うまくいく) 떨어지다 (入る) 을 보다 (する)
289. 일기 (日記)	를 쓰다, 읽다, 적다				
290. 입	이 붓다 을 가리다, 닫다, 막다, 열다			을 맞추다 (キスする)	
291. 자동차 (自動車)	가 나오다, 다니다, 달리다, 멈추다, 지나가다 를 가져오다, 내리다, 만들다, 세우다, 타다, 팔다				가 서다 (止まる) 를 끌다 (運転する)
292. 자리	가 남다, 생기다 를 구하다, 떠나다, 만들다,				를 뜨다 (発つ)

	바꾸다, 보다, 얻다, 옮기다, 지키다, 찾다, 펴다				
293. 자식 (子息)		자식(子供)을 걱정하다, 기르다, 낳다, 버리다, 보내다, 보다, 사랑하다, 찾다, 키우다			
294. 자신 (自信)	이 생기다 을 얻다				이 서다 (つく)
295. 자연 (自然)	을 사랑하다				
296. 자전거 (自轉車)	가 지나가다 를 빌리다				
297. 잔 (盞)	을 들다				
298. 잔치	가 끝니다				
299. 잘못	을 고치다, 이르다, 하다				
300. 잠				이 오다 (眠たくなる)	
301. 잡지 (雜紙)	를 보다				
302. 장 (場)		장(市場)이 서다 을 돌다		을 보다 (買い物する)	
303. 장소 (場所)	를 옮기다, 정하다, 찾다				
304. 재미			가 붙다 (湧く) 를 느끼다 (覚える)		
305. 재산 (財産)	을 모으다, 지니다, 지키다				
306. 저녁	이 되다, 오다	저녁(夕食)을 나누다, 짓다, 먹다, 사다			을 차리다 (する)
307. 전국 (全國)	을 돌다				

308. 전기 (電氣)	가 들어가다, 들어오다, 흐르다 를 넣다, 먹다, 쓰다				가 나가다 (消える)
309. 전쟁 (戰爭)	이 끝나다, 일어나다 을 끝내다, 일으키다				이 나다 (起こる)
310. 전체 (全體)	를 가리키다, 이루다				
311. 전통 (傳統)	을 버리다, 잇다, 지키다				을 세우다 (作る)
312. 전화 (電話)	가 오다 를 걸다, 기다리다, 끊다, 넣다, 드리다, 들다, 바꾸다, 받다, 빌리다, 하다		를 놓다 (引く)		
313. 절 (節)	을 드리다, 받다, 올리다, 하다				
314. 점심 (點心)		점심(昼ごはん)을 내다, 먹다, 하다		을 차리다 (昼ごはんにする)	
315. 정 (情)	을 느끼다, 모르다, 주다		이 붙다 (移る) 을 느끼다, (覚える) 붙이다 (移す)	을 나누다 (契りを交わす)	
316. 정신 (精神)	이 돌아오다			이 팔리다 (夢中になる) 을 팔다, (夢中になる) 놓다 (ぼおっとする)	
317. 조사 (調査)	를 끝내다, 다녀오다				
318. 조상		조상(祖先)이			

(祖上)		남기다 을 모시다			
319. 종류 (種類)	를 알리다				
320. 종이	를 꺼내다, 만들다, 바르다, 버리다, 붙이다, 잇다, 자르다, 펴다				
321. 준비 (準備)	가 끝나다 를 끝내다, 돕다, 서두르다				
322. 줄					
323. 중심 (中心)	을 이루다			이 잡히다 (バランスが とれる) 을 잡다 (バランスをとる)	
324. 쥐 (鼠)	를 몰다, 잡다				
325. 지구 (地球)	가 돌다 를 구하다, 사랑하다, 지키다				
326. 지도 (地圖)	를 읽다, 펴다		를 그리다 (描く)		
327. 지방 (地方)	을 돌다				
328. 지붕	을 고치다, 넘다, 타다				
329. 지역 (地域)	을 돌다				
330. 직업 (職業)	을 가지다, 구하다, 묻다, 바꾸다				
331. 직장 (職場)	을 가지다, 구하다, 나오다, 다니다, 얻다, 옮기다, 찾다				을 잡다 (決める)
332. 질문 (質問)	을 던지다, 드리다, 받다, 하다				

333. 짐	이 되다 을 내리다, 들다, 맡기다, 보내다, 옮기다, 풀다				을 지다 (背負う)
334. 집	이 나가다, 떨어지다, 타다, 팔리다 을 가지다, 걸다, 고르다, 고치다, 구하다, 나가다, 나오다, 다녀오다, 떠나다, 만들다, 버리다, 보다, 사다, 얻다, 옮기다, 잃다, 지키다, 짓다, 찾다, 팔다, 향하다				
335. 차 (車)	가 가다, 다니다, 달리다, 멈추다, 생기다, 오다, 움직이다, 잡히다, 지나가다 를 기다리다, 버리다, 세우다, 타다				가 서다 (止まる) 를 끌다 (運転する)
336. 차 (茶)	를 내다, 들다, 마시다, 받다		를 끓이다 (入れる)		
337. 차례 (次例)		차례(順番)가 돌아오다, 되다, 오다, 지나가다 를 기다리다, 바꾸다, 지키다			
338. 차이 (差異)		차이(違い)가 나다, 나타나다,		를 두다 (違いをつける) 지다	

		생기다, 를 나타내다, 느끼다, 보이다		(違いを出す)	
339. 창문 (窓門)		창문(窓)이 열리다 을 가리다, 닦다, 닫다, 열다			이 달리다 (ある)
340. 책 (冊)		책(本)이 나오다, 팔리다 을 가져오다, 고르다, 꺼내다, 내다, 넣다, 놓다, 들다, 만들다, 보다, 보이다, 빌리다, 사랑하다, 쓰다, 읽다, 주다, 찾다, 팔다		을 펴다, (本を開く) 덮다, (本を閉じる) 찍다, (本を刷る) 옮기다, (本を訳す) 짓다 (本を書く)	
341. 책상 (冊床)		책상(机)을 고치다, 끌다, 내만들다, 만지다			
342. 책임 (責任)	을 느끼다, 맡다, 묻다, 지다, 돌아오다		이 돌아가다 (移る) 을 돌리다 (逃れる)		
343. 청소 (清掃)		청소(掃除)를 시키다			
344. 추위	가 오다, 지나가다 를 견디다, 느끼다, 막다, 이기다				를 타다 (弱い)
345. 축구 (蹴球)		축구(サッカー)를 사랑하다,			

		좋아하다, 하다			
346. 춤	을 보이다, 추다				
347. 취미 (趣味)	가 생기다 를 가지다, 느끼다, 지니다				가 붙다 (できる) 를 붙이다 (作る)
348. 치마	를 만들다, 벗다		를 입다 (履く)		를 걷다 (捲くる)
349. 친구 (親舊)		친구(友達)가 돌아오다, 생기다 를 기다리다, 돕다, 만나다, 부르다		친구를 두다 (友達を持つ)	
350. 커피	가 나오다 를 가져오다, 남기다, 드리다, 들다, 마시다		를 끓이다 (入れる) 타다 (入れる)		를 시키다 (注文する)
351. 컴퓨터	를 고치다, 끄다, 놓다, 만지다, 모르다, 배우다, 치다, 켜다, 하다				가 나가다 (壊れる) 를 익히다 (学ぶ)
352. 코	가 막히다, 흐르다 를 막다, 만지다		를 풀다 (かむ)		
353. 키 (身長)	가 자라다				
354. 택시	가 다니다, 달리다, 지나가다 를 기다리다, 부르다, 세우다, 타다		를 잡다 (拾う)	가 잡히다 (拾われる)	
355. 텔레비전		이 나오다, 들어오다 을 고치다, 끄다, 보다, 켜다			
356. 토끼	가 뛰다,				

	움직이다 를 기르다, 잡다				
357. 통일 (統一)	을 이루다, 향하다				
358. 특징 (特徵)	이 나타나다 을 이루다				
359. 편지 (便紙)		편지(手紙)가 돌아오다, 오다 를 꺼내다, 받다, 보내다, 보다, 쓰다, 읽다, 전하다			
360. 표 (票)		표(チケット) 를 남기다, 받다, 사다, 얻다, 팔다		를 구하다, (チケットを 手に入れる) 찍다 (チケットをきる)	
361. 표정 (表精)	이 변하다 을 고치다, 바꾸다, 보이다, 읽다, 지니다, 하다				
362. 풀 (草)	이 나다, 자라다 을 깎다				
363. 피	가 나다, 나오다, 떨어지다, 묻다, 흐르다 를 닦다, 흘리다				
364. 필요 (必要)	를 느끼다				
365. 하늘	이 보이다 을 가리다, 가리키다, 덮다, 보다, 향하다				
366. 하루	가 끝나다, 지나가다, 지나다 를 기다리다, 보내다, 쉬다, 지내다				가 가다 (過ぎる) 를 열다 (始める)

367. 학교 (學校)	가 끝나다, 생기다, 쉬다 를 가다, 그만두다, 나오다, 다녀오다, 다니다, 들어가다, 떠나다, 마치다, 보내다, 세우다, 향하다				
368. 해	가 가다, 나다, 되다, 떨어지다, 지다		가 들다, (当たる) 뜨다 (昇る)		
369. 햇빛	이 나다 을 가리다		이 들다 (当たる)		
370. 행동 (行動)	을 배우다				
371. 허리	가 굽다 를 다치다, 세우다, 쓰다				
372. 형제 (兄弟)	를 사랑하다				
373. 호랑이	가 나타나다 를 잡다				
374. 호텔	을 나오다, 찾다				
375. 혼자	가 되다				
376. 화 (火)		를 누르다		가 나다 (腹が立つ) 를 내다, (腹を立てる) 풀다 (怒りを鎮める)	
377. 환경 (環境)	을 만들다, 지키다				
378. 환자 (患者)	가 생기다 를 보다, 옮기다				
379. 회사 (會社)	가 끝나다, 돌아가다, 일어나다				

	를 그만두다, 나오다, 다니다, 만들다, 세우다, 차리다, 찾다				
380. 효과 (效果)	가 나다, 나타나다, 떨어지다 를 가져오다, 낳다, 내다, 보다, 얻다, 주다				를 보다 (ある)
381. 흙	이 묻다 을 고르다, 닦다				
382. 희망 (希望)	이 담기다, 사라지다 을 가지다, 걸다, 버리다, 주다		이 생기다 (生まれる)		
383. 힘	이 나다, 달리다, 들다, 미치다, 붙다, 생기다, 자라다 을 기르다, 믿다, 붙이다, 빌리다, 쓰다, 키우다		을 주다 (入れる)	이 나다 (元気になる) 달리다, (力負けする) 들다 (しんどい) 을 내다 (頑張る)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Collocation for Japanese Learners

Shinsaku, OGIN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ocation is a essential knowledge to use language fluency, and also takes on a primary role in the process of language acquisition. Japanese learners have an advantage of learning Korean language, but they have problem to use korean collocation variously and correctly because collocation has a unique system for each language. This thesis explored contents and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collocation under the necessity of preparing the base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Japanese learners.

This thesis is divided in five chapter, and each substance is as in the following.

Chapter one argue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advanced researches, and the object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two firstly explored the concept and the range of collocation based on advanced researches in Korea and Japan. Secondly, it surveyed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collocation education at universities in Japan, and found out problems in three parts; Korean language text, learning attitude of learners, and teaching attitude of teachers. Finally, it prepared the representative list of Korean collocation for Japanese learners that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daily life, and classified by the contrastive linguistic method.

Chapter three surveyed the aspect of using Korean collocation by Japanese

learners in order to explore the guidelines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collocation. This survey found out the problem of using korean colloca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collocation and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in.

Chapter four firstly suggested the goal and objects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collocation. Secondly, it prepared contains and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collocation based the result of survey in chapter three, and they also made use of the representative list of Korean collocation that prepared in chapter two. Finally, it suggested the model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collocation at universities in Japan by the making use of texts that is used in now.

Chapter five argues the conclus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Japanese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ocation Education, Korean Collocation, Lexical Collocation, The Quantitative Ability of Collocation, The Qualitative Ability of Collocation

Student Number : 2010-24156